

통권 제26호

2011

형성문화

— 형성문화원 www.hs-culture.or.kr



황성문화원

문 | 화 | 비 | 전 | 선 | 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하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재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다.

하나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하나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 지방문화원은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대한민국 224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다양한 문화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다문화가정의 다문화,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어 가는 장례문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 대화로 시작해서 문자로, 문자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시대가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놓는 정보 전달문화... 이 같은 다양하고 빠른 정보화 시대의 우리 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불안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러한 현실에 비취 볼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저는 금년 초 현안사업으로 향토사료 수집을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노력하였으나 고작 타자기 몇 점 모은 것이 현실입니다.

진정 후세들에게 선조들의 실생활에서 사용하던 용품들을 지금 수집하지 못하면 더 많은 시간과 재정적 부담이 따른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구 선생님>의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 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않고 높고 새로운 문화 근원이 되고 모범이 되길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정말 우리는 눈앞에 경제적 관계와 물질적 이해관계보다 가치 있는 문화적 삶을 진심으로 갈망하고 있는 것일까. 지역의 산업개발과 기업 유치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보다 지역민의 문화적 복지 제고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고 산업과 문화의 조화라는 모범 답안을 내놓고 뒷짐을 지고 있어도 괜찮을 만큼 우리 사회의 문화와 괴리가 만만한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우리문화 속에서 보다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재를 늘려야 한다.



황성문화원장
김 광 수

축사 | Congratulatory Message

군민들의 관심 속에서 2011 황성문화가 발간되게 됨을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김광수 문화원장님을 비롯하여 집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1천년전 고위 관료 및 유교 지식인들로부터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당대의 모든 계층이 역할을 분담하면서 만들어낸 팔만대장경은 오랜 세월동안 각종 국난과 화재를 이겨내며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 되어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황성군수
고 석 용

이처럼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일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황성문화는 황성을 대표하는 향토문화지로서 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황성문화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심어주었고 문화간 격차를 해소하며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든든한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황성문화는 군민들에게 문화를 연결시키는 매개체로서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전령사로서, 그리고 황성의 맥과 얼을 이어가는 소중한 문예지로서 그 역할을 다 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황성문화원은 전통문화를 찾아내고 그 바탕위에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황성문화 향토지가 향토문화에 대한 갈증과 우리군의 소중한 사료로서 군민들 마음에 전해 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발간에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011.12.

축사 | Congratulatory Message

역사와 문화의 우리 고장을 군민들에게 올바르게 전해주고 애향심을 고취시킬 「2011 황성문화」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황성의 문화예술 창달의 뿌리 역할을 해 온 황성문화원과 김광수 원장님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성군의회 의장
정 명 철

오늘날 지역의 발전은 그 지역민의 창조적 문화역량과 비례한다고 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문화를 국가경쟁력의 척도로 삼으면서 문화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을 쏟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황성문화원이 이번에 펼쳐 놓은 「2011 황성문화」 또한 그러한 맥락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는 국력이라고 합니다.

일찍이 김 구 선생님도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화가 삶의 질을 높이고, 높아진 삶의 질이 곧 국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황성문화원의 땀과 노력이 배어있는 이 한권의 책이 황성 문화사의 소중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어 황성문화 발전의 희망찬 미래를 향해 더욱 정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2011 황성문화」가 발간되기까지 애써주신 원장님과 문화원 관계자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황성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12.

Contents



문화 비전 선언문

발간사 | 문화원장

축간사 | 군수, 의장

- 소통과 감동이 있는 무한사랑 복지실천 | 정병무 | 10

I. 향토문화의 숨결

- 조선중기 고흥산 인물담구와 그의 위민행정 고찰 | 박순업 | 19
- 華西學派 遜志 洪在龜의 「正俗新編」과 橫城 豊水院 聖堂 | 강대덕 | 34

II. 향토문화탐구

- 태기산성을 답사하다 | 이영식 | 60
- 갑천면 민물고기축제 | 박현숙 | 67
- 운곡 원천석 선생이 은거하던 황성 강림의 누출재와 변암 | 김동정 | 74

III. 황성사람 황성이야기

- 황성에서 보는 새 | 한상균 | 82
- 우리시장 황성시장 이야기 | 장태중 | 99
- 소똥차 러브호텔로 가다 | 권용환 | 106
- 우리고장 옛지명 「갈풍역」(葛豊驛) | 윤만복 | 126
- 문화유적 스토리텔링 “치악산 자락에 세겨진 충신의 마음” | 윤병철 | 130



IV. 지역문화 학습정보

-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학습 | 조원용 | 136
- 학교란 무엇인가? | 원용길 | 144
- 횡성을 예절의 고장으로 | 김인규 | 155

V. 문화탐방기행

- 안성 기행문 | 서휘 | 162
- 2011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해인사 | 유승희 | 169
- 향토문화 유적지 답사 | 이 슬, 이대웅, 최효재, 박소연 | 175

VI. 문예마당

- 수필 “Alamo” 와 “The green leaves of summer” | 정하영 | 184
- 시 “새벽을 달린다” | 진광수 | 189
- 시 “코스모스! 너를 부른다” | 원재성 | 190
- 한시 “승지화성발전” | 정병유 | 192
- 한시 “애아향” | 정계철 | 193
- 동시 “옥수수 같은 친구” | 하승협 | 194
- 산문 “웃음꽃이 피는 우리집” | 안예림 | 195

VII. 문화원소식

- 2011년 문화원 사업실적 | 198
- 문화원 회원명부 | 211

Clean & Green City **의성**

살고 싶 기리 락다



* 횡성군청 주민생활지원 과장
정병무

소통과 감동이 있는 무한사랑 복지실천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넘쳐나는 정보와 이론 속에 살아가는 우리지만 이거다! 하고 정의 내리기 어려운 질문임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럼 복지란 무엇을 뜻하는 걸까?

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행복한 삶’을 말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복지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 두 기본명제에 대한 관심과 고민은 아마도 내가 2007년부터 사회복지분야 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 시작된 것 같다.

행복이란? 실체가 불분명하여 쉽게 잡히지 않으며, 이런 행복을 데이터화하

여 정책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하지만 행복과 복지는 일맥의 관련이 있기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실행하는 모든 행위의 하나하나가 복지정책이라고 생각되며, 다양한 복지정책 실천으로 군민의 행복한 미래! 모두가 저마다의 꿈들을 이루어 다함께 살맛나는 황성군을 조성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군은 민선5기 출범과 함께 “다함께 살맛나는 황성, 청정녹색도시 황성”을 비전과 목표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넉넉한 복지체계를 구축·서민위한 복지행정을 군정의 중심에 두고 낮은 자세로 섬김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넉넉한 복지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1,970명), 노인(9,776명), 등록장애인(3,504명)등 영아에서 아동, 청소년, 장애인, 한부모가족, 노인과 함께 최근 새로운 보호계층으로 등장한 다문화가정에 이르기까지 군민 모두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한 황성을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첫째, 함께 나누는 따뜻한 황성을 만들고자

법적지원에서 소외된 불우계층 및 경제위기로 인한 위기가구에게 함께하는 소액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황성사랑 십시일반운동”을 8.23부터 전개(2011. 10월말 현재 738명-3,094구좌/4,020천원)하고 있으며, 황성군자원봉사센터 운영을 군 직영에서 혼합직영(2011. 7월)으로 전환하여 자원봉사대학, 가족봉사단, 자원봉사릴레이, 청소년 자원봉사리더스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는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및 횡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민관의 복지, 보건의 연계 협력기능을 강화하고 횡성군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횡성군사회복지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어른신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생활보장을 위하여

孝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노인이 존경받는 고장으로 변모시켜 나가고자 노부모 봉양수당(80세이상 노인1인 봉양 시 2만원)을 내년부터 지급하고자 법적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노인들이 활기차고 신명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17개사업/703명참여)하였으며, 전국최초 노인회장 활동비(월5만원) 지급과,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노인들의 여가생활 공간인 경로당 개보수사업(40개소)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별 순회 프로그램(건강체조, 웃음치료 교실, 종이접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내 7개소에서 노인복지대학을 운영하고,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독거노



인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 등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추진과, 독거노인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내 결식 우려 노인가구(280가구)를 대상으로 주2회 밑반찬,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는 식사배달사업 추진으로 식사를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하는 노인들이 한분도 계시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교육, 주거비 등 긴급지원사업 추진과, 지역사회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저소득 무직가구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의 산업화를 도모



하고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가구를 직접 방문·상담 등 욕구조사를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사례관리사업 추진으로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넷째, 함께 키우는 건강한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언제나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대하여 보육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시간연장(19:00~24:00) 및 휴일보육, 24시간 보육시설 운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군 새마을 부녀회와 시니어클럽, 지역아동센터를 추진단체로 하여 9개읍·면 아동 633명에게 365일 양질의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드림스타트에서는 0세부터(임산부) 만 12세의 저소득아동 및 가



족 450명을 대상으로 464백만원을 투자하여 취약계층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지원, 아동의 신체·정서적 건강발달 증진, 건강한 생활을 위한 사전 예방적 부모교육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령기아동건강검진” 등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을 통한 문화인프라 구축하고 청소년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공적서비스 확대를 기하고자 201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문화체육공원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섯째, 가족 모두가 행복한 횡성을 만들고자

여성 인적자원 활성화 및 여성권익증진을 위하여 여성단체 화합행사 지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횡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상담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한 행복만들기 상담소 운영,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회관 문화예술교육 운영, 횡성군여성발전기금 운영으로 취약계층 여성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새로운 보호계층으로 등장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횡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결혼이민자



가정 및 자녀에 대하여 방문교육, 통번역서비스 지원, 언어발달 지원사업, 언어영재교실 사업, 친정방문사업추진, 하나코스와 MOU체결 결혼이민자에게 취업지원, 다문화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여섯째, 장애인 복지구현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급여 2급 수급권자 인 등록 장애인에게는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 전액과 장애인 의료 보장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행정도우미,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복지시설도우미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고, 장애인보호작업장(보람원)운영과 금년 제2장애인보호작업장(한우리)시설설치 및 인력을 확충하여 내년 1월에 개장·운영할 예정이다.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재활 및 치료, 자립지원, 직업교육, 취업알선, 상담, 재가서비스 등 6개부문 34개사업 123개 단위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2011년에는 복지관이용료 전액면제, 장애인 보장구무료 수리, 재활 및 물리치료 대상자 확대 등 실질적인 서비스지원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제공 및 자활기반을 조성하고자 횡성지역자활센터운영, 청정에너텍 등 3개의 사회적기업 육성과 5개소의 공동체, 3개의 시장진입



형 사업단, 부림요식업을 비롯한 8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단에 300여명의 저소득층이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참여자의 탈수급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가스시설개선사업,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곱째,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학습복지 실현을 위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지역문화 형성을 위한 우수동아리 공모·개발 및 지원을 통하여 다양한 학습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 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고자 주민자치센터(9개읍.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다양한 주제의 학습체험 연계는 물론 지역주민의 수준 높은 공연과 학습성과 전시 등 평생학습에 대한 폭넓은 공감과 이해의 장을 마련하고, 책임있는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5개의 작은도서관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21세기 지식 정보시대에 걸 맞는 주민의 학습 정보교류의 장을 확보하고자 문화체육공원 내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들을 살펴보았다.

“21세기 복지국가는 초고령사회의 도래, 여성 역할의 변화,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라는 세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질 좋은 노인요양서비스와 보육서비스가 확대되고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계속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지난 서울에서 열린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발전을 위한 국가간 심포지엄 강연이 생각난다.

이처럼 시대변화에 따라 복지부분에서도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런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다 하겠다는 생각보다 지역사회복지시설과 단체 등 민간부분과 공공기관과 수요자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복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제는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35년이라는 적지 않은 공직생활 중에 사회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지금 이순간이 제일 행복하다.

나는 사람이 좋다.

내 주변에 함께 일하는 가슴 따뜻한 이들이 많이 있어 이런 분들과 함께하는 순간순간들이 소중하고 행복하다.

저들은 아무 대가도 없이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재물을 투자하여 행복한 미소로 일하는 이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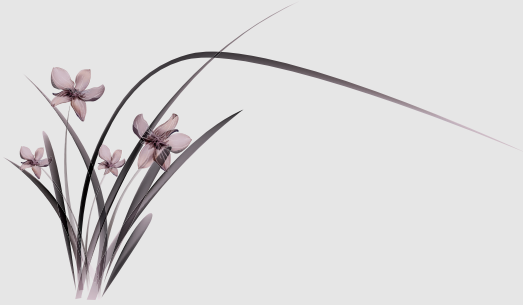
이런 마음 따뜻한 이들과 함께 서로의 따스한 체온을 느껴가며 더 행복한 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한다.



I. 향토문화의 숨결

* 조선중기 고흥산 인물탐구와 그의 위민행정 고찰 | 박순업

* 華西學派 遜志 洪在龜의 「正俗新編」과 橫城 豊水院 聖堂 | 강대덕



* 횡성문화원 부원장 | 박순업

I. 머리말

횡성읍 정암 3리 망백마을 오솔길 길가 언덕에는 앞뒤로 붙어 있는 부부(夫婦) 고분 2기가 자리 잡고 있다. 전면 양 옆에는 문관석, 촛대석 각 2개, 비신과 하엽이 하나의 돌로 이루어진 특이한 형태로 세워진 묘비가 있는데, 앞의 묘에 비해 뒤의 묘가 유난히 작고, 문관석 목이 잘려졌다 붙여진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단단한 문관석의 목이 떨어졌던 사연은 무엇이며 두 묘의 크기 차이 의미는 무엇인지 또 200여 미터의 발독 도랑가에 버려진 거북돌은 이 묘의 주인공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의문점이다.

1969년 봄 거북돌로 인하여 소동이 벌어졌었다. 밭 가운데 주인 없는 거북돌로 여겨 경작에 장애가 되던 밭주인은¹⁾에 국민교육헌장비를 세울 대석²⁾으로 갖고 가져가도 좋다는 허락하에 교장선생님은 운반하기 좋게 다듬어, 운반 날짜를 정해 놓았는데, 가문의 역사적 자료의 훼손과 무단 반출(고씨 문중의 문제제기)하려 한다는 이유로 학교장은 당국에 고발당하였다. 그런데 학교장이 더 산골학교로 자리를 옮기는 선에서 그 사건은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그 후 무관심속에 밭경작에 장애가 되던 거북돌은 굴려져 밭독에 방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그의 숨겨진 역사적 존재 가치를 탐구 해볼 필요를 느꼈다.

1) 1969년 본 연구지는 덕고초등학교 교사였음.

2) 당시는 학교마다 국민 교육헌장비를 세웠음.

정암리 사람들조차 이 고장에 고판서 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의 삶과 업적, 역사적 흔적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삶의 터전인 향토 곳곳에는 조상들이 살면서 남기고 간 가치 있는 흔적들이 묻혀있으나 무관심 속에 잊혀지거나 인멸되어 가고 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가치 있는 향토사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 모두 다 발굴, 가치를 부여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그러므로 가까운 그 지역에 사는 관심 있는 인사들이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이를 고찰, 탐구해 밝혀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특히 문관석의 목이 잘린 묘역에 잠든 고흥산은 조선 중기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요직을 두루 거친 횡성 출신 인물로서 생전에 역점사업으로 백성의 편의를 위해 100여년 전에 닦아놓은 서울과 강릉간 도로로 인해 사후 역적이라는 굴레가 되어 그에게 다가왔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 속에 위민행정을 펼쳤던 인간 고흥산, 고흥산은 강원도민일보와 한국문화원 연합회 강원도 지회에 의해 2002년 10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되었었고 동년 10월 16일 횡성문화원 주관으로 횡성문화관에서 강대덕박사의 고흥산을 주제로 한 강연회도 가졌었다. 또한 2011년 8월 GTB의 찬란한 강원문화유산 프로그램에서 고흥산의 업적이 방영되었다. (고형산의 묘 앞에서 본 연구자의 인터뷰로 진행됨).

위와 같은 열 선양 강연회와 방송 인터뷰에서 고흥산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간략한 현대적 재조명의 연구가 있었지만 고흥산과 관련된 조선왕조실록 분석을 통한 위민행정 고찰, 고흥산의 유적 대관령 옛길, 묘소 및 석물고찰, 고흥산과 관련된 지역의 설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더 깊이 살펴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져질 시사점이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II. 고흥산의 가계(家系)와 행적

고형산은 횡성이 낳은 대표적 인물로서 조부는 고습(高襲), 조모는 횡성고씨이며, 계공랑(啓功郎 ³)사신(思信)과 여흥민씨 사이에서 1453년(단종 1년)에 태어나 1528년(중종23년) 75세 까지 살았던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정숙(靜叔) 시호는 위열(威烈), 본관은 횡성, 봉호는 익평(翼平)이다.

27세 때인 1480년(성종11년) 小科(式年 生員試)를 거쳐 1483년(성종14년) 춘당대시(春塘臺試)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관직의 길로 접어들게 되어 우찬성까지 이르렀다.

고형산은 1남 3녀를 두었으나 아들은 소년시절 과거 길에 횡사하였다 구전⁴되어 오며, 큰 딸은 정암리 망백 마을의 이웃인 조준(趙俊: 횡성인), 둘째딸은 김용만(金用만:강릉인), 셋째딸은 민려손(閔礪孫:여흥인)에게 출가⁵하였으며 묘소는 상당기간 외손인 조씨 문중에서 외손봉사로 돌보아졌다.

제주고씨와 횡성조씨의 족보와 선대 묘소를 통해서 두 씨족은 그 당시 정암3리 망백마을에 집성촌을 이루고 사돈관계 등 교류가 밀접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현재에 와서는 횡성조씨만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학계에서 고흥산의 본관은 문과방목(文科榜目), 사마방목(司馬榜目) 등의 문헌 기록에 따라 본관을 횡성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비해 제주고씨 종중에서는 그것이 오류라는 것이다. 화전은 횡성의 옛 이름으로 제주고씨 시조 탐라왕에서 갈라진 고려말기의 화전군과의 후손으로 횡성고씨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것은 제주고씨 대동보와 숯을묘 고흥산의 할머니가 횡성고씨라는 것이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3) 고려시대 典獄署의 관직으로 구급된 죄수의 행간을 맡아보던 정9품관으로 고시신은 종7품관 이었다.

4) 횡성 조씨 종친회장 조성진 고증(2010.5.1)

5) 제주고씨 회전군과 대동보 1권 6쪽

Ⅲ. 조선왕조실록의 고형산

1. 실록기록 일람

조선왕조실록명	년 월 일	개략 소개
연산군 일기	연산군5년 1499.08.07	- 종사관 고형산에게 삼수에 보를 설치하는 일이 적당한지 살피게 함.
	연산군6년 1500.01.20	- 고형산에게 사헌부 장령으로 제수.1500.1.26 - 변방에 옮겨 살게 된 쇠진한 백성들에게 전토를 내릴 것을 아뢰 - 역로를 회복시킬 계책을 아뢰. - 장성을 쌓는 일의 불가함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않음.
	1500.07.06	- 함경도경차관 고형산에게 삼수에 어면보(魚面堡) 없이도 적을 제압 할수 있는지 조사하게 함.
	1500.11.03	- 한치형 등이 고형산에게 포상하기를 청함.
	연산군7년 1501.12.26	- 고형산에게 사헌부 집의를 겸직하게 함.연산군 8년
	1502.11.22	- 금물(禁物)을 아인에게 물래 피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를 청함.
	1502.12.05	- 고형산을 특별히 두 품계 올려 해주목사로 삼음.연산군 9년
	1503.01.04	- 함경도 절도사 고형산에게 가선(嘉善)을 더해주라 전교함.
	연산군10년 1504.06.02	- 함경북도 절도사 고형산이 전을 올려 은혜에 사례함.
	중종7년 1512.08.25	- 고형산이 횡성에서 병을 얻었으므로 약을 내리고 육식을 허락 하도록 전교함.
	중종22년 1527.02.02	- 고형산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임명함.
	중종23년 1528.01.20	- “고형산이 죽었다하니 매우 슬프다. 별례(別例)한 전례를 상고하여 아뢰라.” 전교하였음.
	중종실록	

2. 임금의 신뢰

성종 때는 종 6품관에서 정 6품관으로, 연산군 때는 세 번이나 특진을 하였으며 중종 때는 다음과 같이 더욱 신뢰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 ▶ 노모를 봉양하고자 형조판서를 사직 정계를 떠나고자 하였으나 고향의 관찰사로 보내 효도하게 배려한 점.
- ▶ 계모의 상사로 황성에 내려와 있다가 병을 얻었는데 임금이 친히 약물을 내려 치료하게 한 점.
- ▶ 병조판서 고형산이 눈이 어둡고 귀가 멀었으면서도 그 직임에 오래 있었다 하여 두 세 차례 사직하려 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었다는 점.
- ▶ 우찬성 고형산은 69세로 연로하여 사직하기를 원하였으나 임금은 만류하며 궤장(笏)을 하사하였다. 그러나 이를 사양하고 “특별히 신에게 본직을 주심은 감격함을 이길 수 없고 마음껏 일 하려하나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 막중한 국사에 그릇됨이 있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였으나 임금이 “경은 일찍이 호조를 역임하였는데 호조는 타조(他曹)와 달라서 경비 조절과 더불어 구황 등 여러 가지 업무가 막중하므로 사양치 말라.” 한 점.
- ▶ “고형산이 죽었다 하니 매우 슬프다. 별례로 치부(致賻)하는 전례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고 임금이 최선의 예우로 장례를 치루려 한 점으로 신뢰가 컸음을 알 수 있음.

3. 실록에 나타난 위민행정

관직 초기인 지평현감 재직 시, 백성의 숨은 고통을 부지런히 돌보며 폐단 제거에 힘써, 그의 업무 수행을 인정받은 이래 주요 요직에서 다음과 같이 백성의 편에서 일하였음을 알 수 있다.

- ▶ 변방 평안도에 옹긴 백성들이 안접(安接)하지 못하고 쇠진해 있으니 구휼(救恤)하는 방안과, 함경도 역로(驛路)의 폐단 개선책을 왕에게 아뢰어 해결책

을 찾은 점.(사헌부 장령시절)

- ▶ 각 관아에서 나누어 기르는 말의 관리 책임 문제와, 장성을 쌓는 일의 불가함을 아뢰어 오류를 시정하러 한 점.(사헌부 장령시절)
- ▶ 성 쌓는 일을 중지하라는 상소를 올려 백성의 무리한 부담을 덜어 주려한 점.(대사헌 사간시절)
- ▶ 서울의 흥리하는 사람과 본도 백성들이, 금물(禁物)을 야인에게 팔아서 그 폐단을 장차 금지하기 어려우니, 감사와 각 고을의 관원으로 하여금 엄중히 금지하게하고 위반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고발하게 하여 법을 범한 자의 재산을 그에게 주고, 또 수령으로서 능히 금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면령이 전임을 가리지 말고 중죄로 논단함은 이미 그 법이 있으니, 감사로 하여금 거듭 밝혀서 거행하기를 청하여 관철한 점.(함경도 경차관 시절).
- ▶ 해주목사 고흥산 등을 모아서 부령진(富寧鎭)을 옮겨 배치하는 것이 편리한지 여부를 의논하게하니, 고흥산이 의논드리기를, “부령진을 옮겨 배치할 곳을 신이 작년에 직접 가서 편리한지의 여부를 조사해 보았는데 정승파오달(政丞波吾達)에는 진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자세히 기록해서 아뢰었습니다. 정승파오달로부터 홍빈(紅濱)의 하단인 천파(泉坡)에 이르는 1식거리 안에는 지세가 험착하여 진을 설치하는데 적당하지 않고, 천파로부터 홍빈, 제봉 앞에 이르러는 토지가 넓어 10여리가 평탄하니, 만약 이 곳에 진을 설치하면 신영동(新營洞), 이원형동(李元亨洞), 속초동(束草洞)의 적로(賊路)와 허통동(虛通洞), 최달동(崔達洞) 등지의 적로를 막아서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을 설치할 곳에는 4월에도 쌓인 눈이 녹지 않고, 9월에는 얼음이 벌써 단단하게 얼므로, 신이 두 차례나 왕래하면서 솜옷을 겹쳐 입었으며, 추위가 본부(本府)보다 갑절이 더하여 오곡이 미처 익지 않은 듯 했고, 게다가 모두 땅이 모래와 돌이므로 오곡을 심기에 적당하지 못했습니다.

신은 듣건대, 중국에서는 방어하는 군졸들에게 의식을 관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다만 적로가 긴요한가 않은 가를 조사할 뿐이라 하는데, 우리나라의 방어는 이와 달라서, 성내에 거주하는 구인들이 처자를 거느리고 머물면서 방어하고 자신들이 옷과 양식을 준비해야 하므로, 당연히 그들의 농사짓기와 방어하기에 다 편리한 것을 살펴서 진을 설치한 후에라야 백성들이 생업에 편안하고, 방어 또한 튼튼할 것이오니, 신의 소견으로는 지금 진을 옮기는 곳이 편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무산보(茂山堡)에서 풍산보(豐山堡)에 이르는 40리와 풍산보에서 회령진에 이르는 60리에는 그 사이에 방수(防戍)하는 곳이 전혀 없으며, 두 보루(堡壘)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농사짓는 땅과 다니는 길이 모두 외지에 있으므로 적로가 가깝고 재세도 험하지 않으며, 검천(檢天)이하의 길가에 가까이 살고 있는 야인들이 연속해서 왕래하여, 작년 1년 동안에 두세 번이나 사람과 마소를 약탈해 갔으니, 경화(梗化)되는 조짐이 벌써 나타났습니다. 만약 때를 지어 일어나서 도둑질을 한다면, 무인지경을 들어오는 것 같이 장애될 것이 없으므로 변고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만약 양영만동(梁永萬洞)과 동양동(東良洞)과의 중앙에 옮기고, 풍산보를 삼기 근처에 옮기고 또 하거(下車)의 아랫지방에 다시 옛날의 보루를 세우면, 세 보루의 거리가 20여 리에 불과하게 될 것이니 수미(首尾)가 서로 구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고에 응하기가 편리할 것이요, 두 보루에서 농사짓는 논밭이나 다니는 길이 모두 내지(內地)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지을 수 있는 묵은 토지를 계산할 수는 없으나, 토질이 또한 비옥하여 백성들 중에 옮겨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신의 소견은 이와 같습니다.” 라고 북방정책 추진에 힘쓴 점.(해주목사 시절)

이처럼 고흥산은 백성의 편에서 그의 관직을 수행하였다. 성종 때는 현감으로서 백성의 숨은 고통을 찾아 해결해 줌과 폐단을 제거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특진되었고 연산군 때는 사헌부 내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능력 발휘로 존재가

치를 확고히 하였다. 또한 함경도 경차관, 해주목사, 함경북도 절도사를 거치면서 북방정책의 기틀은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성종·연산군 때 탄탄히 다져놓은 그의 경륜은 중종 때에 와서 중신의 반열에 오르며 그의 능력을 최고조로 발휘하며 중종의 신임을 한몸에 받고 다음과 같이 백성들을 위해 행정을 펼쳤다.

- ▶ 중종2년(1507년 2월)에는 함경도 관찰사가 되어 경흥부에 창고를 짓고 도민의 유리를 막는 등 백성을 잘 다스렸으므로 왕으로부터 치사를 받았다.
- ▶ 중종6년 (1511년 11월) 강원도 관찰사가 되어 강릉진, 삼척진, 동포, 울진포, 대포 등 다섯 진포의 성을 쌓아 왜적의 침입에 대비하는 등 왜적을 방비하는 계책을 중앙에 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쌓여있는 행정상의 불만을 정리하여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강원도관찰사 시절)
- ▶ 강원도 관찰사와 공조판서를 역임하면서 우마차가 다닐수 있도록 대관령을 닦았고 동서를 관통하는 대동맥 서울-강릉 도로를 개통하는 등 백성의 어려움을 해결하였다.
- ▶ 중종 11년(1516년 10월) 병조판서에 제수되고 5월 18일 죽궁을 만들어 그 우수성을 왕에게 설명 병기 개선에 노력하였다. 또한 성품이 정직하며 부지런하고 검소했던 그는 오랫동안 병사와 금전과 양곡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아오면서 곡식을 저축해 두고 흉작에 대비하는 사창법을 실시해 백성을 구휼(救恤)할 것을 주장하는 등 백성의 입장에서 모든 행정력을 발휘하였다.
- ▶ 중종17년(1522년) 우찬성과 순변사 특진관 고흥산은 황성인으로서 소과와 대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찬성⁶⁾에 이르러 국정을 두루 살피는 한편 제주와 양마와 왜구의 침략에 대한 방비책을 여러 차례 상소하였다.
- ▶ 중종 19년 (1524년)비변사 당상과 증추부사를 거쳐 중종20년 순찰사를 역임하며 백성의 편의를 위해 제도를 정비한 것이 많았다.

6) 성질이 질박하고 부지런하고 검소하였다. 오랫동안 군의 병사와 금전, 양곡을 관리하는 병조, 호조판서 직임을 맡아 처리가 매우 정밀 하였으며, 일을 정비한 것이 많았다. 『신 중 동국 여지 승람』제46권 황성현편 참조

이처럼 단종1년(1453년)태어나 중종23(1528년)까지 평생 동안을 백성의 입장에서 불편을 듣고 직접 상소하는 등 백성들의 존경과 칭찬이 자자했다.

IV. 횡성과 고흥산 설화 · 유적

1. 통통바위 7)

횡성 생운리 입구 굽이쳐 흐르는 전천에는 통통바위라는 큰 바위가 있는데, 옛날에는 물이 빙빙 돌뿐 아니라 명주실 한 꾸러미가 다 들어갈 정도로 물이 깊었다고 한다.

이 바위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옛날 고씨 성을 가진 소년이 매일 이곳을 지나 청룡리 마을로 글을 배우러 다녔다고 한다. 워낙 머리가 총명하고 재능이 뛰어난지라 서당 훈장이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알 정도였다고 한다.



통통바위

어느 날 이 소년은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잠시 쉬어 갈려고 이 바위 위에 앉았다 깜박 잠이 들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비몽사몽간에 이 소년에게 이상한 말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셋 조용히! 고판서께서 잠을 주무신다. 그래 지체 높으신 어르신께서 잠을 깨시면 안 되잖아.” 그 소리에 눈을 번쩍 뜬 소년은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았으나 바위 주변에는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았다. 다만 물소리만이 들려 올 뿐이었다. 이 소년이 바로 횡성의 인물로 손꼽히는 고흥산이었다.

7) 횡성군 『횡성군지』, 강원도민일보사, 2001, 139쪽

2. 솟을묘⁸⁾

횡성읍 조곡리 새골 안마을에는 고판서의 할머니 묘가 있는데 고행산이 과거에 합격 승승장구하다 판서가되어 삼현육각을 울리며 금의환향을 한다는 소리가 들리자 갑자기 봉분이 솟아올랐다고 한다.



손자가 판서가 되자 솟아올랐다는 횡성고씨 묘(솟을묘)

그 후부터 사람들 이 묘를 솟을묘라 부르고 있다.

한편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고행산 할머니는 내 손자가 판서가 되면 춤을 추겠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늘 말했었다고 한다. 죽어서라도 무덤 속에서 덩실 덩실 춤을 추겠다고.

3. 도깨비의 계시

하루는 고행산의 아버지 사신이 출타 중 밤길을 걷는데 도깨비를 만났으며 도깨비는 그를 등에 업고 어느 야트막한 산자락에 내려놓고 이곳이 명당이다 중얼거리며 사라졌다고 한다. 얼마후 고행산의 할머니가 세상을 뜨자, 아버지 사신(思信)은 모친의 묘를 그곳에 모셨는데 전설 속의 솟을묘가 된 것이다.

4. 고행산과 대관령⁹⁾

대관령은 강릉시와 평창군 사이의령으로 높이 832m, 길이가 13km 된다. 영동과 영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이며 문화의 전달로이고, 자연의 경계지이다.

강릉에서 생산되는 해산물, 농산물들이 이 길을 통해 영서 지방으로 넘어갔고, 영서지방에서 생산되는 토산품이 성산면 구산리의 구산장, 연곡장, 옥계장 등으로 넘나들었다.

8) 횡성군, 『횡성군지』, 강원도민일보사, 2001, 1393쪽

9) 박순업, 『횡성문화』, 횡성문화원, 2007, 22-23쪽

또한 이 길은 개나리 붓짐에 짚신을 신고 오르내리던 백성들의 애환과 역사적 향기가 어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길은 조선초기까지만 해도 사람 한 둘이 간신히 다닐 정도였으나 그 후 조선 중종 때 강원관찰사인 고흥산이 사재를 털어 우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넓혀 놓았다고 한다.

대관령 옛길은 역사의 오솔길, 트래킹 코스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고흥산이 대관령 길을 넓혔다는 내용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5. 묘비와 묘소

고형산의 사후 100여년이 흘러간 다음 병자호란이 일어났으며 국방력이 미흡하고 국력이 쇠잔했던 조선은 순식간에 한양을 점령당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국치를 당하였다. 서울이 빨리 점령당한 것은 고흥산이 잘 닦아놓은 길이 한 원인이라는 인조의 분노로, 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하게도 고흥산은 두 번의 죽음을 당하는 역적의 처지가 되어 묘역도 훼손되었다. 하지만 훗날 경강도로의 필요성, 편리성으로 인한 재평가로 역적의 누명에서 벗어나 명예회복을 하였다.

[묘비]

고형산의 묘비는 황성읍에서 우천 방향으로 6번 도로를 따라가다가 조곡 - 정암 쪽으로 우회전하고 약 1km 직진 후 다시 생운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생운교를 지나면 정암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정암3리 망백마을 입구의 사선생비 앞 갈림길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산 (황성읍 정암3리 산 207-1번지) 위에 있다. 묘비에는 정경부인 윤씨 지묘, 송정대부 의정부 우찬성 고공 지묘라 음각 되어 있다.



(정면에서 본 것. 고흥산 묘는 부인 묘에 가려 보이지 않음)

[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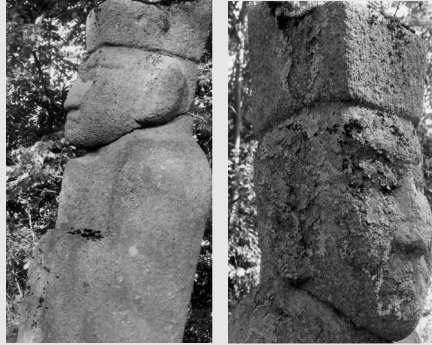
묘는 앞 뒤로 합장이며, 앞에 정경부인 윤씨묘, 뒤가 우찬성 고흥산의 묘인데 뒤의 묘가 작은 것은 인조 때 훼손되었기 때문이라 전해지고 있다.



(앞은 정경부인 윤씨묘, 뒤는 고흥산 묘)

[문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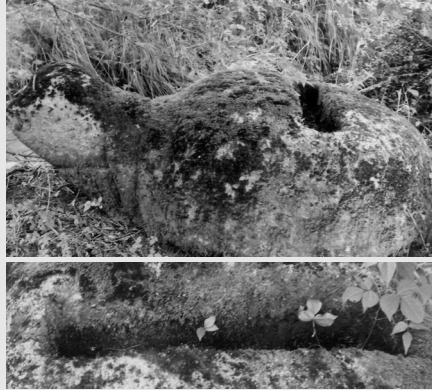
당시 어리석은 판단에 의해 무거운 죄를 뒤집어 썼지만 고흥산은 이미 세상을 뜬지 100여년이 흘러, 죄값을 치를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애꿎은 문관석이 목이 잘렸다.



(목이잘린 문관석)

[귀부대석]

대제학 홍언필이 찬 하였다는 신도비는 죄를 뒤집어 썼을 당시 파손되어 없어졌다 하고 신도비를 세웠던 귀부대석만이 도랑가 발둑 풀 속에 방치되어 오늘에 이르르고 있다.



(귀부대석에 신도비를 세웠던 홈(60×20))

- 귀부대석의 크기 - 길이180cm, 높이100cm, 폭70cm
- 신도를 세웠던 홈의 크기 - 가로60cm, 세로20cm

V. 맺는 말

고형산은 단종1년(1453년)에 태어나 중종23년(1528년) 75세까지 살며 성종, 연산군, 중종조 때 아래에서 부터 여러 주요 관직을 역임했다. 초야에 묻혀 있던 사람으로 처음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의 인간 됨됨이와 탁월한 능력이 동료, 대신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마침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임금에게 알려져 깊은 신임을 받아 중용되었다.

임금으로 부터의 깊은 신뢰는 그의 관직에서 직무 수행에 활력소가 되었으며, 특히 힘없는 백성을 위해 폐단을 제거하고 제도를 개선,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펴는데 큰 힘이 되었다. 그는 문신이면서도 병조판서를 역임 왜구 방비, 북방정책을 효율적으로 폈으며 호조판서로서 구휼과 조세정책을 백성의 입장에서, 그의 주요 관직을 두루 거치면서 위민 정책을 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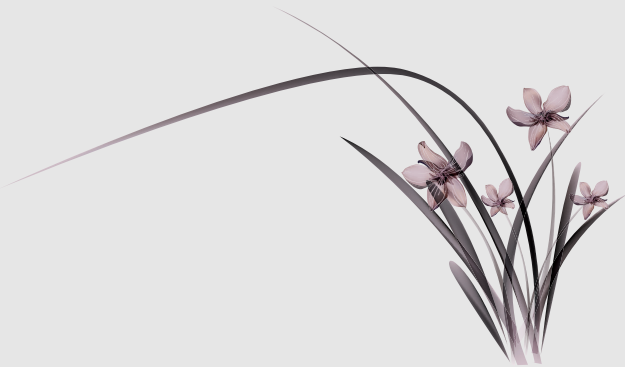
그의 행적은 연산군 일기와 중종실록의 고형산 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임금에게 신뢰를 받기까지의 인간적인 삶과 자기관리, 백성을 위해 펼쳤던 여러 관직에서의 직무 수행을 통한 위민(爲民) 행정을 고찰하였다. 또한 지역에 전래되는 고형산 관련 설화와 대관령 옛길, 묘역 등에서 그의 흔적을 찾는데 노력하였다.

그중 가장 주목 받는 것은 공조판서와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하면서 서울과 강릉을 잇는 경강도로를 개통한 일이다. 한 두 사람이 겨우 빠져 나가던 대관령 길을 백성의 편의를 위하여 우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닦은 그의 업적이 훗날 화근이 되어 묘역까지 훼손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의 훌륭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직계의 절손과 몰락, 한 때나마 무거운 죄를 뒤집어쓰고 무관심은 그의 위업이 세상에 알려지는데 장애가 되었다.

500여년 전 고형산의 훌륭한 삶은 조그마한 시골 마을 역사 속에 묻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워 이를 발굴 세상에 알리려 하였으며 그렇게 하여 향토사를 활용한 역사의식을 높여 그 가치를 공유 확산해 나가고자 하였다.

참 고 문 헌

1. 이인재, '횡성금석문대관', 횡성문화원, 도서출판 해안, 2004년 7월 31일,
'횡성문화원', 서원사, 2007년 12월 31일.
2. 횡성군, '횡성군지', 강원도민일 보사, 2001년12월 20일.
3. 강대덕, '조선시대사료를 통해본 횡성', 횡성문화원, 도서출판 목민, 2001년 3월30일.
4. 횡성군, '화성의옛터', 강원일보사, 1996년12월23일.
5. 이영식, '횡성의 지명 유래', 횡성문화원, 도서출판 목민, 2001년 4월 25일
6. 횡성문화원장 '횡성의문화유산', 횡성문화원, 누리기획, 1, 강원문화사, 1995년 5월29일
7. 한국문화원연합회강원도지회, 『제18회 강원도 향토문화연구발표 논문집』,
2008년 10월 23일
8. 횡성문화원장, 『역사에 빛나는 횡성의 인물』, 횡성문화원, 서원인쇄사, 1996



華西學派 遜志 洪在龜의 「正俗新編」과 橫城 豊水院 聖堂



* 文學博士, 獨立紀念館 學藝研究官 | 姜大德

I. 머리말

華西學派가 활동하였던 19세기 중엽 이후는 西勢東漸이 가속화 되어가는 대외관계에 있어서 서구 열강의 새로운 세계와 접촉을 통하여 민족의식이 확대되고 대내적으로 서학의 천주교가 확산됨에 따라 衛正斥邪論이 대두되었다. 화서학파의 위정척사론은 조선 정통의 朱子學의 主理論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아 尊中華·攘夷狄¹⁾ 을 내세우면서 胡亂²⁾ 이후 崇明反淸 사상을 계승하였다.

또한 儒敎文化 체계를 衛正의 '正' 으로 규정하여 이를 保存하여야 할 대상으로 삼고 1860년 이후 서양의 문화와 서구의 帝國主義를 모방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 세력이 가속적으로 압박을 더함으로써 국권이 상실되어 가는 시기의 정치·경제·사회·문화가치체계를 斥邪의 '邪' 로 규정하여 이를 물리쳐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였다.³⁾

1876년 일본의 무력적 위협에 의하여 강제로 맺어진 불평등한 江華島條約으로 개항된 이후 조선의 영토는 서구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 우리나라가 유린되고 온 사회의 모순들이 급증되어 자주적인 개혁의지와 노력이 무산되어 버렸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국가의 자주와 민족적 危機意識에서 적극적으로 대항한 것이 화서학파의 衛正斥邪思想을 바탕으로 한 위정척사 上疏運動이었다.⁴⁾ 당시 시대상황이 國家存亡의 위기상황이었기 때문에 華西學派의 위정척사의식도 이념적 비판에서 실천적 행동으로 바뀌어졌다.

華西學派 가운데서도 이러한 시대적 使命意識을 갖고 행동하는 지성으로 실천한 대표적 인물이 華西 李恒老(1792~1868)·重菴 金平?(1819~1891)·省齋 柳重敎(1832~1893) 등이며, 그들의 학파인 화서학파 門人으로서 몸소 행동으로 실천한 인물이 당시 횡성, 봉평 등지에 살고 있던 遜志 洪在龜(1845~1898)였다.

1) 姜大德, 『華西 李恒老의 時代認識』, 新書苑, 2001. 74~103쪽 참조.

2) 1627년(인조 5) 1월 중순부터 3월 초순까지 약 2개월간 지속되었던 後金(淸)과 仁祖反正 후 親明排金 政策을 표방하던 朝鮮 사이의 전쟁인 丁卯胡亂과 1636년 丙子胡亂으로 만주족, 몽골족, 漢人으로 조직된 12만 8000명의 대군을 친히 거느리고 淸 太宗의 오랑캐들로 인하여 일어난 亂離로써 조선 仁祖 14(1636)년 12월에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한 전쟁을 말한다.

3) 姜大德, 『華西 李恒老의 時代認識』, 新書苑, 2001. 94쪽

4) 姜大德, 『華西 李恒老의 時代認識』, 新書苑, 2001. 251~261쪽..

본고에서 考察하려는 「正俗新編」은 그동안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19세기 저술된 저서이며 저자는 당시 황성에 거주하고 있던 遜志 洪在龜로 알려져 왔다. 홍재구는 華西 李恒老의 문인이며 重菴 金平?의 嫡傳弟子이면서사위이기도 하다.

19세기 開港前後 조선사회는 대내적으로 이미 1811년 洪景來亂을 비롯하여 1862년 晉州民亂 등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農民抗爭이 일어나 체제변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대외적으로 이전부터 세력을 키워온 천주교의 교세 확장과 강제적 개항에 따른 외래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라는 이질적 문명의 서양열강의 도전을 받았던 시기였다. 이와 같이 국내외 위기의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서 이항로를 비롯한 화서학파는 성리학의 주리론을 바탕으로 正學인 성리학과 성리학적 질서를 수호하고, 성리학 이외의 모든 종교와 사상을 邪學으로 배격하는 衛正斥邪運動을 전개하였다. 물론 이 시기 서양침략에 따른 문화접촉과 갈등의 충격으로 이를 극복, 대응하기 위해 開化思想이나 東學思想 등 새로운 사상체계가 등장하였지만 화서 이항로는 儒敎文化圈의 주축사상인 儒敎, 나아가 성리학을 바탕으로 尊中華攘夷狄의 衛正斥邪論을 現實對應論으로 삼았다. 또 실천적 대응으로는 華西學派의 抗日義兵鬪爭을 통해 민족주의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후 화서 이항로의 현실대응론과 실천운동을 이어 받은 화서문인들은 위정척사운동과 항일의병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며 더욱 발전·순화하였다.5)

손지 홍재구는 화서 이항로의 위정척사사상과 이론을 가장 충실히 계승한 인물로 화서사후에는 중암 김평묵과 성재 유증교에게 학문을 전수받아 화서학파의 선두적 입장에 있었던 중암문인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그는 1876년 開港당시 江華島條約 반대상소인 丙子聯名儒疏의 疏頭로서 주도적으로 전개했고 1881년 伏閣上疏運動 당시에도 중암 김평묵의 지도아래 關東儒疏 상소문을 직접 작성하였으며 6) 1896년 高宗皇帝를 還宮시키기 위한 계획을 주도적으로 실천하기도 하였다.7)

5) 姜大德, 『華西 李恒老의 時代認識』, 新書苑, 2001, 293쪽.

6) 姜大德, 『華西學派의 辛巳斥邪運動과 勵志堂 洪在龜 墓誌銘』, 『春州文化』 제25호, 春川文化院, 2010, 64-71쪽.; 姜大德, 『華西 李恒老의 時代認識』, 新書苑, 2001, 254-259쪽.

關東儒疏의 上疏文은 重菴 金平默의 사위인 洪在龜가 작성하였고, 김평묵이 이에 추가하여 尾附疏를 지어 붙였다. 그러나 홍재구가 지은 原疏의 내용은 평소 김평묵의 강론을 제시한 것이었다. 이렇게 製疏하여 올린辛巳聯名上疏는 60여일간 伏閣上疏임에도 불구하고 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疏首 洪在龜은 閔氏 戚族의 거물인 閔台鎬에게 서신을 보내 개화에 앞장선 老論당로자와 이에 침묵을 지킨 그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홍재학의 격렬한 언동과 國政을 통박하며 과감하게 주장을 내세웠으므로 관동유소는 마침내 받아들여졌다

7) 俄館播遷은 1896년 2월 11일에 親露세력과 러시아공사 웨베르(Waeber)가 공모하여 비밀리에 高宗皇帝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親日內閣인 金弘集중심의 甲午政權은 무너지고, 還宮이 이루어지는 1897년 2월 20일에 慶運宮으로 환궁하여 大韓帝國을 세우게 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俄館播遷은 그 이전 1895년 8월 20일에 일어났던 乙未事變으로부터 그 직접적 원인이 제공되었다. 민왕후가 시해되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낀 고종황제는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 것이다.

홍재구는 화서학파의 주요인물로서 1891년부터 1893년 중암과 성재사후 차지하는 그의 비중은 대단히 높았다. 그의 주도적 행동으로 실천한 역사적 사건들로 주목받아야 할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학문연구에서 실증적 검토도 제대로 받지 못한 매우 부진한 상태로 放棄되어 역사적으로 조명되지 못하였다. 8) 그 이유는 그의 문집과 저서가 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여지거나 소개되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9) 그러나 최근 화서학파의 重菴 金平默문인으로 그의 사위인 遜志 洪在龜 저술로 알려진 「正俗新編」이 프랑스 교육부 직속인 파리 제3대학에 있는 도서관(Bibliothèque interuniversitaire des Langues orientales)에서 운영하는 古文書庫에 소장되어 있음이 발견되면서 10) 손지 홍재구와 화서학파의 衛正斥邪論을 새롭게 밝힐 수 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11) 이 책을 살펴보면 저자의 표기는 없지만, 1888년 6월부터 橫城 豊水院 本堂 12)에 부임하여 司牧활동을 하던 프랑스인 신부 르 메르(Le Mère, 李類斯 1888.6.~1896. 8. 재임)신부는 1892년 「正俗新編」를 수집한 후 교구장 뮈텔(Mutel, 閔德孝 1854~1933 재임) 주교의 왕복서한을 통해 「正俗新編」의 저자가 홍재구임을 알 수 있다. 13) 그리고 황성의 풍수원 성당 14) 과의 관계 등 「正俗新編」에 대한 내용을 분석 고찰하여 당시 천주교의 반응과 서양기술 인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正俗新編」의 완전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책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 보고 중암 김평묵의 학맥을 계승한 홍재구의 사상의 일면도 함께 밝히고자 한다. 물론

-
- 8) 姜大德, 『華西 李恒老의 時代認識』, 新書苑, 2001.; 姜大德, 『華西學派의 辛巳斥邪運動과 勵志堂 洪在龜 墓誌銘』, 『春州文化』 제25호, 春川文化院, 2010.; 姜大德, 『華西學派 勵志堂 洪在龜 簡札考』, 『春州文化』 제 26호, 春川文化院, 2011.
- 9) 1992년 발간된 『南陽洪氏大提學麻川公派譜』에 洪在龜의 文集으로 추정되는 『遜志集』과 『語錄』이 전해진다고 하나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 10) 『正俗新編』, 122쪽의 분량으로 규격은 28cm×17cm이며, 漢文體 筆寫本이다.
- 11) 『正俗新編』은 2002년 당시 原州敎區의 呂珍千 神父에 의해 그 소제가 처음으로 밝혀졌다. 그는 2002년 4월 12일 파리에 유학 중인 이종혁 신부를 통해 마이크로필름 복사본을 입수하여 프랑스에 건네가게 된 경위 등을 자세히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呂珍千 신부는 「홍재구의 「정속신편」 과 대서양인식」 라는 논제로 2002. 6. 22. 개최된 제133회 한국교회사연구 발표회에서 처음으로 소개하였다.(呂珍千, 「19세기 화서학과 홍재구의 서양 인식과 천주교회의 반응」, 『교회사연구』 2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03. 38쪽. 주 21) 참조.)
- 12) 블랑 주교 및 뮈텔 주교는 천주교회 재건정책중의 하나로 본당 增設을 펼치고 있었다. 이 결과로 황성의 풍수원(1888년 르 메르 신부)과 원주 본당(1896년 르 메르 신부)이 설립되었다. 1892년 당시 활동하였던 프랑스인 선교사는 21명이었고, 신자수는 1885년 13,623명이었고 1892년에는 20,840명이었다.
- 13) 呂珍千, 「『正俗新編』 해제」, 『교회사연구』 18집, 2002. ; 呂珍千, 「19세기 화서학과 홍재구의 서양 인식과 천주교회의 반응」, 『교회사연구』 2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03.
- 14) 豊水院 聖堂은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에 있는 한국 천주교 원주교구의 성당이다. 강원도의 시도유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인 신부가 지은 한국 최초의 천주교 성당이고, 한국에서 네 번째로 지어진 성당이다. 1907년 신자들의 손에 의해 직접 지어진 본 성당은 9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재하며, 1920년 이래 계속되고 있는 성체현양대회 때면 전국에서 1,500여 명이 넘는 신도들이 이 교회로 찾아온다. 또한 이 교회 본당 옆에 위치한 구 사제관은 원형이 비교적 잘 유지된 벽돌조 건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5년 등록문화재 163호로 지정되었다.

이런 작업이 화서 이항로 사후 重菴계열과 省齋계열의 분열양상을 보다 구체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橫城에서 직접 저술한 손지 홍재구의 「正俗新編」에 대한 연구와 같은 시기 홍재구의 다른 저서에 대한 확인조사¹⁵⁾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다.

II. 遜志 洪在龜와 「正俗新編」

「正俗新編」의 저자인 遜志 洪在龜는 1845년 강원도 춘천에서 출생하였다. 본관은 南陽으로 字는 思伯, 號는 遜志이다. 그의 집안은 春川市 西面 新梅里에서 世居하던 南陽 洪氏 가문으로 1881년 辛巳斥邪運動 때 순절한 勵志 洪在鶴(1848~1881)은 그의 동생이다. 일찍이 홍재학과 함께 양평의 화서 이항로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였다. 1868년 화서 사후, 부친 洪昌燮은 자식의 교육을 위해 중암 김평목을 춘천으로 초빙하여 사사시켰고 나아가 홍재구는 중암 김평목의 사위가 되었다.

1876년 손지 홍재구는 중암 김평목을 따라 경기도 가평군 龜谷으로 이주하였는데, 중암과 함께 丙子聯名儒疏를 올려 화서학과의 위정척사론을 대변하였다. 이후 문인들과 함께 自靖遜志의 출처관을 건지하다가 1881년 辛巳斥邪運動에 적극 가담하다가 동생 홍재학이 疏首가 된 關東儒疏는 홍재구가 실제 집필하였다. 1880년 수신사 金弘集(1842~1896)이 일본으로 귀국하면서 黃遵憲(1848~1905)이 전술한 「朝鮮策略」을 갖고 들어오자 이를 계기로 위정척사론이 대두되었다. 이때 중암을 비롯한 관동지역의 중암 계열문인들이 복합 상소를 전개하였다. 이때 홍재구·홍재학 등 유생 70여 명이 집단 상경하여 삼도 유생들과 함께 4월부터 윤7월까지 여러 달 동안 복합 상소 운동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홍재학은 병조판서 閔台鎬에게 강화에 앞장 선 노론 당국자와 그를 강하게 비판하자 「辛巳秋關東聯名儒疏」는 받아들여지고 홍재학은 의금부에 투옥되어 윤7월 20일 서소문 밖에서 참형을 당하게 되었다.

가평에 있던 중암은 대원군을 지지하며 민씨 척족의 개화정책에 반대했다가 탄압을 받았다. 그가 탄압을 받아 전라도 智島로 유배를 떠나 1884년 12월 귀양에서 풀려날 때까지 홍재구를 비롯한 중암계열 문인들은 구심점을 잃었고 경제적 궁핍됨에 시달렸

15) 洪在龜의 「正俗新編」 자료를 살피던 중 홍재구의 저서로 추정되는 筆寫本 『啓蒙要訣』(1冊 : 無扉, 10行21字 ; 28.2×19.5 cm.)을 고려대학교 도서관 고서실에서 확인된다. 앞표지의 제목이 「章山課業」로 기재되어 있고 表題는 「啓蒙要訣」이지만 본문은 「啓蒙要訣」로 기재되어 있다. 서문에 “崇禎五乙酉(1885)立秋前一日癸巳唐城洪在龜書于江陵之蓬坪山中”이라 기록된 것으로 보아 홍재구가 1885년 한때 강원도 봉평에 隱居하며 저술한 著書로 짐작된다. 「正俗新編」과 「啓蒙要訣」을 통해 홍재구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으며 홍재구도 영서 남부지역을 전전하며 1883년 강원도 횡성 근처의 蓬平으로 이주하였다. 16) 이후 홍재구는 이곳에서 문인을 양성하며 일생을 보냈다.

1886년 화서의 心說을 둘러싸고 화서학과 내에 중암과 省齋를 정점으로 논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논쟁은 1891년 중암 사후 더욱 격렬하였는데, 홍재구는 柳基一(1845~1904) 등과 함께 중암의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의암 등 성재 계열의 인물들과는 극단적인 대립관계를 노정하게 되었다.

『正俗新編』의 저자로 홍재구를 지목하는 데에는 1888년부터 풍수원 본당에 부임하여 사목 활동을 하던 르 메르 신부가 이 책을 1892년 수집한 후 교구장 뮈텔 주교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17) 1892년 7월 21일자 서한의 마지막 부분에서 르 메르 신부는 ‘Hoing syeng 홍재구, 洪在○, 洪在鶴 이라 기재했고 이 서한을 받은 뮈텔 주교는 1892년 7월 25일자 일기에서 이 책의 저자가 홍재구임을 밝혔다. 18) 르 메르 신부는 뮈텔 주교에게 이 책의 내용 중에 자신을 비롯한 선교사를 비방하고 ‘서양인들이 아이들을 훔치고 시체를 파내어 약제를 만든다.’는 유언비어에 대해 비난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한을 보낸 것이었다. 이에 뮈텔 주교는 이 문제를 주한 프랑스 공사 겸 총영사였던 프랑탱(H. Frandrin)에게 『正俗新編』을 보냈다. 그 후 『正俗新編』은 프랑스 공사였던 콜랭 드 플랑시(Colin de Plancy)가 소유하고 있다가 파리의 東洋語學校(Ecole des Orientales Vivantes, 약자는 LOV, 현재는 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도서관에 기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

『正俗新編』의 저술 시기는 마이크로필름의 복사본으로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단, 이 책의 저술 시기가 본문의 내용 중 1884년 變服令에 대해 비판한 내용이나 르 메르 신부의 1892년 4월 22일자 서한에서 처음 『正俗新編』에 대한 언급이 보이고 7월 21일자 書翰에서 수집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1892년 이전에 저술 된 것은 확실해 보인다. 20)

-
- 16) 姜大德, 『華西 李恒老의 時代認識』, 新書苑, 2001, pp259~260. ; 여진천, 「19세기 화서학과 홍재구의 서양 인식과 천주교회 의 반응」, 『교회사연구』2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03, 36쪽.
- 17) 『正俗新編』이 수집된 배경과 홍재구를 저자로 확인한 것은 여진천 신부의 논문(「19세기 화서학과 홍재구의 서양 인식과 천주교회 의 반응」, 『교회사연구』2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03.)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본고도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기술하였다.
- 18) “형성 사람 홍재구(Hong Tjai-Kou)가 쓴 『正俗新編』이란 조그만 책자를 프랑탱 씨에게 보낸다.(천주교 명동 교회 편, 한국교회사연구소 역주, 『뮈텔 주교 일기』1, 한국교회사연구소, 1986, 73~74쪽.)
- 19) 여진천, 「『正俗新編』해제」, 『교회사연구』18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204쪽.
- 20) 저술시기에 대해 여진천 신부는 앞의 논문들에서 1876년과 1881년 두 번의 상소 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방법을 달리하여 대 중 교육용으로 『正俗新編』을 저술한 것으로 보고 그가 봉평으로 이주한 이듬해인 1884년 變服令을 들은 후부터 1892년 4월 까지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正俗新編』의 전체를 번역하지 못하고 당시 시대 정황으로만 추정할 것이라 계고의 여지가 있다.

「正俗新編」은 1892년 초에 책으로 완성된 후 필사되어 널리 읽혀진 듯하다. 1892년 7월 21일 르 메르 신부는 뤼텔 주교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주교님께서 받아 보실 책자는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부수는 무수히 많습니다. …생략…저의 구역에서 평온이 깨지지 않았지만 이 집 저 집으로 돌아다니는 비방문으로 적어도 위협은 받았습시다.” 21) 라는 주장으로 보아 이 책이 상당한 부수로 이미 널리 유포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2)

따라서 이 「正俗新編」은

III. 「正俗新編」의 구성과 내용

이 책은 모두 7장으로 머릿장에 해당하는 總論과 第二 明倫, 第三 治身, 第四 正家, 第五 居鄉, 第六 處世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3)

앞 표제는 「正俗新編」소이라 되어 있고 다음 장에는 바로 總論으로 이어진다. 범례나 저자에 대한 소개는 없고 마지막 장에도 별다른 기록 없이 본론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겉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12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갈한 필사로 기록되어 있다. 각 장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總論

「正俗新編」의 總論에서는 五倫과 仁義禮智, 本然之性을 바탕으로 華夷觀을 설명하고 있다. 또 財物之道를 義理와 廉恥에 대비해 설명하며 自靖遂志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총론의 첫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만물의 무리에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니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말을 한다면 짐승 중에 원숭이가 있고 새 중에 앵무새가 있으니 어찌 다르겠는가? 그 지교(智巧)가 있어서라면 벌이 단 꿈을 만드는 것은 의적(24) 이 미칠 바 아니고 교인(鮫人) 25) 이 비단을 짜는 것은 공수자(公輸子) 26) 의 할바가 아니니 또어찌 다르겠는가? 맹자(孟

21) 르 메르 신부가 뤼텔 주교에게 보낸 1892년 4월 22일자 서한, 천주교 명동 교회, 「서울교구년보」,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116쪽.(여진천, 「19세기 화서학과 흥재구의 서양 인식과 천주교회의 반응」, 『교회사연구』 21집, 2003, 38~39쪽.)

22) 현재 프랑스에 있는 「正俗新編」을 확인해 본 결과 많은 오탈자가 발견되었다. 르 메르 신부의 서한에서 확인하듯 이 책이 필사로 유포된 사실로 보아 原稿本이라기 보다 필사본의 하나로 추정된다.

23) 필자가 확인한 「正俗新編」은 원본을 보지 못한 상태이므로 여진천 신부가 이종혁 신부로부터 2002년에 입수한 마이크로 필름의 복사본을 『교회사연구』18집(2002)에 수록한 복사본을 바탕으로 하였다. 복사본은 상당히 훼손된 부분과 멸실된 부분이 있지만 교감을 통해 바로 잡았고 아울러 「正俗新編」의 전편 번역도 교감을 바탕으로 하였다.

서 말씀하시기를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고 임금과 신하 간에는 의리가 있고 남편과 아내 간에는分別이 있고 어른과 어린이간에는 차례가 있고 친구 간에는 신의가 있다.' 하셨다.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것은 진실로 이 윤리가 있기 때문이니 만약 윤리가 어둡다면 어찌 금수와 다르겠는가? 그러므로 성인은 사람을 가르칠 때 단지 오륜의 도리로 하였던 것이다. 27)

홍재구는 총론에서 천지 만물 사이에 인간이 가장 뛰어난 존재지만 인간과 금수의 변별점은 뛰어나 지혜와 기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五倫이 있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 부모가 되어 반드시 사랑하고 자식이 되어서는 효도하며 임금이 되어서는 의롭고 신하가 되어서는 반드시 충성하며 부부가 되어서는 반드시 分別이 있으며 어른이 되어서는 반드시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가 되어서는 반드시 어른을 공경하며 친구가 되어서는 반드시 신의가 있어야 한다. 날마다 알지 못하던 것을 알고, 날마다 삼가지 못하던 것을 삼가게 되어 낮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올라가며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간다면 三代(夏·殷·周)의 淳古한 풍속을 회복할 수 있다 여겼던 것이다. 28)

인간의 본연의 성품은 선하고 仁義禮智를 바탕으로 五倫을 형성한바, 인의예지와 오륜은 하늘에게 얻고 부모를 통해 받았지만 만약 온전히 타고난 그것을 손상시킨다면 天地의 죄인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賊子됨을 특별히 경계하였다. 29) 뿐만 아니라 홍재구는 당시 빠르게 접근해오는 외부의 학문과 사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아, 저 양적(洋賊)과 왜적(倭賊)과 청인(淸人)은 모두 소(小)로 대(大)를 해롭게 하고 천(賤)으로 귀(貴)를 해롭게 하니 금수(禽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아, 저 양학(洋學)과 청술(淸術)에 점점 빠진 자들은 모두 소(小)로 대(大)를 해롭게 하고 천(賤)으로 귀(貴)를 해롭게 하니 역시 금수에 면치 못할 것이다. 아, 저 구체(口體)의 받드는 데에 골몰하여 오륜의 도리를 모르는 자는 역시 모두 소(小)로 대(大)를 해롭게 하고 천(賤)으로 귀(貴)를 해롭게 하니 어찌 금수를 면할 수 있겠는가.

27) 『正俗新編』, 總論, “天地之間 萬物之衆 唯人取貴 所以最貴者 何故 以其能言乎 則獸有猩猩 禽有鸚鵡 何以自別乎 以其智巧乎 則蜜子之造甘 非儀狄之所及 鮫人織錦 非公輸之所至也 又何以自別乎 孟子曰人之有道德 飽食暖衣 逸居而無教 則近於禽獸 聖人有愛之 教以人倫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人之所以異於禽獸者 實在於此 如或昧此 與禽獸何別 所以聖人教人 只在乎五倫五常”

28) 『正俗新編』, 總論, “凡我鄉黨之人 明目張膽 爲父必慈 爲子必孝 爲臣必忠 爲夫婦必別 爲長必慈 幼 爲幼必敬長 爲朋友必有信 曰知其所未知 曰謹其所未謹 自卑升高 自近及遠 則豈非三代淳古之俗乎 凡我鄉黨之人 敬哉慎哉”

29) 『正俗新編』, 總論, “人性本善 其目 仁義禮智信 仁也者 所以愛物也 凡愛君親 愛兄弟 以至愛鄉黨 愛國天下之萬姓 皆仁也 義也者 所以直物也 凡應事接物之際 事事合宜 非義不行 皆義也 禮也者 所以敬讓也 事事敬慎而不敢放也 事事推讓 自卑而尊人 先彼而後己也 智也者 所以分別也 事事分別是非 去非而從是也 信也者 所以誠實也 爲善 必誠必實 如好好色也 去惡 必誠必實 如惡惡臭也 本然之性得於上帝 稟於父母 上帝父母 全而生之 賦得而生者 戕伐而滅絕之 則天地之罪人 父母之賊子 嗚呼 可不戒哉”

손지 홍재구는 서양의 오랑캐(洋賊)와 일본인(倭賊), 청나라 사람(淸人), 서양의 학문(洋學)과 청나라 기술(淸術)에 빠진 사람들을 모두 소(小)와 천(賤)으로 규정 하고 大人之學과 오류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일찍이 화서 이항로는 西學의 財物에 대해, 서구열강이 동방에 전교하는 동기를 동정자를 내부에서 구하고 그들과 안팎으로 응혜 허실을 정탐한 후 침략을 자행하여 끝없는 탐욕을 채우려는 데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³⁰⁾ 그러므로 서양과 일본 등 제국주의의 財貨와 物慾은 바로 人道를 무너뜨리고 亡國의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손지 홍재구도 總論에서 財物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인용문에 이런 주장이 수록되어 있다.

재물을 생산하는 도는 근본을 힘쓰고 쓰기를 존절히 하는 것에 불과하니 그 재물로 부모도 봉양하고 처자도 기르며 죄우로 수응(酬應)하며 그것으로 7척의 몸도 보존하니 생재(生財)하는 도를 어찌 소홀히 하리오. 근본을 힘쓰면 냇물의 근원을 피는 것과 같고 쓰기를 존절히 하면 냇물의 흐름을 막는 것과 같으니 그근본을 힘쓰지 않고 그 쓰기를 존절히 하지 않으면 그 목숨을 기르는 근원을 마르게 하고 그 부모를 보양하고 처자를 기르는 자료를 잃게 될 것이다. 이에 의리(義理)를 범하고 분수를 범하며 엄치(廉恥)를 망각하여 신명(神明)에 죄를 얻고 멀고 가까운 데에 원망을 듣게 되니 어찌 가히 소홀히 하리오? 31)

손지 홍재구는 당시 세상에 횡횡하던 洋學과 淸術은 財物을 생산하는 방법(生財之道)에 불과 하다 주장하며 財貨와 利慾一邊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홍재구는 화서가 西學을 ‘通貨通色, 無父無君의 道’³²⁾라 지적하며 재화의 유통으로 물욕을 충족시키고 色의 유통을 성욕을 충족시키는 전형적인 形氣情慾의 道라 규정한 것과 상통한다 볼 수 있다.³³⁾

그러나 홍재구는 生財의 원리 그 자체는 소홀히 할 수 없다 여겼다. 이와 같이 홍재구가 生財之道에 주목한 이유는 부모 봉양과 가계의 생활 등 오류의 시작이 生財에 기초

30) 李恒老, 『華西集』, 권3, 疏劄, 「辭同義禁疏」上.

31) 『正俗新編』, 總論, “生財之道 不過曰務本而節用而已 要以仰事俯育矣 要以左酬右應矣 要以保全七尺矣 生財之道 若之何可忽哉 務本 則如滄川之源矣 節用 則如防川之流矣 不務其本 不節其用 渴其眷命之源 失其事育之資 於是乎犯義犯分 忘廉忘恥 得罪神明 樹怨遐邇 若何而可忽哉”

32) 李恒老, 『華西集』, 권15, 雜著, 「溪上隨錄二」上.

33) 姜大德, 『華西 李恒老의 時代認識』, 新書苑, 2001, 131쪽.

하고 있기 때문에 곧 生財의 원리는 옳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生財의 방법만 강구하고 의리와 분수를 범해 物慾에만 얽매었다면 바로 하늘의 죄를 얻을 것이니 廉恥를 망각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세태는 孝悌忠信을 근본 바탕으로 하지 않고 한 푼의 돈을 구하는데 몰두하여 賭博과 攘奪이 유행하며 서서히 외세의 物質主義의 경향이 유행하며 우리의 질서와 도리가 사라져가고 있었다. 34) 이에 홍재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아 세상이 어지럽기 때문에 큰 도둑(大鼠)과 작은 도둑(小鼠)이 나라 안에 가득하고 귀신과 금수가 우주에 가득하니 어떻게 성명(性命)과 몸을 보존할 것이며 어떻게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식을 기르겠는가? 아! 위태롭다. 만일 크게 용기를 내어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하여 이웃마음과 고을이 서로 함께 닦고 힘쓰지 않으면 큰 낭패가 될 것이니, 아, 경계할 것이다. 35)

손지 홍재구는 안팎으로 큰 도전에 직면한 조선사회에 안으로는 쥐와 같은 나라를 좀먹는 큰 도둑과 작은 도둑이 있고 밖으로는 귀신의 형상의 洋賊과 금수와 같은 倭人과 淸人들이 가득하여 나라의 존재와 백성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존재라 언급하고 있다. 이런 안팎의 시대 인식에 대해 홍재구의 대응 방법은 근검(克勤克儉)과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서로 內修를 독려(交修共勉)를 주장하고 있다.

곧 홍재구의 주장은 화서의 그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볼 수 있다. 화서가 외세를 배격하는 대외 인식은 실제 본질적 의미가 外攘보다는 민심의 안정을 기하는 內修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나라 기강의 문란과 집권관료의 부정부패로 인한 민심의 이반과 국가원기의 쇠퇴가 外攘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장 시급한 시무책은 內修로 보았고 이후 外攘으로 확대 나갈 수 있다 보았던 것이다. 36) 이에 홍재구의 주장은 화서의 外攘에 앞선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민심의 안정을 지향하기 위한 內修를 강조하고 있다 볼 수 있다.

손지 홍재구는 內修의 구체적인 예와 방법에 대해 總論 이후 전반에 걸쳐 언급되어

34) 『正俗新編』, 總論, “未形體道理 不可相無而此將而彼卒 此人而彼馬 養辛 要以衛將也 養馬 要以載人也 若養其卒而蹶其將 養其馬而殺其人 可乎否乎 不知孝弟忠信爲何事 營營於分錢粒米 固是以賤害貴 以小害大矣 若遊衣遊食之輩 賭博財物之流 盜竊攘奪之類 是又禽獸之不若矣 舉世沼沼莫知爲非 嗚呼 可勝歎哉”

35) 『正俗新編』, 總論, “嗚呼 世之亂矣 大鼠小鼠 徧滿於邦域矣 鬼魅禽獸 徧滿於宇內矣 若何而全性命而保疆域 若何而仰事而俯育乎 嗚呼殆哉 若不明自張膽 克勤克儉 隣里鄉黨 交修共勉 鮮不爲大狼狽 嗚呼戒之哉”

36) 姜大德, 『華西 李恒老의 時代認識』, 新書苑, 2001, 148쪽.

있다. 第二 明倫, 第三 治身, 第四 正家, 第五 居鄉은 유가의 기본 사상을 바탕으로 내수의 방법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2. 明倫, 治身, 正家, 居鄉

앞의 總論에서 內修를 강조한 손지 흥재구는 內修의 방법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第二의 明倫은 五倫의 덕목을 구체한 부분이다. ‘父子之親’, ‘君臣之義’, ‘夫婦之別’, ‘長幼之序’, ‘師生朋友之道’ 등 다섯 단락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 가운데 당시 시대상황을 나타낸 부분인 ‘父子之親’, ‘君臣之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손지 흥재구가 부모와 자식의 도리에 대해 공자와 맹자, 증자의 故事, 『詩經』의 언급을 통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가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설명한 것은 당시 시대상에 기인하고 있다. 다음 인용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깊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벼슬이 없다 하여 자기 조상을 버리고 벼슬이 있는 다른 사람의 가족에 들어가고 한미한 자기 성(姓)을 버리고 현양(顯揚)한 타인의 일가로 들어간다. 혹 자신의 아버지를 남의 후손으로 만들기도 하고 고조와 증조를 남의 후손으로 만들어서 이익을 탐하고 친족을 망각함이 이런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이것이 왜양(倭洋)의 행실이 아니며 이것이 금수의 행실이 아닌가? 무릇 우리 고을 사람들은 잘 생각하고 공경해야 한다. 37)

손지 흥재구는 부모가 자식을 낳아 사람이 자식을 낳아서 보살피 기른 은혜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이지만 자신의 영달을 위해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하며 자신의 할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할아버지라고 하며 조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고조와 증조라고 하며 다른 사람을 始祖와 先祖라고 하는 당시의 세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부자의 天理를 어겨가며 자신의 성씨를 버리며 아버지조차 버려가며 오직 자신의 영달을 위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를 서술하고 있다.

또 흥재구는 당시 자식의 소중함은 알지만 부모의 소중함은 알지 못한 사람들은 자녀

37) 『正俗新編』, 第二 明倫, “人之無狀者 棄自己無官之祖 係他人有官之族 棄自己寒微之姓 投他人顯揚之宗 或以其父祖而爲人之後 或以其高曾而爲人之後 貪利忘親 一至於此哉 是非倭洋之行哉 是非禽獸之爲哉 凡我鄉黨之人 念哉敬哉”

에게는 무심하지 않지만 부모는 망각하니 이것이 금수와 무엇이 다른지 고민하고 있다. 38) 손지 흥재구가 두 번째로 주목한 부분은 ‘君臣之義’로 1884년 좁은 소매를 입게 하는 變服令에 대해 매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갑신년에 조정에서 호북(胡服)의 명령을 경내에 반포하자 대신이 간쟁하고 초아에 자호자(自好者)도 모두 호북을 입지 않는 것으로 의(義)를 삼았다. 임금의 명령을 거역한 것 같지만 이것은 매우 그렇지 않다. 지금의 임금은 진실로 임금이고, 27대왕(大王)은 지금 임금의 임금이고, 대명황제(大明皇帝)는 지금 임금의 임금이고, 황천상제(皇天上帝)는 지금 임금과 여러성상(聖上)의 임금이다. 지금 임금에 죄를 얻는 것은 오히려 말할 수 있겠지만 상제(上帝)에 죄를 얻고 여러 성인에 죄를 얻고 선왕(先王)에 죄를 얻는 것은 세상에 용납할 수 없다. 그 행배의 분별이 이와 같고 또 이렇게 하여 그치지 않으면 지금 임금의 마음이 혹 깨달을 도라가 있을 것이니 임금 섬기는 의(義)가 그렇게 안겠는가? 지금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선성(先聖) 만세(萬世)의 예의를 사수하는 것은 충성의 큰 것이다. 지금 임금에 만일 혹 이것으로 인해 깨달아서 선(善)으로 향한다면 어찌 충성하고 또 충성함이 아니겠는가? 39)

1884년 變服令이 공포되자 그 저항은 조정 내부에서도 만만치 않았다. 흥재구는 조정의 변복령을 거부한 것은 임금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항변하면서 근거로 皇天上帝는 지금 조정에 있는 임금보다 가장 섬겨야 하는 하늘의 임금인 것이다. 皇天上帝의 뜻, 곧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임금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 보다 더욱 큰 죄로 인식하며 지금 임금의 변복령은 皇天上帝의 뜻을 거역하는 것으로 흥재구 자신의 거역은 지금 임금의 명령에 거부에 불과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거역은 皇天上帝의 뜻을 거역하여得罪하는 지금 임금의 명령을 바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임금의 명령인 洋服發令의 명령은 洋人의 의복으로 洋인들이 비록 仁義禮智의 덕과 孝悌忠信의 행실이 있다 하더라도 洋人일 뿐인 것이다. 40) 흥재구는 지금 임금의 옳지 못한 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萬世의 禮義인 皇天上帝를 따르는 것이 진정

38) 『正俗新編』, 第二 明倫, “禽獸 知子而不知父 人之慈親而不相思 棄親而不相念者 於其子女 必不若是之忍矣 豈非所謂知子而不知父哉 果可曰賢於禽獸哉”

39) 『正俗新編』, 第二 明倫, “向者甲申之歲 朝廷 以胡服之令 須之境內 大臣爭之 儒賢爭之 草茅之自好者 皆以不服爲義 似乎逆 君之令矣 雖然 此有大不然者 今君固君也 二十七大王 今君之君也 大明皇帝 今君之君也 皇天上帝 今君與諸聖之君也 得罪今君 猶可說也 得罪上帝 得罪羣聖 得罪 先王 天地之所不容也 所以向背之別 若是矣 況若是不已 今君之心 或有開悟之道矣 豈非事君之義 不得不然者耶 從君之令而陷 君於不義 不忠之大者也 不從今 君一時之命令 死守先聖萬世之禮義者 忠之大者也 今君 如或因此開悟而向善 則豈非忠而又忠也哉”

40) 『正俗新編』, 第二 明倫, “近日又有洋服發令之說 夫洋人 是禽獸也 服洋之服 則其中雖有仁義禮智之德 孝弟忠信之行 洋人而已矣 禽獸而已矣”

한 君臣의 예로 보았던 것으로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衛正을 위한 급진적 생각이라 볼 수 있다.

第三 治身은 다섯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첫째 마음의 중요성을 밝힌 부분(心術之要), 둘째 福善과 禍淫의 떳떳한 이치를 밝힌 부분(福善禍淫之常), 셋째 禮法에 맞는 몸가짐과 행동의 올바름을 밝힌 부분(威儀言論行事之宜), 넷째 의복의 제도를 밝힌 부분(衣服之制), 음식의 예절을 밝힌 부분(飲食之節)로 구분할 수 있다.

손지 흥재구는 마음은 하나인데 人心과 道心이 있어 性命에서 근원이 된 것을 道心이라고 하고 形氣에서 생긴 것을 人心이라 보았다. 道心도 마음이지만 마치 장수와 같이 높고 人心은 병사(卒徒)와 같이 낮다 보았다. 道心이 爲主가 되고 병사가 그 부림을 받는다면 君子라 할 수 있지만 낮은 병사가 주인이 되고 장수가 심부름꾼이 되면 小人이라 주장하였다. 41)

福善과 禍淫에 대해서는 자신의 道通을 드러내고 있는데, 靜庵 趙光祖을 필두로 栗谷 李珣, 淸陰 金尙憲, 尤庵 宋時烈 등을 福善의 올바른 예로 보고 있다. 42)

손지 흥재구는 의복의 제도를 밝힌 부분(衣服之制)에서 옷(服)과 갓(冠), 신(履)의 올바른 사용법을 설명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冠禮도 하지 않고 결혼하여 평생 머리를 땅는 등 衣服제도의 혼란이 지속되자 이것은 바로 오랑캐의 풍습으로 단정하고 위정자들의 단속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43)

음식의 예절을 밝힌 부분(飲食之節)에서는 술의 해악성을 서술하고 있다. 흥재구는 술은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하는 狂藥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재앙의 모태로 보았다. 또 술은 곡식을 소모시켜 性命의 근원을 끊게 하고 성품을 해롭게 하며 綱常의 도를 무너뜨리고 생각을 황폐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반드시 멀리 해야 하고 적게 마시거나 많이 마시든 그 경중에 따라 반듯이 해악이 있다 여겼다. 44)

第四 正家は 열하나의 항목으로 ① 윤리를 바르게 하고 恩義를 돈독히 하며 함께 행

41) 『正俗新編』, 第三 治身 “心一也 有道心焉 有人心焉 原於性命 名之爲道心 生於形氣 名之爲人心 道心 心也而尊如將帥 人心 心也而賤如卒徒 將爲主而卒爲使 謂之君子 卒爲主而將爲使 謂之小人”

42) 『正俗新編』, 第三 治身, “以我國而言 靜庵 性情剛毅果決 進退予奪之際 無模糊便己之私 雖然 靜翁之後 子孫繁庶 軒冕奕世 惡在其福祿之減少也 松江 性情剛果 嫉惡如讐 不容有一毫之模糊 丈艷之性 亦然 宜習神殊鬼攻 而子孫繁庶 軒冕奕世 惡在其福祿之減少也 栗翁 性情剛果決烈 嫉惡如讐 不容有一毫之模糊 觀成朋黨疏 論尹元衡疏 論妖僧普雨疏 可以揣測性情之萬一 雖然 栗翁身後 子孫繁庶 科甲連綿 惡在其福祿之減少也 (唐味道辨名爲相持兩端事不欲明白) 重峯也 尤翁也 淸陰也 稱美也 夢窩也 三學士(洪翼漢尹集吳遵裕)也 莫不皆然 則天心之攸在 可知矣”

43) 『正俗新編』, 第三 治身, “古者 冠婚 各一事 後世 不婚不冠 此可且從俗 或有不冠而娶 以辨髮而終身者 豈非胡人之類哉 爲人上者 宜加禁制衣也者”

44) 『正俗新編』, 第三 治身, “麴藥者 賊性之狂藥 凶國之禍胎 是以 大禹絕 旨酒而 誅儀狄 丹朱朋飲于家 以殄厥世 高紂酒池肉林以亾其國 此其吉凶存亾之徵 如日中天 有目者皆可視也 蓋酒之爲物 糜穀而絕性命之源 戕性而壞綱常之道 荒思而廢事爲之務 大則大狼狽 小則小狼狽 重則重狼狽 輕則輕狼狽”

하고 어그러지지 않는 도를 밝힌 부분(正倫理篤恩義并行不悖之道), ② 근면과 신중함을 밝힌 부분(勤謹之道), ③ 검소함을 숭상하고 사치를 변화시켜 잡된 비용을 절제하는 방법을 밝힌 부분(崇儉革奢 絕冗費之道), ④ 재물을 적절히 쓰는 방법을 밝힌 부분(用財之宜), ⑤ 제사하는 예를 밝힌 부분(祭祀之禮), ⑥ 治喪하는 예를 밝힌 부분(治喪之禮), ⑦ 冠禮와 婚禮의 예절을 밝힌 부분(冠婚之禮), ⑧ 손님을 접대하는 도리를 밝힌 부분(接賓之道), ⑨ 병을 조심하는 방법을 밝힌 부분(謹疾之道), ⑩ 左道의 금지를 밝힌 부분(左道之禁), ⑪ 기도의 적당함을 밝힌 부분(祈禱之宜), ⑫ 의리를 귀하게 여기고 이익을 천하게 여기는 도를 말하고 아울러 삶을 도모하는 방법을 밝힌 부분(貴義賤利之道 兼言謀生之方)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내용은 綱常倫理를 밝히고 冠婚喪祭의 예절을 서술한 부분으로 앞의 第二明倫, 第三 治身의 내용과 중복된 부분도 보인다. 이 가운데 左道의 금지를 밝힌 부분(左道之禁)을 살펴보면, 당시 조선 사회가 혼란할지 민중들의 삶에 여러 가지 종교와 미신의 횡횡하게 이르렀다. 이전의 조상에 대한 祭祀 이외에 불교와 무당의 성행에 대해 左道(옳지 못한 도)로 규정하고 나아가 서양의 종교, 천주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근래 양적(洋賊)의 일은 모두 좌도(左道)를 섬기는 여러 사람을 혹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과 신을 어지럽게 하여 천지에 유통하고 있으나 그것들이 종식될 것을 발돋움하여 기다릴 것이다. 이후에 나의 이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45)

손지 흥재구는 불교와 迷信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洋賊들의 신(천주교)에 다시 빠져 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종교가 잠시 세상에 횡횡하지만 결국 중국을 맞이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

第五 居鄉은 다섯 단락으로 구분되는데, ① 서민을 소중히 여기는 도를 밝힌 부분(重民庶之道), ② 선을 권하고 잘못의 규제를 밝힌 부분(勸善規過), ③ 명분을 바르게 하고 恩義를 돈독하게 하는 도를 밝힌 부분(正名分篤恩義之道), ④ 患難에 서로 구휼하는 도를 밝힌 부분(患難相恤之道), ⑤ 법령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며 분수를 지키며 스스로

45) 『正俗新編』, 第四 正家, “近日洋賊之事 皆是左道之惑衆 所謂亂人神而通天地者 雖然 其已也可懸足而待矣 然後 庶知斯言之非誣也”

도를 닦음을 말한 부분(畏敬法令 守分自修之道)이다.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두 번째 ‘勸善規過’와 세 번째 ‘正名分篤恩義之道’ 단락은 모두 앞의 第二 明倫, 第三 治身, 第四 正家의 내용과 大同小異하며 특별한 변별점은 없다.

첫 단락 民庶之道는 위정자들의 백성들의 삶에 대한 관심과 미을 공동체, 향약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藍田呂氏鄉約 등 宋代의 예를 들고 있고 宋代에 실행된 향약을 가장 이상적인 향약으로 인식하고 있다. 46) 첫 단락은 네 번째 단락인 患難相恤之道와 내용적인 면에서 유사하다. 네 번째 단락인 患難에서 구휼하는 도를 말한 부분에서 홍재구는 呂氏鄉約을 근거로서 구휼하는 조건으로 첫째 水災와 火災, 둘째 盜賊, 셋째 疾病, 넷째 死喪, 다섯째 속임을 당함(誣枉), 여섯째 의지할 곳이 없거나 노약할 때(孤弱), 일곱째는 빈핍(貧乏)을 제시하고 있다. 47)

이상에서 살펴본듯이, 第二 明倫에서 第五 居鄉의 서술은 모두 內修를 위한 성리학의 기본 덕목을 차례로서술하며 성리학을 守護하고 나아가 外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함을 알 수 있다.

3. 處世

『正俗新編』의 마지막 부분인 第六 處世는 네 부분으로 ① 出處와 榮辱의 큰 분수를 말한 부분(出處榮辱之大分), ② 원과 청나라를 물리칠 것을 말한 부분(元清之當攘), ③ 倭와 洋을 물리칠 것을 말한 부분(倭洋之當攘), ④ 절개와 숭상하는 도를 밝히는 것이 재앙을 면하는 방법임을 말한 부분(崇節明道是免禍之道)이다. 네 부분으로 구성된 第六 處世는 홍재구의 衛正斥邪의 정신과 이 책의 저술 동기가 드러나 있는데, 특히 세 번째 단락인 ‘倭洋之當攘’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저도적의 죄를 모두 말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대략을 들어 말하면 다음과 같다.

① 남녀 관계를 더럽히고 어지럽게 하는 것(남녀 관계를 삼가는 것이 사람 도리의 시초가 되

46) 『正俗新編』, 第五 居鄉, “藍田呂氏鄉約 曰九鄉之約 四 一曰德業相勸 二曰過失相規 三曰禮俗相交 四曰患難相恤 斯四者 呂氏行之于一鄉 朱子表章于小學之書 增損其節目而見於大全之書矣 斯四者 鄉人之職也 非其職而行之 則過也 非道也 職而不行之 則不及也 非道也 如其職而道也 何必同約然後 行之也哉 一鄉之人 有親疎遠近之分矣 疎且遠也 則可此畧之 親且近也 則以此相恤 不亦可乎 呂氏鄉約 過失相規 條曰約犯之過 一曰德業不相勸 二曰過失不相規 三曰禮俗不相成 四曰患難不相恤 一鄉之人 既親且近而德業不與之相勸 過失不與之相規 禮俗不與之相成 患難不與之相恤 豈非失鄉人之職 見罪於呂氏 見罪於朱子者歟”

47) 『正俗新編』, 第五 居鄉, “呂氏鄉約 患難相恤條 患難 一曰水火 二曰盜賊 三曰疾病 四曰死喪 五曰誣枉 六曰孤弱 七曰貧乏之隣里 有水火之災 當董率諸人而往救之 救之不得 當董率諸人 謀所以助之方 或爲之問官而控訴 使不失所隣里 有盜賊之災 當董率諸人而往救之 或問官而追捕 或董率諸人 謀所以助之方隣里有疾病之患 則或助其藥餌 或(有闕文) 或董督隣里 供治病之具隣里 有死喪之災 匍匐往吊 周旋治喪之具 或送其家僮 以助使喚之軍隣里 有孤弱之人 爲人侵凌 必董督諸人以救護之 可問官者 爲之問官 可糾察者 爲之糾察 可督責者 爲之督責 庶幾救援得一半分隣里 如有爲人構誣者 必董率諸人 以明其不然 可問官者 爲之問官 可糾察者爲之糾察 可輔翼者 爲之輔翼 庶幾發明得一半分隣里 有貧乏將死之人 爲之宣力 通告諸人 爲之借貸 爲之贈遺 謀所以救急免死之計”

는데 남녀관계를 더럽히고 어지럽히니 죄의 으뜸이 된다)

- ② 사람과 神을 섞어 마찰되게 하는 것(電線楊 같은 것이 모두 요상한 신과 같아 사람과 신을 섞어 마찰되게 하는 일이다)
- ③ 하늘과 땅을 꾸짖고 욕하는 것(저들은 耶蘇(예수)를 天主라 부르고 세상의 주인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천지는 빈 껍질로 존경할 필요가 없다 하여 천지에 절하는 것을 반집에 절함과 같다하니 이것은 천지를 욕하는 일이다)
- ④ 임금과 아버지를 버리는 것(저 도적의 말에 의하면 부모는 육신을 담았던 껍질이라 하고 또 아버지는 하룻밤의 양공(良工)이요 어머니는 열 달의 여관집이라 하고 부모가 죽을 때에 임종도 보지 않고 장사지내지 않고 제사 지내지 않으며 신주를 세우지 않고 그 임금에게는 몇 년 후에 서민으로 되고 뜻과 같지 않으면 형륙(刑戮)을 가하니 이것은 군부를 저버리는 일이다)
- ⑤ 음란하고 희롱하며 음란한 욕심을 유발시키는 것(서양의 물건이 대부분 음란하고 어그리진 물건으로 남녀가 서로 더럽히는 모양이며, 혹 남녀가 나체로 거처한다. 또 서양 차(洋茶)와 서양 약(洋藥)이 모두 음란한 욕심을 유발시키고 기르는 물건이다)
- ⑥ 神을 업신여기고 거만하며 요괴를 존송하고 받드는 것(선조의 神에 제사지내는 것을 마귀에 제사한다 하여 폐하고 예수(耶蘇)를 天主라 하여 제사하고 조석으로 높이 받들어 그치지 않는다)
- ⑦ 神의 技巧을 절취하고 조화를 변란함(전기학(電學), 화학(化學)과 전선시설, 옷감을 짜는 등 의류가 모두 神을 절취하고 조화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 ⑧ 우리의 衣食을 절취하고 재물과 여색을 탈취함(서양의 물건은 모두 無益, 有害한 물건이며 우리 의식의 근원을 없애 백성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또 지방의 물건을 쓰고 여색을 절취해서 간다)
- ⑨ 어린아이를 절취하여 약품을 제조함(神農本草에는 모든 짐승들과 물고기의 있지만 인육은 없으니 어찌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것이겠는가? 사람을 해롭게 하며 병을 다스릴 수 없으므로 논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 양적(洋賊)이 사람의 아이를 훔쳐 약품으로 이용하니 그 죄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 ⑩ 죽은 사람을 해부하여 약품을 제조함.
- ⑪ 금을 파서 절취하여 백성에게 농사를 폐하게 하는 것(선왕의 법에 금과 은을 채취하는 자는 유배까지 보내는데, 백성들이 근본을 버리고 끝을 쫓을까 염려하기 때문이었다. 또 금은 이 보배가 아니고 곡식이 보배가 되니 금이 있고 곡식이 없다면 하루라도 살 수 있겠는

가? 서양 사람들이 이것을 보배로 삼아서 곳곳마다 굴채하여恒心이 없는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달려가서 온 나라가 금은 채취하는 것으로 일을 삼고 농사를 하지 않아서 곡식이 끊어 지리니 어떻게 생활하겠는가?)

12 산을 뚫고 땅을 파서 지형을 번역하는 것(산천이 만들어진 것은化翁의 뜻으로 된 것이다.

그러나 개발하여 도시를 만드니 바람 기운의 교류와 인재의 출생하는 이치가 어그러지며 서양 사람들이 금은을 채취함으로 일삼아서 그 지맥을 끊고 형세를 번역하니 그들의 세상에 화를 끼침이 또한 심하지 않겠는가?)

13 무덤을 파고 집을 헐어서 금은을 채취하는 것(땅을 뚫고 금을 채취하고 무덤과 집을 넓게 파서 棺槨이 부서져 떨어지고 기둥과 들보가 기울어지고 무너지니 어찌 가슴이 아프지 않겠는가?)

대략 이 열세가지가 있으니 이것을 어찌 세상에 용납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흉적을 나라안에 용인하는 것이고 용인할 뿐이 아니라 서라고 하면 서고 앉으라고 하면 앉으니 어찌 사람으로 하여금 창자가 찢어지고 가슴이 막히지 않겠는가? 48)

손지 흥재구는 倭洋의 침략에 따른 피해에 대해 모두 13가지 조목으로 설명하며 마땅히 물리쳐하는 이유를 매우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각각의 조목마다 자세한 부연설명도 附記되었는데, 「正俗新編」의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인용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서양에 대한 인식, 일본 등 열강 등의 침략과 천주교의 확산을 체험한 흥재구는 衛正斥邪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내용을 분류하면, 첫째 천주교 확산에 대한 경계심과 비판, 둘째 서양 기술에 대한 비판, 셋째 열강들의 광산 채굴로 인해 피해 등이다.

48) 「正俗新編」, 第六 處世, “彼賊之罪 不可勝道也 於其中 畧舉其槩則瀆亂男女 一也〔謹男女 爲人道之始 瀆亂男女 爲罪之首〕 雜揉人神 二也〔如電線楊之屬 皆是體體怪鬼之事 所謂雜揉人神者〕 詬罵天地 三也〔彼輩 以耶穌 爲天主 啗天地之主 以天地 爲空殼 謂不足尊敬 以拜天地 謂如見空闕而拜 無非詬罵天地之辭〕 遺棄君父 四也〔彼賊之言曰父母 肉身軀 又曰父是一夜之良工 母是十月之逆旅 其法 親死之時 其子不臨終 不葬 不際 不立主 其君則限幾年 免爲庶人 不如意 則加以刑戮 皆是遺棄君父之事〕 淫嫖戲慢 長淫導欲 五也〔洋物 皆是淫李之物 皆是男女相親之形 男女 或裸體而處 且其所謂洋茶洋藥 皆是長淫導欲之物〕 侮慢神祇 崇奉妖怪 六也〔以祭神 謂饗魔而廢之 以耶穌 謂天主而祭之 朝夕崇奉而不已〕 盜竊神機 變亂造化 七也〔如電學 化學 電線 設機 織布織帛之類 皆是盜竊亂化之事〕 盜竊衣食 攘奪貨色 八也〔洋物 皆是無益有害之妖物而竭我衣食之源 使民不聊生 又用方術 盜女色以去〕 盜竊嬰孩 製造藥餌 九也〔神農本草 禽獸蟲魚之肉 皆有之而人肉無之 豈不知而然哉 不可賊人而治病 所以存而勿論 今洋賊 盜人嬰孩 以備藥餌 罪不容貸矣〕 屠解死人 製造藥餌 十也 掘銀鍊金 使民廢農 十有一也〔先王之法 掘銀採金者 罪至竄配 是虐民之舍本逐末而然也 且金銀非寶 菽粟是寶 有金銀而無菽粟 寧可以圖生乎 洋人 以是爲寶 處處掘採而無恒之民 忿農作而奔趨之 舉目 以掘銀採金爲事而菽粟絕矣 可得以生活乎〕 鑿山穴地 變易地形 十有二也〔山川之融結皆是化翁之用意處 使之爲郡 使之爲邑 風氣之所交 人枕鍾以生焉 洋人以掘銀採金爲事絕其地脈 變易形勢則其貽禍人世 不亦甚乎〕 掘塚毀家 採取金銀 十有三也〔穴地取金 廣掘塚宅之底 使棺槨墜陷 棟樑傾頽 寧不使人胸痛〕 畧畧數之 有此十有三者 是豈可容於天地之間哉 如此凶賊 容忍於邦域之內 不惟容忍而已 立云則立 坐云則坐 豈不使人腸裂而胸塞哉”

첫째 천주교 확산에 대한 경계심과 비판은 ① 남녀 관계를 어지럽히는 것과 ③ 예수를 천주라 부르고 세상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 ④ 임금과 아버지를 버리는 것, ⑥ 神을 업신여기고 거만하며 요괴를 존중하고 받드는 것에서 서술되어 있다.

둘째 서양 기술에 대한 비판은 ② 전신탑에서 도깨비와 사람이 섞인 요상한 일을 일어나 사람과 神을 섞어 마찰되게 하는 것, ⑤ 서양의 차나 서양의 양은 모두 음란하고 희롱하며 음란한 욕심을 유발시키는 것, ⑦ 전기학이나 화학, 전기시설, 옷감 짜는 방직 기계 등은 神의 기교를 절취하고 조화를 변란시키는 것, ⑧ 서양의 물건들은 모두 無益有害하고 우리의衣食을 절취하고 재물과 여색을 탈취한다는 것, ⑨ 洋賊들이 만든 洋藥은 어린아이들을 절취하여 제조한 것, ⑩ 죽은 사람을 해부하고 약품을 만든다는 것 등이다.

셋째 당시 조선을 침략한 열강들이 개항이라는 명목 아래 경쟁적인 광산 채굴로 조선의 자연이 파괴해지고 유랑하는 백성들이 증가하고 심지어 조상의 무덤을 파고 지형까지 변형시키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홍재구는 결국 倭洋의 침략과 서양기술인 기차, 배, 자동차는 우리의 재산을 도적질에 필요한 기술이라 비판하고 있다.

애 서양의 재주를 장차 어디에 사용하겠는가? 저 쓸데없는 물건으로 우리의 화폐(貨幣)를 도둑질할 뿐이며, 저 마음을 좀 먹게 하는 물건으로 우리 목숨을 기르는 근원을 도둑질할 뿐이다. 기차와 배, 자동차가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저것들은 도둑질에 아주 좋은 것이다. 금을 단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저들의 양탈(攘奪)하는 일에는 이익이 될 것이다. 나머지 전선과 자기항(自起?)의 모든 백 가지 기교가 다만 마음을 좀먹게 하고 덕을 상하게 하는 도구와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여러 사람을 움직이는 자료가 될 뿐이다. 또 근래 궁궐 안에 전등을 켜는 일이 있었는데, 모든 전등이 일시에 다 켜지고 전등이 일시에 다 꺼지니 기술과 재주가 기하고 교묘하지만 우리의 이용(利用)과 후생(厚生)의 일에 하나도 이익될 것이 없고 다만 날마다 여러 만전(萬錢)을 소비할 뿐이니 그 여러 만전(萬錢)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가? 땅에서 솟은 것인가? 땅을 파서 나온 것인가?

서양의 재주는 이렇게 만 가지가 해롭고 한 가지도 이로움이 없는 것이다. 49)

손지 흥재구는 서양의 기술은 결국 백성들의 利用厚生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자원과 재화를 약탈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자신들의 이익 증대에만 효과가 있을 것이고 조선의 기술과 재주는 마음을 쪼먹이고 덕을 잃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며 백성들을 고달프게 하고 여러 사람들을 충동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여겼다. 그러므로 서양의 기술은 이익이 전혀 없는 독초나 짐독으로 여겼고 나아가 서양의 교육도 윤리를 멀하고 강상을 패하며 하늘을 거스르고 도를 어기는 것이 천지 사이에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50)

이상과 같이 흥재구는 천주교와 서양의 기술이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 대해 自己修養을 處世의 덕목으로 삼았다. 곧 세상이 다스러지면 나가고 세상이 어려우면 물러나 賢人과 함께 세상에 대처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흥재구는 당시 세상을 倭洋의 침략으로 어려운 세상이라 여기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倭와 洋이 세상에 횡행하고 방자하는 때에 부귀 한다면 왜양과 동류임을 의심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욕됨이요 영화로움이 아닌 것이다. 선량한 사람이 달아나고 도망할 때에 가난하고 미천하다면 그 선량한 무리와 같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영화스럽지만 욕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부귀만 알고 그 마땅하고 마땅하지 않음을 살피지 않고 다만 빈천만 부끄러운 줄을 알고 영욕이 있음을 알지 못하니 어찌 가능하겠는가? 51)

손지 흥재구는 출처의 기준을 倭洋의 유행이라 인식하고 지금 세상이 倭洋이 가득한 세상이므로 앞서 살펴본 明倫, 治身, 正家, 居鄉을 통해 內修에 힘쓸 것을 주장하였다. 또 그들과 같이 부귀한다면 곧 倭洋과 같은 무리로 오히려 선량한 사람들처럼 은둔하여 빈천한 사람이 진정 빈천이 아닌 영화라 여기고 있다.

49) 『正俗新編』, 第六 處世, “嗚呼 彼西洋之技 將何所用也 以彼無用之物 盜我有用之貨而已矣 以彼蠱心之物 盜我養命之源而已矣 火輪舟車 於我乎何益哉 於梁盜竊之事則便好矣 金銀煨鍊 於我乎何益哉 於梁撲奪之事則利益矣 其餘所謂電線也 自起礦也 九百技巧 只是蠱心喪德之具 勞民動衆之資而已 近者又有關內燃燭之事 萬燭 一時盡舉 萬燭一時盡滅 技則巧矣 才則奇矣 於我利用厚生之事 則一無所益 只得日費累萬錢而已 累萬錢 天之所降耶 地之所湧耶 汲水而繼之耶 掘土而供之耶 西洋之技 則若是其萬害而無一利矣 西洋之教 則又滅倫敗常 逆天悖道之爲 無所容於天地之間矣”

50) 『正俗新編』, 第六 處世, “凡我同志之人 視彼教 如鴆毒 視彼技 猶鉤吻 無一點之染汙 庶幾異日歸報於天地父母之神明矣”

51) 『正俗新編』, 第六 處世, “倭洋橫恣之際而富且貴焉 不其疑於倭洋之朋乎 所以曰辱也 非榮也 善良奔竄之際而貧且賤焉 不其同於善良之儔乎 所以曰榮也 非辱也 世人不達 只知富貴之可欲而不察其有當否焉 只知貧賤之 可恥而不察其有榮辱焉 烏乎其可哉”

손지 흥재구의 對西洋認識과 니아가 處世觀은 화서 이항로의 洋物禁斷論과 증암계열의 內修外攘論이라는 궤를 같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V. 橫城 豊水院 聖堂

1. 풍수원의 역사

1801년 신유박해(辛酉迫害; 辛酉教難) 이후 1802년 혹은 1803년경 경기도 용인에서 신태보(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 40여명의 신자들이 팔일동안 피난처를 찾아 헤메다가 정착한 곳이 바로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앙촌인 풍수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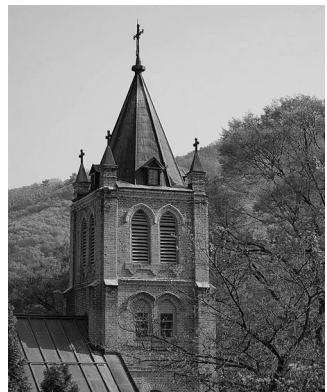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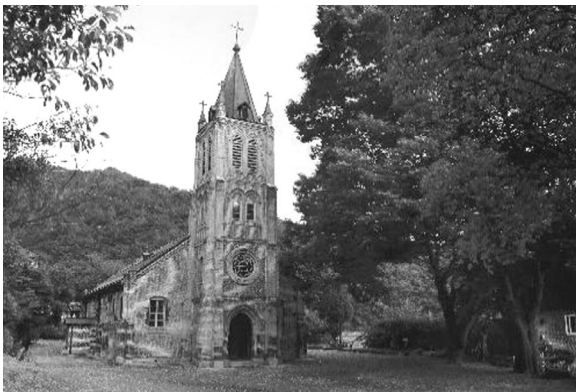
풍수원에서 80여년 동안 신자들은 성직자 없이 신앙생활을 영위해오다가 1888년 불란서 성직자 르메르(Le Merre, 李類斯) 신부님을 맞이하여 정식으로 교회가 설립케 되었다.

1866년(고종 3년) 병인대박해와 1871년(고종 8년) 辛未洋擾 때 신자들이 피난처를 찾아 헤메던 중 산간벽지로서 산림이

울창하여 관헌들의 눈을 피하기에 알맞은 곳이라 사방으로 연락하여 신자들을 모아 한 촌락을 이루어 일부 화전으로, 일부는 토기점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20년간을 지내다가 1888년 6월 20일 조선교구장 뮈텔(Mutel, 閔德孝) 대주교께서 본당을 설립하고 초대 주임신부로 불란서 르메르(Le Merre, 李類斯) 신부가 부임하여 춘천, 화천, 양구,



정규하신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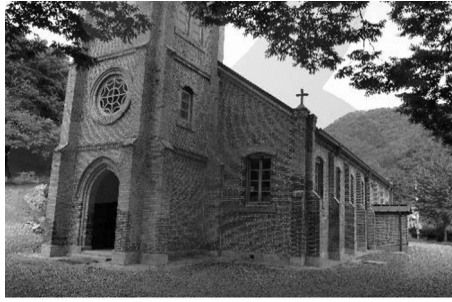
풍수원 성당

홍천, 원주, 양평 등 12개 군을 관할하였으며 당시 신자 수는 약 2,000여 명이었고 초가 집 20여 칸을 성당으로 사용하였다. 52)

1896년(고종 33) 2대 주임으로 정규하(鄭圭夏, 아우구스티노)신부가 부임하여 중국



풍수원 성당제대



풍수원성당

인 기술자 진베드로와 함께 현재의 성당(벽돌 연와조 120평)을 1905년에 착공, 1907년에 준공하여 1909년 낙성식을 가졌다. 신자들이 벽돌을 굽고 아름답드리나무를 해오는 등 자재를 현지에서 조달했다. 1912년에는 사제관을 신축하였다. 서울 약현성당(藥峴聖堂)과 비슷한 규모의 구조이며, 정면에 돌출한 종탑부가 있고 출입구는 아치형으로 개방되어 있다.

종탑부 꼭대기에는 낮은 8각형의 첨탑이 서 있고 가장자리마다 작은 첨탑이 있으며 종탑부와 동단(東端)에 쏙 나온 다각형 부분에는 원형의 장미창과 뾰족한 아치형의 창이 나 있다. 내부에는 나무로 된 기둥이 죽 늘어서 있는데 벽돌 기둥처럼 보이게 줄눈을 넣은 페인트칠로 마감해 놓았다. 제단은 삼각형으로 꺾여 있으며 각 면에는 뾰족한 아치형의 창이 3개 나 있고 채색 유리가 끼워져 있어 마치 스테인드글라스처럼 보인다.

풍수원 성당은 한국인 신부가 지은 한국 최초의 성당이며, 강원도 최초의 성당이고 한국에서 네 번째로 지어진 성당이다. 신앙의 요람터요 선조들의 열이 담겨져 있는 역사의 현장인 이곳에서 30여명에 달하는 한국인 사제들이 탄생되어 풍수원은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이라 하겠다.

초기 박해를 피하던 신자들은 눈을 피하기에 알맞은 이곳에 정착하여, 화전과 토기용 기점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성당을 짓기 위하여 산에 올라 나무를 자르고 가마에

52) 로마에서는 313년 밀라노 칙령 선포로 기독교인들이 카타콤베에서 나와 햇빛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 사건이 한국에서는 100여년 만에 일어난 것이다.

서 벽들을 굽는 등 탐과 정성을 불현하였다. 풍수원 성당은 한국에서 네 번째로 지어진 성당이자 한국인 신부가 처음 지은 성당으로 그 보존적 가치가 높아 1982년에 지방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53)

1907년 신자들의 손에 의해 직접 지어진 본 성당은 9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재하며, 1920년 이래 거의 매년 성체현양대회가 열렸으며 MBC 미니시리즈 16부작 "러브레터"가 촬영되어 젊은 남녀들의 데이트코스로도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원래는 서울교구에 속하였으나 1939년 춘천교구의 설정으로 이에 편입되었고 다시 1965년 원주교구가 설정되자 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천주교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때는 1784년에 이승훈이 북경에서 프랑스인 '그라몽(Grammont)'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돌아왔을 때부터이다. 이벽의 권유로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아온 이승훈은 이벽과 함께 지금의 명동성당 자리인 김범우(토마스)의 집 명례방에서 정기적인 신앙 집회를 하게 되었다.

1784년 겨울 이승훈은 이벽, 권일신을 비롯하여 정약용, 정약종, 김범우 등과 함께 주일예배를 시작하지만, 1785년 3월 관헌에게 발각되어 와해되는 첫 번째 시련을 겪는다. 이 시련이 을사박해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박해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양반 출신들은 혼방하고 중인출신인 김범우에게는 혹독한 형벌을 가하고 귀양보내 그곳에서 장독사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

조선후기의 조정으로선 서양 잡신을 믿는 행위를 결코 좌시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1791년(정조 15) 전라도 珍山郡의 선비 尹持忠이 母親喪을 당하여 神主를 불사르고 천주교 장례를 지낸 소문이 조정에 들어오자 정치와 제도의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죄목으로 사형을 시키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것이 1801년 박해사건으로 신해박해(辛酉迫害)이다.

이후 순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이 계기가 되어 남인학파의 숙청이 시작된다. 남인 중에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히 천주교 박해로 이어졌다. 이 일로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사인 주문모, 최초의 한국인 영세자 이승

53) 강원도 전체와 경기도 일대의 성당은 풍수원 성당에서 분당된 것이다. 그런데 본 성당은 지난 1982년 강원도에 의해 지방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되어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을 기해 1920년에 제1회 성체대회가 실시되어 매년 행사가 행해지고 있었으나 6.25한국전쟁으로 3년간은 본 행사를 치루지 못했다.

훈, 다산 정약용의 형인 정약중, 여성 평신도 지도자였던 강완숙 등이 사형에 처해진다.

이 당시 천주교에 관심을 가졌던 정약용은 귀양을 떠나야만 했다. 당시 오가작통법이라 해서 다섯 집 중 한집에서 천주교 신자가 적발되면 다섯 가구 모두를 처벌하는 연좌제를 실시하였기에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하여 만 1년 만에 박해를 받아 죽은 신도수가 100명이 되고 400여명이 유배되었다.

1866년(고종 3년) 대원군은 프랑스 선교사 9명을 비롯하여 천주교도 8000명을 학살하는 병인박해를 일으키자, 이때 조선을 탈출한 프랑스신부가 청나라에 주둔 중이던 프랑스 함대에 요청하여 프랑스군이 한강까지 쳐들어오는 병인양요가 발발하게 된다.

이후로 대원군은 보국양이(保國攘夷)정책을 더욱 굳히고, 천주교 박해도 더욱 심해지게 된다. 또 1871년(고종 8) 미국의 군함 세척이 강화도에 침입하여 소동을 일으킨 신미양요가 일어나면서 박해는 더욱 심해지게 된다. 그러던 중 이를 계기로 박해를 피해 전국의 많은 신자들이 이곳 풍수원으로 속속 합류하면서 이 일대는 대규모 신앙촌으로 촌락을 이루게 된다.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이들은 화전을 일궈 생계를 유지하며, 더욱 두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신앙공동체를 만들었다.

2. 풍수원 본당의 황성교안과 『正俗新編』

풍수원 본당과 관련된 천주교 당국이나 프랑스 공사관에서 『正俗新編』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사건결과로 橫城에서 教案이 발생하였다. 遜志 洪在龜가 이 책으로 황성 풍수원 본당의 선교사를 축출하려 하였지만 별 효과가 없자 그의 제자들이 르 메르 신부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였던 것이다. 이는 르 메르 신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황성 둔내에 거주하는 양반 洪孝伯과 安俊文이 르 메르 신부를 축출하고자 그를 중상 모략 하였다. 이 두 사람은 學脈·人脈·地緣으로 인해 홍재구와 관련된 인물들로서 1892년 당시 황성지역에서는 외국인 선교사들을 난폭하게 취급하는 비방문인 홍재구의 『正俗新編』이 적지 않은 筆寫本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있었다.

1892년 11월 황성 풍수원 본당의 르 메르 신부는 홍효백과 안준문 등이 비방문의 내

용이 자신이 황성거주부녀자와 간통하였다는 모함을 당하자, 르 메르 신부는 1893년 2월 12일 뫼텔 주교와 프랑댕 공사에게 직접 편지를 써 보내어 황성의 사건해결을 부탁하였다. 이 사건으로 프랑댕은 르 메르 신부에게 독판이 강원도 관찰사에게 홍효백과 안준문을 훈계하라는 書翰을 보내어 황성현감에게 이 사건을 맡기게 되자, 이 때 홍효백과 안준문이 황성감옥에 갇히게 된다.

이 사건이 서울과 지방 각지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홍효백과 안준문이 무고하니 석방되어야 한다는 건의와 그들이 잘못을 지질러 용서를 간청하여 뫼텔 주교는 황성풍수원 본당의 르 메르 신부에게 그들을 관대하게 베풀어 주라는 관대한 태도를 청원하자 5월 10일 황성현감에게 프랑스 공사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야 석방되어 풀려나왔다. 54)

이와 같이 황성 풍수원 본당과 관련된 教案은 遜志 洪在龜의 『正俗新編』의 영향으로 황성거주민들이 천주교 및 서양인식에 대한 대응논리에서 발생된 것이다. 이 황성교안은 강원도와 황성은 물론 전국에 걸쳐 있었던 프랑스 선교사 관계 교안으로써 천주교 성직자들의 축출교안이다.

황성의 거주하는 홍효백과 안준문은 손지 홍재구의 문인으로 보이는 위정척사 사상으로 무장된 화서학과 계열의 영향을 깊이 받은 황성의 재야 선비들이었다. 풍수원 본당과 관련된 황성교안 문제는 더 이상 문제 제기되지 않고 확대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V. 맺음말

19세기 화서학파의 일면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 「正俗新編」을 천주교 신부로부터 발굴되어 이번 기회에 분석, 정리 발표한 「正俗新編」과 그의 저자인 遜志 洪在龜는 橫城에 거주한 재야학자로서 華西·重菴의 학맥을 정통으로 계승하였던 대표적 화서학파이자 위정척사론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正俗新編」의 분석 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19세기 개항전후 화서학파의 시대인식을 밝히고 있으며 그것은 이후 목표를 제시하였고,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저자인 손지 홍재구와 「正俗新編」의 내용을 분석 소개를 통하여 홍재구 자신이 직접 경험한

54) 呂珍千, 「19세기 화서학과 홍재구의 서양 인식과 천주교회의 반응」, 『교회사연구』 2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천주교의 빠른 전파와 확산, 서양학문과 기술 등 西勢東漸을 통해 화서학파의 철저한 위정척사론 입장에서 內修外攘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外攘의 전제 조건으로 明倫·治身·正家·居鄉 등 內修인 性理學의 內的修養을 기본적으로 강조하였다.

「正俗新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小學」이나 「大學」의 학문방법과 대체로 근사하지만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근본적인 明倫·治身과 處世之義를 나타내는 處世論을 중요시 하면서 正家와 居鄉에도 무게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책이 經世적인 목적보다는 熹성지역 鄉里의 주변을 단속하려는 內修적인 입장에서 더욱더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손지 홍재구가 보고 경험한 서양의 학문과 종교, 그리고 서양기술의 비판은 주관적 견해가 강한 면도 있다. 그러나 결론론적이지만 그의 주장은 서양의 기술이 결국 조선 백성들의 利用厚生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구열강들의 효과적 침략과 천주교 등 문화적 확산에 기인할 뿐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나아가 당면하고 있는 시대의 위기를 이해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이 熹성에 거주한 「正俗新編」의 저자인 손지 홍재구의 화서학파 위정척사 사상과 풍수원 성당과의 관계 등을 통하여 「正俗新編」내용을 분석하여 熹성지역에 새로운 서양문화와 천주교의 전파로 화서학파의 홍재구 저서를 통하여 천주교를 圍繞한 대서양인식의 문제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를 들어 비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서양종교인 천주교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학문적으로 대응하려는 無父無君 비판과 內修外攘論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손지 홍재구의 熹성활동 즉 풍수원 성당과의 교안사건을 통하여 화서학파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부족하지만 화서학파의 대서양인식과 「正俗新編」에 대한 천주교의 반응, 그리고 華西 李恒老를 비롯하여 重菴 金平默과 省齋 柳重教 사후로 중암·성재계열로 양분되는 과정도 살펴볼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중암계열의 嫡傳이라 할 수 있는 홍재구의 저서가 전무한 상황에서 「正俗新編」과 발견과 분석, 완역과 함께 홍재구의 「啓蒙要訣」발견은 앞으로 화서학파의 연구에 큰 이정표를 세우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II. 향토문화탐구

* 태기산성을 답사하다 | 이영식

* 감천면 민물고기축제 | 박현숙

* 운곡 원천석 선생이 은거하던 횡성 강림의 누출재와 변암 | 김동정



태기산성을 답사하다



* 황성문화원 이사
이영식

2011년 5월 27일,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태기산성을 답사하였다. 오늘 답사는 지난 2010년 늦가을에 계획했던 것으로, 당시 임원회의 때 문화원장의 발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곧 산행이라 조금은 힘들겠지만, 이왕이면 등산을 겸한 태기산성 답사를 계획했던 것이다. 그것을 오늘에야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오전 9시 문화원 주차장에 문화원 임직원들이 하나둘 모여 버스에 올랐다. 오늘 참석한 임직원 가운데는 태기산성을 이미 다녀온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초행길이다. 문화원을 출발한 버스는 50여분 지나 태기산 초입에 도착하였다. 도시락과 음료수를 각자 배낭에 챙겨 넣고, 카메라는 목에 걸거나 손에 들고 버스에서 내렸다.

오늘 태기산성 답사 안내를 맡아주신 신대리 이장「주영식(당시54세)」과 잠시



인사를 나눴다. 신대리 이장은 어려서 태기산성터 안에 살았는데, 1970년대 초에 이루어진 정부의 화전민 이주 정책에 의해 현재 거주하는 마을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길옆에 있는 내를 건너니 태기산 등산로 안내판이 있었다. 안내판에는 “태기산은 진한의 마지막 임금인 태기왕이 산성을 쌓고 신라군과 싸웠다는 전설에 의해 명명되었다.”는 태기산의 지명유래가 간략히 정리되어 있다.

태기산성은 최근의 명칭이고, 예전에는 덕고산성이라 하였다. 아울러 그 산 이름도 덕고산이라 하였는데, 언제부터인가 현재와 같이 태기산 이름과 더불어 태기산성이라 불리게 되었다. 문화원에서는 덕고산성에서 태기산성으로 바뀐 역사, 즉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왜 바뀌었는지를 알고자 노력하였으나 아직까지 명쾌한 답을 찾지 못했다.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원주목 횡성현조에는 “德高山石城 在縣東北四十九里五十步 周回五百六十八步五尺 有一溪長流不渴 又有軍倉五間官廳二間”(덕고산석성 현의 동북쪽 49리 50보에 있다. 둘레가 5백 68보 5척이며, 한 시냇물이 길게 흘러 마르지 않는다. 또 군창 5칸과 관청 2칸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횡성현 성곽조에는 “德高山城 石築周三千六百五十三尺 內有一井有軍倉今半頽落”(덕고산성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3천6백53척이다. 안에 우물이 하나 있고, 군창이 있으나 지금은 반이나 퇴락하였다.) 등과 같이 덕고산성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두 문헌의 기록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산성 둘레 길이	군창 및 관청의 유무	물의 유무
세종실록 지리지	568보 5척	군창 5칸, 관청 2칸	시냇물
신증동국여지승람	3,653척	군창이 있다.	우물 하나

위 표에서 보듯이, 산성 둘레 길이, 군창 및 관청의 유무, 물의 유무에서 차이

를 보인다. 곧 산성 둘레의 길이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568보 5척이라 했으니, 이를 척으로 환산하면 3,413척이 된다.(일반적으로 1보는 6척으로 환산한다.) 따라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3,653척과 비교하면 240척의 차이가 난다. 익히 알고 있듯이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세종실록』 지리지보다 후에 간행되었다. 따라서 위의 표에 정리된 숫자만을 생각한다면, 산성 둘레의 길이는 후대에 더 늘어난 것이 된다. 하지만 “지금은 반이나 퇴락”했다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고려한다면 원래 그 길이는 훨씬 더 길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5칸의 군창을 그냥 군창이 남아 있다고만 기록하였고, 2칸의 관청 유무에 대해서는 정리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덕고산성 내에 흐르던 ‘시냇물’은 ‘우물 하나’로 바뀌었다. 시냇물과 우물의 차이는 크다. 이러한 여러 사항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옳은 지 쉽지 않다.

태기산성 초입의 마을에 들어서니 촛대바위가 병풍처럼 마을 앞을 가리고 있는데, 그 높이가 상당해서 건너편에서도 올라다 봐야할 정도이다. “이 곳에서 경계를 서던 태기왕의 병사가 수많은 신라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 그 대로 몸이 굳어 바위가 되었다.”고 하는 촛대바위 전설이 전해온다

촛대바위 아래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수백 미터 더 오르자 2년 전에 건설한 사방댐이 있다. 사방댐 아래에 놓여있는 커다란 징검다리를 건너자 신대리 일대에 많이 자생하는 산죽이 길 옆으로 펼쳐져 있다. 이렇게 산죽이 많으니 신대리 주민들은 이것을 가지고 조리를 만들었나보다. 지금은 조리를 사용하는 집이 거의 없지만, 20여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마을에서 생산한 산죽 조리는 횡성군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다. 이런 까닭에 당시 마을 분들에게는 조리 만들기가 큰 부업거리였다.



등산로를 따라 가파른 산길을 한참 오르다보니 경사진 곳에 성을 쌓았던 돌들이 주위에 널려있었다. 아마도 이곳이 성문인 듯싶다. 태기산성에 관심이 많은 박순업 부원장께서는 “진한군은 신라군이 비교적 산의 경사가 완만한 횡성 쪽에서 쳐들어올 것으로 알고 그쪽만 열심히 경계를 쳤는데, 신라군은 오히려 경사가 심해 오르기 어렵다고 생각되던 평창 쪽에서 쳐들어온 까닭에 태기산성이 점령당했다.”고 설명한다. 물론 이에 대한 기록이 없으나 산세를 보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 생각한다.



널려 있는 돌들을 보며, 예전 분들이 참 대단하다, 이 돌을 다 어디서 가져왔을까, 누가 날랐을까, 하필이면 왜 이곳에 성을 쌓았을까, 이 성은 당시 횡성에 거주하던 백성들을 위한 성이었을까? 등등 감탄과 의문을 한마디씩 나누며 목적지를 향해 계속 전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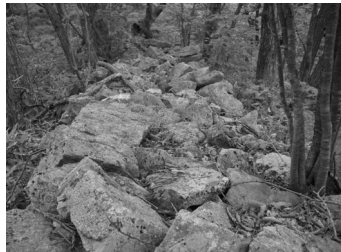
산성의 초입이라고 생각되는 비탈진 곳을 지나니 분지처럼 비교적 평평한 땅이 펼쳐져있다. 이곳에 화전민이 살았었다는 이장의 설명이 없더라도 여러 가구가 충분히 살 수 있는 넓은 곳이라 판단되었다. 주위에는 침엽수 그리고 당귀와 고사리 등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수백 그루의 침엽수는 화전민들이 이주한 후 군에서 식목한 것으로, 곧게 자란 나무와 가지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땀 흘리며 올라온 답사자들의 머리와 가슴



을 시원하고 상쾌하게 해주었다.

이곳은 가뭄이 심할 때 기우제를 올리던 곳인데, 기우제를 지낼 때는 황성군수가 직접 참여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기우제를 지내지 않으므로 군이나 마을에서 관리하지 않지만, 심마니들이 입산하기 전에 제를 올리거나 개인적으로 치성을 드리기도 한다고 이장은 설명한다. 기우제를 지낼 때는 돼지를 가져와 이곳에서 잡았는데, 이때 제단 주위에 돼지 피를 뿌린다고 한다. 이렇게 피를 뿌리는 까닭은 그 더러움을 씻으려고 하늘이 비를 내린다고 믿었기 때문이란단다. 오래전 일이라 이장

도 기우제를 지내는 것은 직접 보지는 못했고 어른들에게 들었다고 한다. 이때 나무



위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새가 지저귀는데, 그 소리 또한 독특해서 다들 어떤 새인지 궁금해 했으나 끝내 알아내지 못했다.

넓은 터를 지나 이정표를 따라 조금 더 오르니 초입에서 보던 돌무더기보다 더 많은 돌들이 길게 쌓여 있고, 그곳을 지나자 산성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안내표지가 서 있었다. 이제 다 왔구나 생각하며 조금 더 오르자 산 중턱에 오늘의 목적지인 태기산성비가 있었다. 이곳은 정상은 아니지만 멀리 보이는 여러 산봉우리들이 훤히 보였다.

주위에는 오랫동안 돌보지 않은 무덤이 있는데, 아마도 화전민들이 이곳에 거주할 때 썼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해오는 얘기로,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누가 이 성터 안에 묘를 써서 그렇다 하여 아랫마을 사람들이 직접 와서 성터 안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마을 분들은 태기산성터 안을 신성한 곳으로 여겼던

것 같다.

이장과 더불어 몇몇 분들은 돌문을 찾으러 갔다. 잠시 후에 도착한 일행은 밝은 모습으로 돌문을 찾았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그러자 모두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갔다. 가파르게 경사진 곳을 미끄러지듯 내려가니 큰 바위가 갈라져 있다.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바위가 붙어 있어 마치 문처럼 보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은 큰 덩어리가 떨어져 돌로 갈라져 있다며 이장은 안타까워했다. 마을에서는 이 돌문을 소금창고라 불렀다고 한다. 실제로 돌문 안으로 약간의 공간이 있어서 무엇을 보관하던 곳이라 하여도 틀리지 않은 듯싶다. 물론 이 돌문에 대한 기록은 없고, 이에 대한 이야기가 지역민들에 의해 구전되고 있을 뿐이다.



과거에 이 돌문 옆 비석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바깥을 동문 밖이라 불렀다고 한다. 성터 안 중심에서 볼 때 동쪽에 해당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다. 화전민 정리사업 전에는 동문 밖에 두 가구가 살았다 한다. 그들은 주로 당귀, 천궁, 만삼, 강활 등을 재배하였다. 지금도 집터는 남아있고, 집터 주위에는 그들이 남긴 생활의 흔적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주위에는 많은 한약재 식물들



이 자라고 있는데, 아마도 당시 거주하던 분들이 수확하고 남은 약초가 스스로 씨를 퍼트린 것으로 생각한다. 약초의 강한 생명력에 감탄한다.

태기산성비로 돌아와 일행은 도시락을 먹고, 박순업 부원장으로부터 태기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어서 신대리 이장이 이곳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장도 어렸을 때 일이라 대부분의 얘기는 어른들에게서 전해들은 것이라 한다. 확실한 것 하나는 “술은 옥수수로 담았다.”고 한다. 예전에 이곳에 계신 분이 생일이라도 되면 산아래 있는 분이 40여 분을 걸어올라 와서 식사를 하였는데, 혹시 이야기가 길어져 어두워지면 길이 험하기 때문에 그 집에서 자고 아침에 내려갔다고 한다.

태기산은 황성군 청일면과 평창군 봉평면이 접해 있는 곳으로, 황성에서는 진한의 마지막 왕인 태기왕이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에게 쫓기어 이곳에 성을 쌓았다고 전해지지만, 봉평면지에는 「고조선 시대에 예맥국 태기왕이 황성과 평창을 중심으로 태기산 옥산대에서 성읍국가를 건설하였다가 멸망하였다는 전설이 있어」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이를 보면 황성군과 평창군 두 지역에서는 왕의 이름은 같은데, 나라 이름이 ‘진한’ 과 ‘예맥국’ 으로 각기 달리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설에 의하면, 신대리에는 태기왕을 따르던 진한의 군사들이 귀향을 하지 않고 이곳에 모여서 살았다고 한다. 혹시 아직도 신대리의 원주민들 중에는 태기왕 병사들의 후손이 있을까? 아직 남아 있다면 그 후손은 병사들의 몇 대 손일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우리는 태기산성 주위를 정리하고 하산하였다.

“갑천면 민물고기축제”

보고! 잡고! 맛보고!
물과함께 추억을!!!



* 박현숙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호숫가를 한바퀴 돌아보며 마치 시인의 노래처럼 갈색 깊은 풍경을 마음에 담았다. 연신 감탄을 쏟아내며 물 길에 젖은 선명한 풀잎들을 건져 올리며, 팔닥거리거나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눈에 띈다.

아름답고 고요한 황성호와 잘 어우러지는 갑천의 아름다움들이 어느곳 하나 정겹지 않은곳 이 없다.

진한 때, 태기왕이 계천을 지날 때 갑옷을 씻었다 하여갑천이라 칭하였고, 고향을 잃은 시름에 마음과 혼을 담아낸 망향의 동산,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순수하게 엮어낼 수 있는 청소년수련원이 위치해 있는 곳이다.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기분을 좋게 하고 등산의 노고를 체험할 수 있는 어답산이 우뚝 솟아있어 정기를 머금고 있다.

숫가마를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자연휴양림과 황성의 유일한 따듯하고 쉴 수 있는 온천이 자리하고, 홀로세생태학교와 여름이면 북적이는 물맑고 경치 좋은 병지방 계곡을 도시사람들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테마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갑천에 황성호 계천을 이용하여 특색 있는 축제를 마련한 「갑천면 민물고기 축제」의 차별화된 추진과정과 현실을 짚어본다.

「갑천면 민물고기 축제」는 갑천면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되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견학과 수차례의 관련 회의를 거친 끝에 2008년 8월 말경, 민물고기 축제(안)이 준비되어 축제준비 기간이 짧았지만 분야별로 업무 분장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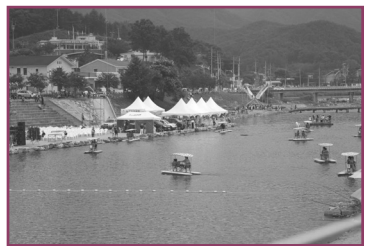


아름답고 성공적인 축제의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관이 밤낮을 가리지 않은 보람으로 제1회 「갑천면 물고기 축제」의 막이 올랐던 것이다.

2008년 10월11일~12(2일간) 갑천면 매일리 마을 광장 일원에서 큰 기대를 안고 대단원의 첫 막이 올랐던 것이다.

주제는 「맑디 맑은 물 횡성호, 추억을 찾는곳」

사람들의 서정을 열어가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필자도 첫회에 참석한 바 있지만 계천이 흐르는 곳에서 커피향이 풍기는 초가을에 접어들 무렵, 행사는 낭만적이고, 아름다웠다. 민물고기 하면 우리 어릴적 유년의 그리움들이 계천의 끝에서 성큼 걸어 나올듯하다.



치어 방류를 하며, 아기 고기들을 처음으로 많이 만났던 날이다. 뗏목을 타고 계천을 건널 때에는 어릴 적 한강에서 돛단배를 타고 5일장에 갔던 기억을 떠올리기도 했다. 축제장을 돌아보며, 종합 안내소 및 자원봉사자의 손길들도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모든 농사일을 접어두고 함께한 농민들의 수고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지금도 기억이 새롭다. 부녀회원들의 구수하고 맛깔스런 음식들 중, 어죽과 민물고기 튀김과 샐러드는 지금도 그 모습을 상기 할 만큼 맛이 있었다.

해마다 맛볼 수 있었던 민물고기의 특유의 맛은 지난 4회때도 우리 모두의 혀 끝에서 그 맛의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민물고기 축제의 모든 자료들을 통한 내용들을 접하고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교통, 의료, 상하수도 설치공사, 전기시설공사, 깨끗한 화장실 문화등 소홀함 없는 행사 진행에 군·기업관광도시과 담당부서의 빈틈 없는 노력과 축제 위원회의 위원들, 그리고 주민들의 노고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내빈 식사며 차봉사까지 순수하고 소박하고 정겨운 축제임에는 틀림없었다.

개막에 이은 축하공연의 흥겨움을 더하면 만족할 만한 축제가 아니겠는가. 축하공연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갈고 닦은 실력들을 발휘하여 어린아이들의 에어로빅부터 판소리며, 낯선 곳에 시집온 이민자 여성들의 춤사위는 너무 고왔다. 악기들을 통한 공연들을 보며, 농사지으며 언제 저런 실력들을 키웠을까, 동아리 활동에도 열심인 모습들이 아름답고 감동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먹거리 장터 운영에는 촌떡, 비빔밥, 도토리묵, 감자전, 손두부, 막걸리등 부녀회원들이 직접 만들어 낸 토속 음식들이 우리 고유의 입맛들을 되살려 주는 광경이었다. 정작 축제의 주인공이었던 민물고기들의 메뉴는 메운탕과 튀김, 붕어찜 등 전통 메뉴와 잘 어울어져 있었다.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도 짝짝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한바 크고, 축제장 주변에는 가을국화를 식재하여 꽃길조성에도 큰 몫을 하여 관광객들에게 행복감을 더해 주었고아름다운 가을 분위기는 보너스로 우리 마음에 다가왔다.

농촌 관광이벤트로는 1사1촌 체험행사로 계천 수중보와 징검다리 사이에서 맨손으로 민물고기 잡기 체험은 현재 제4회 때까지 이어지는데 점점 더 호응이 좋아 확대되고 있다. 민물고기 낚시 대회도 제1회로 개최되었고, 팻트병으로 어항 놓기 체험을 통하여 고기 잡는 즐거움도 누렸다.

뗏목타기 체험은 수시로 이루어져 운행되었다.

농경문화 체험 또한 다양한데 쫄면 만들기와 코뜨레 만들기는 상대리 노인회원들이 담당하여 이색적이고 어르신들의 손놀림들이 신기하기도 했다.

한지만들기 체험과 떡메치기 체험 투호던지기 체험으로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심심치 않게 참여하여 즐거움을 갖기도 했다.

홀로세생태학교의 나비등이 전시되어 학생들에게는 더없는 소중한 체험이 되었다.

이렇게 다채로운 행사로 이틀간의 제1회 민물고기 축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개최결과는 방문객의 1만여명의 참여로 성황리에 끝났음을 알게 되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하면 된다는 자긍심을 심어주었으며, 갑천면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향후 지역발전에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축제 준비기간이 짧아 다양한 행사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없었지만 향후 이룬시기에 철저한 준비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알차게 준비할 것을 계획하였고 타 자치단체의 민물고기 축제를 견학하여 벤치마킹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을 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요소요소마다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 토론하고 평가하여 발전하는 축제를 만들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무엇보다 풍요로운 농촌, 살맛나는 갑천과 황성지역을 위해 소득증대에 힘을 기울였다. 2009년에는 물고기를 이용한 다양한 메뉴를 개발함과 동시에 관광객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음식 제공과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함이 큰 과제로 남아 있었다.

또 한가지 아쉬움으로 남는것은 2008년 제1회때 축제에는 추진위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의 음주로 인하여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불쾌한 이미지를 주기도 하였고, 조끼 과다 지급으로 누가 임원인지 자원봉사자인지 어려웠던 점도 지적하였다.

그리고 첫회의 경험부족으로 주민들의 저조한 참여로 거의 행정기관에서 추

진하여 앞으로는 민물고기 축제 위원회의 중심으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무슨일이든 의식이 중요한데 갑천면 민물고기 축제에도 주민들의 의식 변화로 인하여 더욱 발전되는 축제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농촌의 노령화로 인하여 인적자원이 부족한 것은 현실이니만큼 함께 대책을 강구하고 인적자원 확보에 주력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큰 과제로 남았다.

이렇게 해를 거듭하면서 제2회 제3회의민물고기 축제가, 2011년 7월29일부터 7월31일 동안 제4회의갑천면 민물고기 축제가 개최되었다.

새롭고 신선한 이미지로, 스토리와 경쟁력과 생명력있는 축제로 관광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모습으로 수정 보완되고 보다 발전된 축제로 발전해야 된다는 취지에 따라 제4회 민물고기 축제가 개막된 것이다.



그동안 주민들의 의지와 집결과 지역의 전 주민 참여로 자신감이 축적된 의지를 보여준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축제장 강변에는 코스모스가 만발하여 방문객들을 반겨 맞았고 주민들과 축제위원들은 한층 더 즐거움과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었다.

개막식이 시작될 무렵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은 고조된 분위기에 젖어 개막식과 흥겨운 공연에 비웃을 입고도 자리를 뜨지 않는 의연함에 감동을 받았다.

다음날은 맑게 개인 하늘을 보며 축제장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어 주말을 이용

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더 멋진 축제가 되었다.

그래서 5만여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방문하는 대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직 간접적으로 부가가치가 약 54억으로 대단히 성공한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이번 제4회의 민물고기 축제에서 민물고기 맨손잡기 체험에서 참가자의 증가로 축제기간중 연일 운영횟수를 추가하여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과 인기를 끌었다.

여전히 물고기 관련 먹거리는 부족했다는 지적이었고, 야간 볼거리가 전무한 것은 개선되어야 하는 과제로 남았다.

특히 이번 제4회 민물고기 축제 추진전략중 먼민이 축제의 주인 이되는 민간 주도 축제로의 과감한 변신을 시도한 점과, 스토리가 있는 공격적 홍보와 마케팅 및 시대에 맞는 홍보 기법이 도입된점 그리고 민물고기 축제와 갑천 체험관광을 연계하여 전 지역 축제 강화와 먹거리의 고급화, 전문화 및 체험프로그램의 다양화의 전략이 두각을 나타냈고, 축제 자체의 자생력을 키우는 축제로 전면 재검토된 점이 새롭게 시도되었다는 점이 고무적이었다.

맑디맑은 물로 유명한 갑천의 청정자연을 맘껏 느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옛 추억을 새롭게 하는 민물고기 축제를 돌아본다.

기후변화의 심각한 현실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청정 지역을 살리고 우리의 책임있는 인간의 도리를 생각해야 할 때이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 유산을 남겨야 하고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겪어야만 한다. 그래서 「갑천면 민물고기 축제」를 전국 우수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축제로 비전을 창출하는 1등 축제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녹색 실천을 생활화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청정지역의 맥을 이어가는 대한민국 안에 민물고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래서 정주하고 싶은 지역으로 언제나 느낌이 좋은 생명력 있고 자연친화적인 민물고기 축제를 소망한다. 또한 축제와 연계하여 농가소득을 높여 진정 살맛나는 축제가 되었으면 한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이 절실하다. 군비의 적극적인 확보와 후원업체의 협조로 이루어 졌으나 수익사업으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다.

지난 여름 제4회 「갑천면 민물고기 축제」를 조사하고 피력하면서, 갑천면민들의 열정적인 모습과 생활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관계된 모든 분들의 협력이 없이는 이를 수 없는 일들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상부상조하고 상생하는 아름다운 도리와 삶을 느끼며, 더욱이 황성 사람임에 감사한다.

고난은 잠자던 용기와 지혜를 깨운다는 어느 선현들의 지혜를 배운다.

조금 힘들더라도 노력하고 양보와 나의 고난을 통하여 더 새로운 삶에 도약과 발전을 가져온다.

없던 용기와 지혜를 창조하여 좀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 발전하고 더 성공적인 내년 제5회 「갑천면 민물고기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



운곡 원천석 선생이 은거하던 황성 강림의 누졸재와 변암

황성문화원 국장으로부터 운곡 원천석 선생의 은거지인 변암을 답사하려고 하는데 함께 가겠다는 연락을 받고 머뭇거리기 없이 가겠다고 대답하였다. 태종대와 노구소 및 노구사 등은 답사한 적이 있었지만 변암은 치악산 정상부근에 있어서 엄두도 못 낸터라 기쁜 마음으로 응락했다.



* 강원도청 강원도사편찬실 상임위원
김 동 정

드디어 10월 19일, 아침 일찍 춘천에서 황성을

향해 출발했다. 공근터널을 빠져 달리는데 산기슭에 살포시 걸친 낮게 긴 물안개의 모습은 실로 장관이었다. 8시 20분에 도착하여 미리 기다리고 있던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사들 등의 20여 분과 인사를 나누고 관광버스로 오늘의 목적지인 변암을 향해 출발을 하였다.

강림면으로가는 길가엔 코스모스가 자연의 섭리에 순옹이라도 하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추수가 끝난 들판에는 큰 덩어리 속에 싸인 짚이 겨울 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도 가로수는 아직도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우리의 답사를 축하라도 해주듯 반겨주고 있었다. 어느덧 변계량이 강림과 각림사를 찬



부곡공원지킴터에서 입산 준비

양한 시비를 지나 옛 각림사터인 강림

우체국을 서서히 가고 있었다. 이곳 길은 태종 이방원이 13세 때 운곡선생에게 글을 배운 곳이어서 ‘태종로’라고 이름 하였다. 이곳에서 5분도 채 가지않아 저 멀리 노구사가 보이고 눈 앞에는 개울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개울가에는 노파가 소에 몸을 던진 노구소가 있었고 이것을 버스 안에서 보면서 가고 있는데, 왼편 언덕 우뚝 솟은 곳에 말없이 의연히 서 있는 태종대가 눈에 들어왔다.



울긋불긋 단풍을 뒤로멋있는 포즈를!



이 시간만큼은 참 행복하다!

변암을 향한 단풍산행

태종대에 잠깐 내려 둘러본 후에, 곧장 부곡리로 향했다. 이유는 변암으로 가기 위한 최단거리이기 때문이었다. 부곡공원지킴터에 도착하여 잠시 전열을 정비하고 10시 13분에 입산하였다. 산을 오르면서 하늘을 쳐다보니 눈이 시리도록 파란하늘에 반달이 선명하게 보였다. 자연의 심비함과 오묘함을 느끼면서 오르는 발걸음은 오색단풍으로 인하여 더욱 가벼웠다. 이곳에서 비로봉까지는 8.9km 주위에는 낙엽송인 일본잎갈나무가 있는데 겨울에 잎이 떨어진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꽃의 향기와 잎의 향기가 일품인 쪽동백나무, 가지를 물에 담그면 물이 푸르게 변한다고 하여 이름지어진 물푸레나무, 지난겨울에 부러진 소나무가 길가에 삿갓 모양으로 쓰러져 개선문을 연상케하는 모습, 계류를 따라 흘러 내려와 동그란 형상을 이룬 한 소(沼) 등이 울긋불긋한 단풍과 하모니를 이루며 한 폭의 수채화를 그리고 있었다.

오르면서 휴식을 3~4번 한 끝에 11시 50분 치악산 정상 시루봉이 보이는 등선에 도착하였다. 저 멀리 정상 우뚝 솟아있는 봉우리 자체가 너무나 신기하였다. 정상을 향해 가는 발걸음 주위에는 산죽(山竹)이 길 옆으로 넓게 널려 있었다. 또한 군데군데 오래된 철죽이 고풍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며 눈길을 사로잡았다. 쉬엄쉬엄 30분 걸어서 12시 10분에 도착한 곳이 헬기장이었다. 시루봉이 더 가

까이 보이고 그 아래편에 변암도 시야에 들어왔다. 마음만 먹으면 금방이라도 갈 것 같았다. 일행이 아직 모두 도착하지 않아 이곳에서 식사를 하기로 하였다. 문화원에서 준비한 김밥으로 허기진 배를 채웠다. 모두들 오랜만에 답사한 탓인지 소풍 온 아이처럼 동심으로 돌아간 듯 여기저기 옹기종기 모여서 식사하며 담소하는 모습이 참으로 여유롭고 평온해 보였다.

12시 47분에 일행은 변암을 향해 출발하였다. 몇 미터나 갔을까 선두가 깊은 골짜기를 향해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내려가는 길은 골짜기라서 매우 험하여 쉼줄기에 의지하여 조심스럽게 발길을 옮겼지만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여기저기 아우성이 들렸다. 거의 바닥까지 내려가자, 이번에는 다시 가파른 길을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알고 보니 누줄재를 간다는 것이었다. 헬기장에서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을 30여분을 걸은 끝에 1시 20분에 드디어 누줄재에 도착했다.

누추한 집에 응졸한 사람이 사는 집, 누줄재!

‘누줄재’ 이름처럼 허술해 보이지만 등성이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별채 터였다. 누줄재라는 표시판 바로 옆에 「운곡선생유지(耘谷先生遺址)」라고 쓰여진 표석이 서 있었는데, 오른쪽에는 을해삼월 일(乙亥三月日)이라고 쓰여있고 왼쪽에는 16대손사목립(十六代孫師睦立)이라고 쓰여 있었다. 아마도 1785년에 후손인 원사목이 기록하여 세운 것으로 보인다.



누줄재에서 기념촬영!

운곡선생은 22세 때 원주로 낙향하여 처음에는 서곡(西谷)이라는 곳에 살다가 45세가 되던 1374년 3월 이후에는 치악산 동쪽 산아래 본채 곁에 별채로 누줄재(陋拙齋)라는 서재를 짓고 이곳에 1천여 권의 책을 쌓아 놓고서 학문에 정

진하였다고 한다. 누줄재란 ‘누추한 곳에 웅졸한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뜻이다. 그가 남긴 시 속에서도 당시의 심정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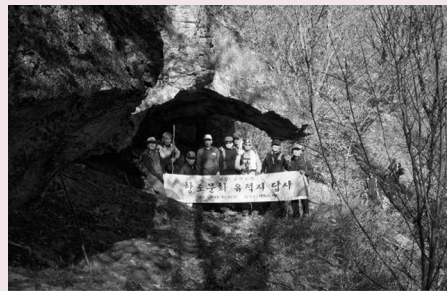
霜後山椒翠色濃 서리 내린 후 산초는 푸른 빛 짙고
 一株蒼檜數株松 한 그루 푸른 전나무와 몇 그루 소나무라.
 憐渠冷落千年操 천년의 냉락한 그 지조를 어여삐 여기니
 伴我衰遲十載容 십년 동안 늙어가는 내 모습을 짝해 주네.
 遠聽村墟長短笛 멀리 마을 터에서 길고 짧은 피리소리 들려오고
 近聞隣寺暮朝鐘 가까이 이웃 절의 아침저녁 종소리 듣네.
 此間深有誅茅意 이 사이 깊은 곳에 띠 집 짓고 살려 하니
 莫向閑人道所從 한인(閑人)을 향해 찾아오는 길 알리지 마오.

그 누추하고 웅졸함이 자신의 누졸함과 같다고 하여 ‘누줄재’라 하고 이 시를 지었다고 한다. 혼탁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끈궁한 삶 속에서도 순수한 본성을 지켜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시라 할 수 있다.

단체사진을 찍고 일행이 변암을 향해 출발할 때는 1시 36분이었다.

고깔 바위 변암!

누줄재를 살펴본 후 다시 변암을 향해 발길은 옮겼지만 주변이 궁금했다. 누줄재에서 20~30m 떨어진 곳에 여러 채의 집 터 흔적이 있어 여러 가구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을 것으로 보였다. 변암을 가기 위한 길은 쉽지 않아 보였다. 헬기장에서 내려 온 길도 만만치 않았는데 이 길 보다 더 긴 길을 가야했다.



고깔바위 안에서 기념촬영!

어쨌든 거의 맨 뒤에 처져 사진을 찍으면서 부지런히 올라갔다. 목표가 있기에 ‘변암’ 생각만 하면서 걷고 또 걸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저 멀리 정상이 보인다. 변암이 시루봉 바로 밑에서 동남쪽으로 약 300m 아래에 위치하였기에 거의 다 왔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드디어 발견! 정상부를 향해서 몇 차례 쉬어가며 50여 분이 지난 2시 28분에야 비로소 변암에 도착한 것이다. 고깔 같은 바위여서 잠시 비바람을 피하기에는 괜찮아 보였다.

운곡 선생이 은거한 고깔 모양의 바위인 변암에는 암각된 글자가 여러 자 있다. 안쪽 벽면에는 ‘변암(弁岩)’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고 그 옆으로는 太宗臺東二十里[태종대는 동쪽으로 20리이다]라는 문구가 있고 바깥 벽면에는 開穿石常澆收拾山蔬且慰貧[돌 우물 뚫어 항상 물을 축이고 산나물 거두어 가난 달랜다]이라는 시구가 새겨져 있다. 또 옆쪽 바위 아래 면에도 耘谷先生諱天錫 麗末隱居此山下[운곡선생은 살아계실 때의 이름이 천석이다. 고려 말에 이 산 아래에서 은거하셨다] 我太宗以甘盤舊恩 累召不至[우리 태종께서 감반과 같은 옛 은혜 때문에 여러 차례 불렀으나 이르지 않았다] 幸其廬 先生避入于此[친히 그의 초막에 가셨으나 선생은 피하여 이곳으로 들어오셨다] 崇禎後八十 癸卯 後孫 尙中識[1723년 계묘년에 후손 상중이 쓰다]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고 바로 그 옆에, 不起上高其義[출사하자는 않았으나 왕께서 그의 의를 높게 여겼다]라는 여섯 글자가 더 새겨져 있었다.

참으로 귀중한 글귀이다. 특히 감반(甘盤)과 중국 은(殷)나라 임금인 무정(武丁)과의 관계까지 언급하며 태종과 운곡선생이 사제지간임을 밝히고 있다. 감반은 무정, 곧 은나라 고종(高宗) 재위 때의 현신(賢臣)으로, 고종이 아직 즉위하기 전에 글을 가르쳤다. 후에 무정이 즉위하자 그를 등용해서 정승으로 삼았다. 이때부터 이 아름다운 관계를 사제(師弟)의 모범으로 삼고 있는데, 바로 운곡선생과 태종과의 사제관계를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다.

태종 이방원은 13세에 각림사에서 운곡선생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태종대에서 책을 읽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왕에 즉위한 태종은 은혜를 갚고자 운곡 원천석선생을 여러 번 불렀으나 거절하였으므로 태종이 직접 운곡 선생을



태종대 전경

찾아 강림까지 왔다. 그러나 운곡 선생은 태종을 피해서 변암(弁岩)에 은거하였다. 태종은 넓은 바위 즉 태종대에 7일 동안 머물면서 운곡선생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 때 돌아가면서 운곡선생의 아들에게 벼슬을 주고 선생을 섬기던 시녀에게는 상을 주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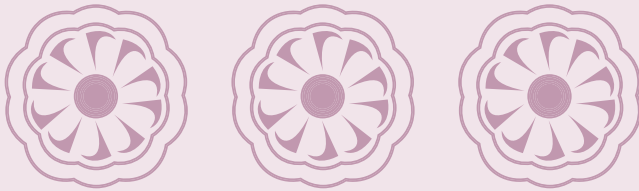
사제지간(師弟之間)의 미덕(美德)을 교훈으로 승화!

40여 분 쉬면서 바위에 새겨진 글귀와 글자를 차인표 어른과 일일이 확인하였고 설명도 자세하게 들었다. 그리고 변암 옆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잠시 6백여년 전 운곡선생님이 은거하던 모습을 연상해 보기도 하였다. 절의를 지켜야만 했던 그 고달픈 삶을 생각하면서! 3시 10분에 일행은 하산을 시작하였다. 내려오는 길 역시 관절이 약한 자신에게는 쉬운 길이 아니었다. 몇 차례 휴식을 취하면서 2시간이 지난 5시 15분에 다시 부곡공원지킴터에 도착하였다. 장장 7시간의 여정이었다.

하산하여 치악산송어장횃집에서 답사의 여정을 정리하는 시간에는 김광수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원관계자들과 이사들, 군청직원, 전 군의원 등 모든 분들이 횡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는 귀한 자리였다.

오늘다시 한 번 횡성강림면이 태종과 운곡선생의 자취가 많이 남아있는 유적의 보고(寶庫)임을 확인했다. 태종대를 비롯하여 노구소라고 하는 구연(婁淵), 횡지암, 수레너미재, 원통재, 누줄재, 변암 그리고 최근에 세운 노구사 등은 이

지역을 더욱 빛낼 것으로 확신한다. 실망시킨 태종을 피하여 변암까지 피신하여 은거한 선생남도 대단하였지만 이 험준한 산골짜기까지 선생님을 모시기 위해 행차한 태종의 스승 존경심도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제지간의 아름다운 미덕을 교훈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전승·발전시켜 횡성군민들의 화합의 덕목으로 승화되길 기대해 본다.



Ⅲ. 횡성사람 횡성이야기

* 횡성에서 보는 새 | 한상균

* 우리시장 횡성시장 이야기 | 장태종

* 소똥차 러브모텔로 가다 | 권용환

* 우리고장 옛지명 「갈풍역」(葛豊驛) | 윤만복

* 문화유적 스토리텔링 “치악산 자락에 새겨진 충신의 마음” | 윤병철

황성에서 보는 새



* 한 상 군

I. 들어가는 말

삼일공원 테니스장을 찾을 때 마다 숲속에서 들려오는 여러 종류의 새소리가 언제나 내 마음을 즐겁게 했는데, 그중에서도 피꼬리, 밀화부리, 뺨꾸기소리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퇴직 후 원로장학의원이 되어 관내 초등학교를 2년마다 방문하며, 자연을 알게 하는 것이 자연 보호의 첫걸음이라 생각하고 야생화, 거미, 곤충 등을 교사와 학생에게 소개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생각이 나서 이 새소리를 사진과 함께 학교에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새 촬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새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었던 나는 새로운 새 사진을 찍을 때마다 새 이름을 알아가는 새로운 즐거움을 갖게 되었다. 덕분에 45종의 새 이름과 노래 소리를 알게 되었고 학생들에게 황성에서 보는 새와 아름다운 새들의 노래 소리를 소개할 수 있어 큰 보람도 얻었다.

새는 척추동물의 한 강(綱)으로 앞다리는 날개로 변형되어 날 수 있고, 입은 부리로 되어 손을 대신하는 구실을 하며, 온몸이 깃털로 덮인 온혈동물이다. 모두 난생이여, 폐에 이어 지는 기낭이 있고, 시력이 발달하였다. 전 세계의 새는 29개 목 158과로 분류되며 총 8,600종에 이른다.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에는 372종(털새 48종, 철새 266종, 미조 90종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는 200여종 밖에는 관찰 되지 않는다고 한다.

새들의 아름다운 노래를 함께 알릴 수 없어 안타깝지만 황성에서 본 새들을 소개해 본다.

II. 황성에서 보는 새

황성에서 본 새를 모두 촬영하지는 못하였지만 10목 31과 45종의 새를 아래와 표와 같이 촬영하였다.

구분	기러기목	닭목	도요목	딱다구리목	매목	비둘기목	뺨꾸기목	참새목	피랑새목	황새목	계
수량	1	1	2	1	1	1	1	13	3	7	31
종	3	1	4	2	1	1	1	24	3	7	45

가. 기러기목 오리과

새 이름	구분	크기	서식처	생활형태	먹이	번식	비고
원앙	털새	46cm	하천, 저수지	무리, 쌍	열매, 씨앗, 물고기, 달팽이, 곤충, 거미	7~14개 알 낳고 28~30일간 포란	
흰뺨검둥오리	털새	60cm	하천, 저수지	무리	물풀, 씨앗, 어류, 달팽이, 곤충, 거미	7~12개 알 낳고 26일간 포란	
비오리	겨울철새	65cm	하천	쌍	물고기, 수서곤충, 갑각류, 개구리	9~10개 알 낳고 32~35일간 포란	

1. 원앙 (*Aix galericulata*)

암수가 다른 모습인 원앙은 겨울철새였으나 1960년대 이후부터 번식이 확인되었다. 번식기에는 고목이 있는 산간 하천에서, 겨울철에는 얼지 않은 강이나 저수지에서 집단으로 생활한다.

2005년 4월 중순경 수백리 저수지에서 이른 아침마다 백여 마리 원앙들이 울어대며 짝을 지어 헤엄치는 모습, 먹이활동, 짝짓기, 날아오르는 모습 등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해가 갈수록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2. 흰뺨검둥오리 (*Anas poeilorhyncha zonorhyncha*)

겨울철새였으나 1960년대 이후부터 번식이 확인되었다. 지금은 하천과 저수

지에서 사철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다. 흔히 청동오리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청동 오리는 보이지 않았다.

3. 비오리 (*Mergus merganser*)

흔한 겨울철새라지만 횡성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다. 최근 강원도 북부에서 번식이 확인 되었다고 한다. 금년 3월 중순경 섬강(읍하리)과 전천교 부근에서 두 마리가 헤엄치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암수가 달라 서로 다른 종으로 착각할 정도지만 항상 함께 빠르게 헤엄치며 먹이활동을 하는데 머리를 물속에 넣고 사냥하는 원앙이나 오리와 달리 수 십 초간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는 수면 다이빙 방식으로 사냥을 하였다. 워낙 빠르게 움직여서 촬영하기가 힘들었다.



[원앙] 2005.4.25 공근수백



[흰뺨검둥오리] 2005.4.25 횡성 덕천



[비오리] 2011.3.11 횡성 섬강

나. 닭목 평과

새 이름	구분	크기	서식처	생활 형태	먹이	번식	비고
꿩	털새	70cm	야산	쌍가족	나무열매, 풀씨, 곡식, 새싹	6~12개 알 낳고, 25일간 포란	

1. 꿩 (*Phasianus colchicus*)

흔하게 서식하는 털새로 대표적인 수렵조이다. 수컷은 장끼 암컷은 까투리로 부르는데 크기와 색깔이 아주 다르다. 우연히 운암정 부근 섬강 산책로에서 장끼를 만났다. 바위 위에서 화려한 자태로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니 당당하고 용감하지만 조심성이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장끼] 2011.5.7 횡성 섬강변

다. 도요목 도요과와 물떼새과

이름	구분	크기	서식처	생활형태	먹이	번식	비고
갯작도요	여름철새	20cm	하천	쌍, 단독	연체동물, 곤충, 지렁이, 거미	3~4개의 알을 낳음	
백백도요	겨울철새	23cm	습지, 하천	쌍, 단독		3~4개 알 낳고 20~23일간 포란	
꼬마물떼새	여름철새	16cm	하천 주변의 자갈밭, 모래밭	쌍, 단독	곤충	4개 알 낳고 24~25일간 포란	
흰목물떼새	나그네새	20cm		무리		4개 알 낳고 24일간 포란	

1. 갯작도요 (*Tringa hypolecos*)

봄과 가을에 이동 중 우리나라에 머물렀다 떠나는 나그네새로 4,5월 9,10월에 관찰 된다. 섬강 주변에서 자주 눈에 띄는데, 할미새처럼 땅 위에서는 항상 머리와 꼬리를 까딱거리며 위아래로 움직인다.

2. 백백도요 (*Tringa ochrop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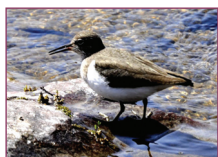
흔하지 않은 겨울새이자 나그네 새로 ‘뺍, 뺍’ 소리를 내면서 5~6m 거리를 지그재그로 날아오른 뒤 멀리 날아갔다가 대개는 한 시간 후에 다시 돌아온다. 9월 중순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이듬해 4,5월 까지 얕이 트인 물가에 내려앉아 먹이를 찾아 걸어 다니면서 쪼지를 까딱거린다. 줌처럼 사람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3. 꼬마물떼새 (*Charadrius dubius*)

이름처럼 작고 귀여운 꼬마물떼새와 흰목물떼새는 서로 비슷하게 생겨 구분하기 힘들지 만 종종걸음으로 부지런히 먹이를 찾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천적이 등지 가까이 오면 어미는 다친 것처럼 행동해 천적을 유인한다.

4. 흰목물떼새 (*Charadrius placid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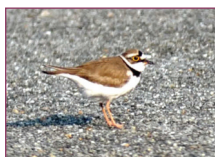
멸종 위기 2급으로 분류된 새로 섬강과 전천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갑작도요] 201 1.5.22



[백백도요] 201 1.4.25



[큰마물떼새] 2009.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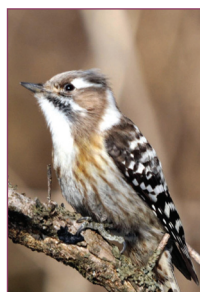
[흰목물떼새] 201 1.5.22

라. 딱다구리목 딱다구리과

새 이름	구분	크기	서식처	생활 형태	먹이	번식	비고
쇠딱다구리	텃새	15cm	삼림	단독	곤충, 거미, 다지류, 식물의 열매	5~7개 알 낳고 14일간 포란	
큰오색딱다구리		28cm				3~5개 알 낳고 15일간 포란	

1. 쇠딱다구리 (*Dendrocopos kiz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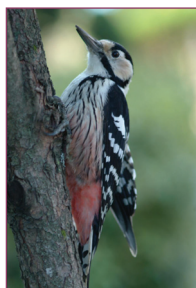
항상 산림속 나무 위에서 생활한다. 단단한 쫘지깃으로 몸을 지탱하여 나무줄기에 세로 앓거나 주위를 빙빙 돌면서 기어오른다. 나무줄기를 부리 끝으로 쪼아 구멍을 뚫고 긴 혀를 이용해서 곤충류의 애벌레를 잡아먹는다. 섬강 주변 산책길에서 흔하게 관찰되며, 죽은 나뭇가지에 굴을 파고 번식한다. 딱다구리과에서 가장 작은 종이다.



〈쇠딱다구리 2010.2.22 황성 섬강 주변〉

2. 큰오색딱다구리 (*Picoides leucotos*)

군청공원 숲에서 자주 관찰되었다. 활엽수림 속에서 부리 끝으로 나무줄기를 쪼아 구멍을 파고 긴 혀를 이용해서 그 속에 있는 곤충류의 애벌레를 잡아먹는다. 등지는 나무줄기에 구멍을 파서 직접 만든다.



〈큰오색딱다구리 2004.10.8 황성 공원〉

마. 매목 수리과, 비둘기목 비둘기과, 뺨꾸기목 두견새과

새 이름	구분	크기	서식처	생활 형태	먹이	번식	비고
말뚝가리(저광이)	겨울 철새	54cm	초원 야산	쌍, 단독	들쥐, 토끼, 두더지, 조류, 도마뱀, 파충류		
멧비둘기	텃새	30cm	삼림	쌍, 무리	씨앗, 열매, 곡식	2개의 알 낳고 16일간 포란	
뺨꾸기	여름 철새	35cm	삼림	쌍, 단독	곤충의 유충과 성충	1개의 알을 다른 새 동지에 낳음	

1. 말뚝가리 (*Buteo buteo*)

농경지 주변의 전신주나 높은 나무위에 앉아 먹이가 되는 작은 들쥐를 기다리거나 비행기처럼 하늘을 천천히 날면서 먹이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땅딸막한 체형으로 다른 수리과 새에 비해 느리게 움직이는 습성이 있다.



〈말뚝가리〉2010.220 공근수백

2. 멧비둘기 (*Trotopelia orientalis*)

연중 한 곳에 머무르며 이동성이 적다. 옆 목에 군청색과 검은색의 독특한 줄무늬가 있다. ‘구구 구구’ 하며 우는 울음소리가 특이하며 멀리까지 잘 들린다.



〈멧비둘기〉2009.54 공근상동

3. 삻꾸기 (*Cuculus canorus*)

삻꾸기의 생태 중 특이한 것은 탁란(다른 새둥지에 알을 몰래 낳아 새끼를 기르게 하는 짓)을 하는 것이다. 흔히 뱀새라고도 불리는 붉은머리오목눈이가 몇 배나 덩치가 큰 삻꾸기 새끼를 기르는 모습이 신기했다.



〈삻꾸기〉2009.69 황성공원

자-1. 참새목 까마귀과

새 이름	구분	크기	서식처	생활 형태	먹이	번식	비고
물까치	털새	37cm	물가주변의 삼림	쌍, 무리	씨앗, 열매, 곡식 곤충의 유충과 성충	6~9개 알 낳고 17~20일 포란	
어치(산까치)		39cm	삼림, 야산		도토리, 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물고기 등	4~6개 알 낳고 16~17일간 포란	
괘꼬리	여름철 새	26cm	야산, 농경지	쌍	곤충, 거미, 오디, 지렁이	3~4개 알 낳고 18~20일간 포란	

1. 물까치 (*Cyanopica cyana*)

겨울철에는 몇 십 마리 씩 무리지어 생활하지만 별로 관찰되지 않았다.

2. 어치 (*Garrulus glandarius*)

낮은 산에서 자주 보이는 어치는 .객객 ‘하는 특이한 울음소리가 인상적이다. 번

식기에는 산림 속에서 조용히 지내다가 번식 후에는 무리를 지어 평지로 내려온다.

3. 꾀꼬리 (*Oriolus chinensis*)

주로 활엽수림에서 생활하며 번식기에는 아름다운 울음소리를 내고 일정한 세력권을 가지는데 가까이 접근하면 요란한 소리로 경계음을 낸다. 개미를 잡아 개미산으로 털 속의 기생충을 퇴치하는 습성이 있다.



〈물까치〉2010, 5, 15 공근 어둔리



〈어차〉2010, 4, 8 황성 송지봉



〈꾀꼬리〉2009, 5, 13 황성 공원

자-2, 참새목 동고비과와 되새과

새 이름	구분	크기	서식처	생활 형태	먹이	번식	비고
동고비	털새	50cm	농경지, 개활지	쌍, 무리	양서류, 갑각류, 곤충, 물고기, 새의 알, 새끼 등	6~9개 알 낳고 15~16일간 포란	
방울새		37cm	물가주변의 삼림		씨앗, 열매, 곡식, 곤충의 유충과 성충	2~5개 알 낳고 12일간 포란	
밀화부리		39cm	삼림, 야산,		도토리, 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물고기 등	4~5개 알 낳음	

1. 동고비 (*Sitta europaea*)

낙엽활엽수림이 울창한 숲에서 나무줄기를 오르내리면서 먹이를 찾는다. 일 년 내내 일정한 장소에 머물며 세력권을 방위하고 경계할 때는 특유의 시끄러운 울음소리를 낸다. 딱따구리의 옛 구멍이나 인공새집 등에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는데 굴의 입구가 크면 천적을 막기 위해 진흙을 발라 몸에 맞추며, 잣과 같은 딱딱한 씨앗을 나무 틈에 끼워 깨기도 한다.



〈동고비〉2010, 3, 28 황성 송지봉

2. 방울새 (*Carduelis sinica*)

낮은 산지 숲이나 드문드문 나무가 자라는 탁 트인 농경지에서 번식하고 겨울에는 시골 마을 근처에서 큰 무리를 지어 사는 흔한 텃새이지만 보통은 20~30 마리씩 작은 무리를 이룬다. 번식기 때 수컷의 노래 소리가 방울소리처럼 들려 ‘방울새’라고 이름 붙은 이



〈방울새〉2011.4.18 황성 승지봉

새는 초등학교 때 부르던 “방울새야 방울새야, 쪼로롱 방울새야!” 라는 동요를 떠올리게 하여 상당히 친근한 느낌이 들었다. 금년 이른 봄 섬강테니스장 부근 농경지에서 수십 마리가 떼 지어 먹이 활동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3. 밀화부리 (*Eophona migratoria*)

한국의 야생 조류 중 노래 소리가 가장 아름답다는 찬사를 듣는 밀화부리는 밀납 같은 주둥이를 가져서 생긴 이름으로 많은 애조가들의 사랑을 받았다. 특히 옛날 평안도에서는 한 때 평양 기생들 간에 밀화부리를 기르는 것이 유행했다고 한다. 밀화(蜜花)



〈밀화부리〉2010.3.28 황성 공원

빛의 굵고 짧은 주둥이에 청명하고 명랑한 목소리, 거기다가 수수, 벼, 들깨 등 아무거나 잘 먹어서 인기가 좋았던 모양이다. (1955.6.5 경향신문 참조) 암컷도 울며 한국이 원산지이다. 군청 뒤 공원에서 자주 관찰할 수 있었다.

자-3. 참새목 딱새과

새 이름	구분	크기	서식처	생활태	먹이	번식	비고
딱새	텃새	14cm	마을 농경지, 산기슭 하천	쌍, 단독	거미, 곤충, 씨앗	5~7개 알 낳음	
붉은머리오목눈이		13cm	물가 주변의 삼림	무리		4~6개 알 낳음	

1. 딱새 (*Phoenicurus aureus*)

때 머리와 꼬리를 위 아래로 까딱거리며, 적이 다가가면 부리를 부딪쳐 ‘딱딱딱

딱' 하는 소리 때문 에 이름을 갖게 된 딱새는 세력권을 가지고 연중 같은 장소에서 생활한다. 새끼를 키울 때 암수가 함께 먹이를 물고와 수컷이 새 집 주위를 살피고 차례차례로 새끼에게 먹인다. 집주위로 청설모가 접근하자 쫓아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신기하였다.



〈딱새〉2009.46 공근상동리

2. 붉은머리오목눈이 (*Paradoxornis webbiana*)

우리나라 속담에 나오는 뱀새라는 다른 이름도 갖고 있는 붉은머리오목눈이는 수 십 마리가 냇가의 풀숲이나 관목림 속에서 콩 튀듯이 팔 튀듯이 때를 지어 다니며 아주 잠깐씩 머무르며 '씨이-씨이-씨이, 뻘-뻘-뻘-,찌르르 찌르르 찌르르' 등의 소리로 씨끄럽게 울어댄다.



〈붉은머리오목눈이〉2010.34 횡성 북찬리

자 - 4. 참새목 멧새과

새 이 름	털새	크 기	서 식 처	생활	먹 이	번 식	비 고
멧 새	털새	16cm	계곡,하천,습지,야산,덤불	쌍, 단독	열매, 씨앗, 곤충	3-4개 알을 낳고 11정도 포란	
노 랑 턱 멧 새		16cm				5-6개 알을 낳고 12~13일 간 포란	
속 새	겨울 철새	15cm	하천,호수주변의 잡목림	쌍, 무리		4-6개 알을 낳고 12~13일 간 포란	

1. 멧새 (*Emberiza cioides*)

높은 나뭇가지에 앉아 저 혼자 다양한 소리로 지저귀는 멧새는 아름다운 소리 때문에 시인들의 관심을 끌기도 한다.

2. 노랑턱멧새 (*Emberiza elegans*)

머리와 턱의 노란색이 유난히 눈에 잘 띄며, 느릅찌기라고도 불렀는데 옛날 시골 어린이들의 사냥표적이 되곤 했다. 비번식기에는 무리지어 생활하다가 번식

기가 되면 계곡이나 산림내로 잠적해 들어간다.

3. 쑥새 (*Emberiza rustica*)

흔한 겨울 철새로 참새와 비슷하다.



멧새 > 2010. 3. 4 황성 승지봉



노란턱멧새 > 2009. 4. 7 황성 승지봉



쑥새 > 2010. 1. 6 황성 · 곡

자 - 5, 참새목 박새과

새 이름	구분	크 기	서식처	생활 형태	먹 이	번 식	비 고
박 새	털새	14cm	도시, 농경지, 덩굴, 야산, 산림	쌍, 무리	거미, 곤충, 열매, 씨앗	6~10개 알을 낳고 12~13일 간 포란	
곤 출 박 이			야산이나 숲가장자리,	작은 무리		5~6개 알을 낳고 12~13일 간 포란	

1. 박새 (*Parus major*)

사철 언제 어디서나 아주 흔하게 보인다. ‘삐이-삐이-, 쓰-쓰-쓰-, 시치매 시치매, 즈르르르르’ 등 다양한 소리로 울어대는 박새는 먹이를 발가락사이로 끼우고 부리로 쪼아 먹기도 한다.



박새 > 20010. 3. 4 황성 북천리

2. 곤출박이 (*Parus varius varius*)

남는 먹이를 저장하며, 호기심이 많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산에서 먹이를 주면 가장 먼저 날아와 먹이를 먹고, 때로는 사람 손 위에 올라오기도 하는 곤출박이는 사찰 주변 처마 밑이나 건물의 안쪽에 둥지를 튼다.



곤출박이 > 2009. 5. 2 황성 북천리

자-6, 참새목 제비과, 종다리과, 직박구리과

새 이름	구분	크기	서식처	생활 형태	먹이	번식	비고
제비	여름철새	14cm	주택가,농경지	쌍,무리	곤충	5~6개 알을 낳고 16일 간 포란	
종다리		18cm	강가의 풀밭, 보리밭,밀밭	쌍	곤충,잡초	3~6개의 알을 낳음	
직박구리	털새	28cm	나무나 숲	무리	곤충,거미,꽃의 꿀,나무열매	4~5개 알을 낳고 13~14일 간 포란	

1. 제비 (*Hirundo rustica*)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를 생각나게 하는 제비도 개체수가 줄어 보기 드문 새가 되었다.



〈제비〉2009.5.28 공근수백리

2. 종다리 (*Alauda arvensis*)

이른 봄부터 짝을 찾기 위해 예쁜 노래를 부르는 종다리는 보호종이다, 번식기의 수컷은 텃세권에 서 수직으로 날아오른 뒤 날개를 심하게 퍼덕여서 한곳에 정지해 지저귀다가 다 지저귀고 나면 다시 내려앉는 행동을 한다



〈종다리〉2010.9.17횡성

3. 직박구리 (*Hypsipetes amaurotis*)

겨울철 이른 아침부터 아파트에 몰려와 빠잇 빠잇,빠비빃,뽡뽡,뽏뽏하고 씨끄럽게 소리를 내며 나무열매를 따먹는 직박구리를 보면 꼭 맞는 이름을 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어렸을 때 겨울이 돌아오면 시골에서 나무열매를 미끼로 직박구리를 잡아 잣불에 구워먹던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직박구리〉2007.12.26횡성 읍하리

자-7. 참새목 찌르레기과, 지빠귀과, 참새과

새 이름	구분	크기	서식처	생활 형태	먹이	번식	비고
찌르레기	여름철새	24cm	농경지나 인가 근처,공원	쌍,무리	곤충,지렁이,개구리, 달팽이, 들쥐, 열매	5~7개 알을 낳고 11~12일 간 포란	
노랑지빠귀 (개동지빠귀)	겨울철새		강가의 풀밭, 보리밭,밀밭	쌍	지렁이,거미,곤충, 작은 동물,열매,씨앗		
참새	털새	15cm	인가,농경지 주변,공원,정원	쌍,무리	씨앗이, 열매, 곡식, 번식기 때는 곤충	5~7개 알을 낳고 12일 간 포란	

1. 찌르레기 (*Strurnus cineraceus*)

볼에 큰 하얀 반점이 특징인 찌르레기는 울음소리에서 그 이름이 생겼으며 두 번 밖에는 관찰되지 않았다.

2. 노랑지빠귀 (*Turdus naumanni*)

이름은 자주 들었지만 멀리서 한 번 밖에는 관찰되지 않았다. 겨울철새가 5월초에 관찰되는 것이 이상하다.

3. 참새 (*Passer montanus*)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나 흔한 텃새이다. 옛날 시골에서 늦은 밤에 초가지붕에 손을 넣어 잠자는 참새를 잡던 일, 마당에 덧을 놓고 참새가 잡히기를 문구명으로 내다보며 기다리던 일, 가을이면 누렁계 익은 벼를 먹는 수 백마리의 참새 떼들을 욱하며, 위이 위이 쫓던 일 등이 생각나게 한다.



〈찌르레기〉2009.46 공근 부창리



〈노랑지빠귀〉2009.56 횡성 공원



〈참새〉2009.46 횡성 읍하리

자 - 8. 참새목 할미새과

새 이 름	구분	크 기	서식처	생활 형태	먹 이	번 식	비 고
알락할미새	여름 철새	18cm	강, 하천, 논, 농가의 도랑, 물가	쌍, 무리	곤충, 거미, 씨앗	3~5개 알을 낳음	
노랑할미새		20cm	강, 하천, 농경지			5개 알을 낳고 13~14일 간 포란	
검은등할미새	겨울 철새	21cm	강, 하천, 논, 농가의 도랑 등 물가			4~6개 알을 낳고 12~14일 간 포란	

1. 알락할미새 (*Motacilla alba*)

주로 땅바닥을 걸어 다니며 먹이를 찾고 멈추면 꼬리를 위아래로 심하게 까딱 거리는 모습이 할머니의 걷는 모습처럼 보인다 하여 이름을 갖게 된 할미새는 3

종이 관찰되었다. 이른 봄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알락할미새를 공근면 수백리 마을 창고 기와지붕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암수가 함께 새끼를 기르는 모습을 보았다. 열심히 먹이를 먹다가도 카메라만 꺼내면 용케 알고도망가는 다른 새와는 달리 별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날은 운 좋게도 재미있는 사진을 마음껏 촬영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2. 노랑할미새 (*Motacilla cinerea*)

냇가나 저수지 주변에서 생활한다.

3. 검은등할미새 (*Motacilla grandis*)

겨울철 냇가에서 가장 흔하게 보았던 검은등할미새는 암수가 함께 생활하는데 가까운 거리를 두고 먹이를 찾다가 거리가 멀어지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반가워하는 듯한 모습이 신기하였다.



〈알락할미새〉2010.45 공근수백



〈노랑할미새〉2011.45 횡성섬강



〈검은등할미새〉2009.45 횡성섬강

차. 파랑새목 물총새과, 파랑새과, 후투티과

새 이름	구분	크기	서식처	생활 형태	먹이	비고	비고
물총새	여름철새	17cm	계곡, 하천 호수	쌍, 무리	물고기, 올챙이, 새우 개구리, 수서곤충	5-7개 알을 낳고 약 20일 간 포란	
파랑새		30cm	농경지, 야산	쌍, 단독	곤충	3-5개 알을 낳고 22-23일 간 포란	
후투티		29cm	농경지, 하천	쌍, 단독	땅강아지, 곤충, 거미	5-8개 알을 낳고 16-19일 간 포란	

1. 물총새 (*Alcedo atthis*)

저수지 주변 독이나 개울가에 번식하는 흔한 여름새였으나 한때 농약을 마구 뿌려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사냥을 할 때 냇가나 연못가 망대(수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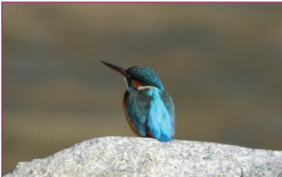
1~1.5m 높이의 나뭇가지나 바위에 자리를 잡고 땅을 보다가 수면에 물고기가 지나가면 다이빙 하듯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큰 부리로 민첩하게 잡아챈다.

2. 파랑새 (*Eurystomus orientalis*)

부끄럽지만 난 이사진을 찍어 파랑새인 것을 알기까지는 이 새가 존재한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 그저 '새야 새야, 파랑새야...' 라는 동요에나 나오는 전설의 새인 줄만 알았다. 알고 보니 파랑새는 우리 주위에서 언제나 마주치는 새였다. 60여년을 까마귀로 알고 지낸 것이다. 까마귀와 비슷하지만 좀 작은 파랑새는 부리와 발이 주황색을 띠며 날 때 밑에서 보면 앞날개 가운데 뚜렷한 하얀 무늬로 쉽게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후투티 (*Upupa epops*)

머리 꼭대기의 깃털이 유난히 크고 길어서 우관(羽冠)을 이루고 자유롭게 눕혔다 폈다 하는데 땅위에 내려 앉아 주위를 경계하거나 놀랐을 때는 곧게 선다.



〈물총새〉2010.4.11 황성,북찬리



〈파랑새〉2009.5.14공근수백리



〈후투티〉2011.3.11 황성 전천

카. 황새목 백로과 ①

새 이름	구분	크 기	서식처	생활 형태	먹 이	비 고	비 고
왜 가 리	여름 철새	99cm	하천,호수,농경지, 습지	무리	어류,소형척추동물	3~4개의 알을 낳고, 25~28일간 포란	
중대백로		90cm	하천,호수,농경지, 습지		어류,수서 무척추동물, 소형척추동물,거미,곤충		
황 로		51cm	강,호수,논,습지		어류,양서류,곤충	4개의 알을 낳음	

1. 왜가리 (*Ardea cinerea*)

황성에서 본새 중에서 가장 큰 새로 습지라면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다. 백로 무리 중에서 가장 먼저 번식지에 찾아와 다른 백로 류 무리와 혼성하여 매년 한 장소에서 집단 번식한다고 한다. 천적이 번식지 안으로 들어오면 일제히 날아올라 주변을 맴돌며, 가까이 접근하면 반쯤 소화된 먹이를 목구멍에서 토해내 악취를 풍기는 퇴치법을 쓴다고 한다.



〈왜가리〉2009.522 황성 북천리

2. 중대백로 (*Ardeo alba modesta*)

백로 무리 중에서 가장 흔한 중대백로는 여름철새이지만 일부는 남부지방에서 월동하기도 한다. 촬영을 위해 번식지(입석리)안에 들어갔을 때 악취와 오물세례를 받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중대백로〉2005.420 황성 입석리

3. 황로 (*Bubulcus ibis*)

백로 무리 중에서 가장 늦게 찾아오는 황로는 1960년대 들어 전남 해안에서 처음 번식을 시작하였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흔하게 보이는 여름철새이다. 번식이 끝나면 곤충을 잡아먹기 위해 목장에 모이는데, 소등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 이색적이다.



〈황로〉2009.522 황성 목계리

카. 황새목 백로과 ②

새 이 름	구분	크 기	서식처	생활 형태	먹 이	비 고	비 고
검은맹기해오라기	여름 철새	52cm	논, 개울가, 웅덩이, 못, 하천	단독, 쌍	작은 물고기, 개구리, 갑각류, 수서 곤충	4~5개의 알을 낳음	
쇠 백 로		61cm	하천, 호수, 농경지	무리	어류, 거미, 곤충, 여름	5~6개의 알을 낳고, 22~24일간 포란	
해오라기	털새	57cm	강하구, 호수, 하천, 습지	무리, 단독	어류, 양서류, 곤충	3~6개의 알을 낳고, 21~27일간 포란	

1. 검은뿔기해오라기 (*Butorides striatus*)

흔한 여름철새인 검은뿔기해오라기는 물이 흐르는 개울이나 하천 보에서 움직임이 없이 장시간 서 있다가 물고기를 뾰족한 부리로 잡는다. 다른 백로처럼 무리를 이루지 않고 단독으로 생활하는 것이 특징이다.

2. 쇠백로 (*Egretta garzetta*)

백로 중 가장 작은 쇠백로는 1960년대 까지 드물었으나 지금은 흔해진 여름철새로 일부는 우리나라에서 월동한다. 주로 얕은 개울가나 논에서 먹이를 찾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3. 해오라기 (*Nycticorax nycticorax*)

남극의 펭귄을 닮은 듯한 해오라기는 1990년대 까지 드문 새였으나 지금은 흔해진 여름철새로 일부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월동한다. 야행성으로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주로 활동하지만 낮에도 먹이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검은뿔기해오라기〉2011.5.23 전천



〈쇠백로〉2011.5.28 입석리



〈해오라기〉2011.5.28전천

III. 나가는 말

먼저 보잘것없는 새 사진을 공개하게 되어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좋은 장비를 갖추지 않고 열정만으로 덤벼든 새 촬영이 나에게서는 무리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새에 대해 새로운 것을 알게 된 것이 무척 보람 있고 유익한 일이었다.

새는 무리를 짓거나 단독으로 생활하다가도 번식기가 되면 쌍으로 생활하는데, 식물성 먹이를 먹던 새들도 곤충이나 거미 같은 동물성 먹이를 섭취하여 영양을 보충하고, 암수가 협력 하여 새끼를 보호하며 양육하는데 혼신을 다한다. 또 새끼를 기르는 동안 죽기 전에는 절대로 헤어지는 일도 없다하니 참으로 놀랍다. 하지만 남에게 의탁해 새끼를 기르는 꿩꾸기, 짝짓기가 끝나면 모든 육아를 암컷이 한다고 하는 부부금실의 상징 원앙의 이야기는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한다.

높은 나뭇가지 위에서 저 혼자 아름답게 자져귀던 멧새소리, 빛이 반짝이는 듯한 청아한 밀화부리의 울음소리, 새끼를 지키기 위한 딱새의 애절 한 몸부림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날이 갈수록 무엇이 원인인지는 잘 모르지만 산에 오를 때마다 이러한 새들의 모습이 사라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하지만 아름다운 금수강산에서 아름다운 새소리가 가득히 울려 퍼지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참고도서] 한국의 새 123. 서정화, 박종길. 신구문화사, 2010



우리시장 횡성시장 이야기



*장 태 증

횡성시장의 어제와 오늘

횡성시장은 수백년 전부터 이어 왔겠지만 120여년 전부터 정리가 되어 형성이 되었으며 우리시장을 주축으로 동대문 밖 제일 큰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81년에 현재의 슬라브 건물로 신축하였으며 지난 2002년 ~2003년에 약 27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한 후(전국최초) 전국재래시장 활성화 유형의 모범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전국 2,700여 재래시장중 처음으로 리모델링을 한 횡성시장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변했는지 잠시 기억을 하면서 기록을 해본다.

건축한 지가 약35년이상 된 노후건물의 정비는 안되어 있고 전선줄에는 거미줄이 쳐져있고 페인트는 벗겨져 흉물스럽고 물이 새는 곳은 손가락 숫자가 모자랄 정도이다. 필자가 조합장으로 일하던 2003년 전국 최초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시작되어 기초만 남기고 모두 바뀌게 된, 시장역사에 한페이지가 될 대목이라 잠시 소개해 보면 전기, 수도, 간판, 외벽, 점포 및 13개 종목의 리모델링이 이어진 횡성시장의 간판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바탕의 흰색은 횡성시장이 4.1만세운동의 본거지임을 강조하였고, 오른쪽 코스모스잎은 친환경적인 농촌



시장간판

마을이며, 밑쪽의 파란물결은 섬강을 뜻한다.

동서남북의 간판을 보면 동쪽은 파란색, 서쪽은 초록, 남쪽은 주홍, 북쪽은 적색, 바탕은 흰색으로 하여 오방색으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동서남북의 좋은 운을 그대로 시장으로 들여와 사업이 잘되며, 상인들은 건강하며, 이웃간 화목하고, 나날이 발전을 기원하는 뜻이 있으며 오방색중 흰색은 말그대로 백의 민족과 4.1만세운동의 두가지 뜻이 담겨 있다.

언뜻보면 지나칠 수 있는 간판이지만 숨어있는 뜻이 들어있으며 이 많은 자료와 뜻은 송호대학 박순정교수님께서 도움을 주셨다.

1차로 공사가 마무리되던 그때 황성을 순시하시던 前김진선도지사께서 다른 지역의 시장이 계획은 하고 하지못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주셔서 외벽에 스텐공사와 천막공사, 상가앞 진열대를 공동으로 제작하여 말끔히 정돈된 지금의 모습으로 탄생되었다.

동대문밖 제일 큰 시장으로 정평이 나 있는 황성시장은 교통의 요충지로 남쪽으로는 원주, 북쪽으로는 춘천, 동으로는 강릉을 두고 있으며 서울은 약 1시간 20분이 소요된다.

재래시장은 삶의 터전이었다

지금까지 내려온 황성재래시장은 어려서 부모님의 손을 잡고 분홍신도 얻어 신고 때때옷도 얻어 입고 온갖 정을 나누며 살아온 곳이며 지게와 손수레에 농산물을 싣고 장터에서 팔아 자녀들 학비를 벌어들였고, 뜰앞의 채소를 어머니께서 팔아 우리에게 용돈을 주셨던 부모님들의 고단한 삶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그대로 없어서는 안될 곳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필자는 옛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되살리고 찾아서 우리 황성시장이야기를 회상해 보고자 한다.

저자이야기

아직 동이 트기전인 4시 벌써 필자의 아버님은 상점 문을 여시느라 분주하신 것 같다. 밖에서는 저자를 보기위해 황성읍 인근지역(읍상리, 읍하리, 교항리, 조곡리, 가담리 등...)에서 텃밭에서 푸성귀를 전날 손질을 해서 이른새벽에 가져다 파는데 정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많이들 나올까 한다. (지금에 새벽시장...)

무, 배추, 상추, 약초, 또한 가을이 되면 머루다래 등 계절별로 다양한 상품들이 선을 보인다 주로 농산물이 많다.

저자꾼들은 저마다 좋은 자리를 앉기 위해 여기저기서 가벼운 실랑이가 오고 가며 언성도 높이고 하지만 그자체가 생활이 아닌가 한다.

5시 정도가 되면 저자세를 받으러 오는데 소쿠리, 합지 정도는 20원, 바닥을 깔아(1~2평) 놓을 정도면 50원을 받았다. 금액결정은 정수원의 몫이다.

시장의 상점문을 일찍 열어놓는 이유는 저자꾼들이 물건을 팔면 옷이나 신발, 양념류 등 필요한 물건을 사가기 때문인데 운이 좋은 날은 아침 저자에 하루 매상 반을 올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다.

1970년대 중반까지 상황을 이루다 점점 사라져 지금은 아침 늦게(10시) 열고 있는 몇 분이 명맥만 이어가고 있다. 지금처럼 냉장고가 흔치 않아서 일까 생각한다.



시장사진



저자거리사진

시장의 3가지 재미

횡성 재래시장에는 재미있는 것이 3가지가 있다.

물건을 흥정하며 밀고 당기는 재미, 값을 주인이 정했지만 에누리 할 수 있는 재미, 아무리 값을 깎았다 해도 주인장이 넉넉한 마음에서 주는 재미 있다.

이 세가지 흥정, 에누리, 덤이 있어 수백년 아니 그 이상 이어져나온 것이 아닐까 한다.

흥정을 하다보면 입담 좋은 아저씨의 구수한 농담과 에누리를 해주면서 전국에서 내가 제일 싸게 해준다고 하며 많이 깎았는데 이만큼 덤을 더 주는 것을 보면 시장의 정은 정말로 꾸밈한 선물일 것이다.

세월이 많이 변해 지금은 마트나 할인점을 많이 간다. 마트나 할인점은 정해놓은 값이 있지만 시장의 물건 값은 소비자 즉 사는 사람이 정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는 이유가 아닐까 한다.

첫손님은 왕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아침에 첫 손님이 팔아주는 『마수』 마수걸이라고 하는데 첫 판매한 돈을 튀하고 침을 문혀 이마에 붙이고 오늘 운수대박이라고 외쳐대곤 했다. 그래야만 장사가 잘된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첫손님은 여성과 안경 쓴 사람을 꺼려했고 최고로 대우받은 사람은 상가집 손님을 최고로 대우했다.

지금은 여성손님을 최고로 하는 것과는 사뭇 대조가 되는 대목이다.

5일장 이야기

횡성시장은 5일장과 어우러져 대성황을 이룬다.(1일,6일)

과연 동대문밖 제일 큰시장답게 정말 많은 사람과 다양한 물건들이 나온다.

점심때쯤되면 황성 명물인 촌떡, 올챙이국수, 보리밥, 메밀전 등을 막걸리와 함께 먹고나면, 세상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일 것이다. 항상 떠들썩한 것이 시장이다. 좋은 자리 다툼 때문에 늘 시끄럽다. 지금이나 예나 말이다.

시장이 파장이 될 때쯤이면 떨이라는 품목이 생긴다. 다 팔지 못할 물건을 싸게 파는 것을 떨이라고 한다. 생선, 채소 과일은 이때쯤이면 거의 반값에 살 수도 있어 운 좋은 일이 가끔씩 있기도하다.

떨이요 떨이!!

아침에 만원, 점심에 8천원, 하던 생선이 지금은 5천원어요.

싸요! 싸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입니다. 등 등.. 재미난 구호가 많다.

『집나간 남편 그리며 눈이 멀은 생선은 더 싸요』

참으로 정감이 가는 이야기들이다. 장날만 상업을 하는 사람을 장뚝뱅이라고 불렀다. 어떻게 들으면 천박스러워 보일수도 있으나 수백년 전부터 써왔던 거라 참고를 해주었으면 한다.

장터를 유심히 들여다 보면 보이지 않는 규율과 규칙이 있다.

어느장터든 지금에 출판장, 조반장, 총반장이 있어 전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에 규율은 군대 뺨칠 정도이며 총관리는 황성시장조합이 운영한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조직사회는 여기도 그렇다.

지금도 장날이면 어김없이 나오시는 톱날 갈아주는 할아버지(가담리 소재)는 약 45년정도 되신분이고 올챙이묵과 촌떡 파시는 분은 30년이 다 된 분들이다. 올챙이묵을 외지분들이 올챙이 가지고 만든 음식으로 생각하는데 옥수수를 반죽하여 바가지에 구멍을 뚫어 누르면 그 모양이 꼭 올챙이를 닮았다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침일찍 장을 보신분은 막걸리 특약점으로 막걸리 한 사발을 주-옥 들이키고 옆에 기본 안주인 굽은 소금을 한 두알 입에 털어 넣으면 그 짹짹함이 곳 안

주이다. 술독에서 박박 소리가 나면 대략 아침 7시쯤 된다.

지금에 세종병원자리에 백마옥이라는 식당이 있었다. 여기에 한 물지게에 5원씩 돈을 주고 물을 사용했다. 아마 이 물은 읍하리 예순물에서 길어왔던 것 같다.

양철로 된 물지게를 어깨에 지고 오면(양쪽으로) 도착할 때면 물은 반통이 조금 더 남았던 것 같다.

불과 40여년전 이야기인데 무척이나 옛날 때 일인 것 같은 느낌은 시대가 그만큼 빨리 변해서인 것일까? 한다.

옷을 판매하는 상인과 옷사는 손님의 대화이다. 외지분들은 잘 못 알아듣지만 지역분들은 아마 기억이나 빙그레 웃음이 나는 대목이다. 어디 한번 들어보자

손님

아저씨 입어보니 오티가 전수 커요 좀 짜그마한 것 없어요?

(아저씨 입어보니 옷이 모두 커요 좀 작은 것이 없나요?)

주인

오티는 약간 큰데 짜그마한 것은 없어요

-외상장부에도 괴정모텡(고개)이 뚱뚱한 아줌마 바지 1,200원

(괴정모텡이: 지금에 읍상1리 노인회관 부근 태우아파트 방향)



5일 장전경



장날 틈 아저씨사진

숲밖에 빨강 지붕집 아저씨 양말 ... 등 등

지역이름과 본인만 알아 보게끔 기록해 놓은 것도 지금보면 참 우스꽝스럽다.

시장의 지속과 환경의 변화

지금도 생각이 난다. 당시 리모델링 후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방문하셔서 인사말씀과 이명박대통령님이 前 서울시장 시절 시장기획단을 구성해 22명을 횡성시장에 보내와 안내와 설명을 했던 것이 기억난다. 또한 전국 400여 재래시장이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해가기도 하였다.

‘서울특별시에서 무엇이 부족해 5만 인구밖에 안되는 횡성군으로 보냈을까? 아마 그때시절 상인들 자부담이 30%해야 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을 횡성시장은 어떻게 해결을 했나’ 이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함인가 한다.

성공사례로 예시 20억공사 = 정부보조 14억 + 상인부담 6억(30%)

2005년 3월 청와대(노무현대통령)로 초청해 약 5분정도 브리핑 한 것도 생각난다. 오늘이 있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장은 이렇듯이 우리의 삶과 아버지, 어머니가 지켜왔고, 우리가 지켜나갈 그러한 곳이다. 왜냐하면 시장에 주인은 상인이 아닌 횡성군민이기 때문이다.

끝 맺음말

日本의 경우 약 10년 전부터 오래된 재래시장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그것은 똑같이 찍어내는 듯 한 것에 식상한 소비자는 다시 옛것이 그리워지는 것이다. 전통을 계승하고 뿌리를 되찾고 수천년 수백년 전부터 우리조상들이 생활터전으로 살아왔고 삶의 애환이 있는 곳, 재래시장이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다시 각광받는 날이 곧 올 것이다.

이제 우리도 옛것을 찾아 더 멀리 가야 할 것이다.

소 똥 차

러브모텔로가다



* 권용환

여기는 황성의 두메산골 하늘아래 첫동네 외딴 첫집이다.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로 온 종일 울어대는 물 맑고 공기 깨끗한 청정에 숲속마을 단막골이다. 사방으로 높은 산에 에워싸여 눌린 하늘은 구멍 난 들창만하여 솥뚜껑 하늘이다. 잣나무 숲속위에 소나무밭 위에 아주 위쪽에는 떡갈나무 잣나무들이 원시림을 이루고 있다. 나무들이 풀들이 먹다 뺨은 계속 도랑물은 가재와 버들치들도 너무 시려 감짝 감짝 놀라는 이끼도 못사는 돌들 사이로 피해 흐르는 일년내내 속살이 보이는 산뜻하고 손이 시린 참 깨끗한 기네스북에 기록될 청정! 청정! 청정에 물이 흐른다.

마당을 지나 산에 오르는 길목을 큰돌 셋이서 막아선 건널목이 빨래터이다. 이곳이 이집 아주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며 늘 머무는 곳이며 늘 일을 하는 곳이다.

오늘도 아침을 먹는둥 마는둥 하고는 무엇을 하려는지 공연히 서두는 모습이다. 따라와 옆에 앉은 강아지가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모습이다. 도랑물 돌에 올라 앉아 그릇 닦고 걸래빠는 뒷모습이 궁둥이가 예쁘고 허리가 가늘고 어깨가 좁아 보이며 사슴처럼 목이 길어 보인다. 이 아주머니의 이름은 이종숙이고 나이는 지난해 회갑잔치를 했으며, 6·25후 화전민으로 5년전에 세상떠난 남편과 결혼하여 이곳으로 이주하여 지금까지 살고있다. 아들 하나 딸하나 남매를 낳아 가난하게 키워 아들은 경기도 수원에서 살며 딸은

대전으로 시집가서 그런대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있다.

빈손으로 들어와 억척같이 벌어 버딩마을에 논 열마지기 와 오백평 텃밭과 미알밭 천평이 전 재산이다. 남편이 세상떠난 후 아들딸이 모시겠다고 오라고 하지만 이 논밭이 못 미더워 갈수 없어 한해 두해 살다보니 다섯해의 세월이 흘렀다. 식구들은 어미암소 열 마리, 송아지 세 마리, 개 두 마리, 닭 열 두마리가 전부이다. 그런데 건장한 남정네가 서슴없이 마당으로 들어선다. 모르는 사람 같으면 개 두 마리가 짖을만한데 오히려 꼬리를 흔들며 따라가는 모습이 늘 드나드는 사람이다. 도랑에 앉아있는 궁둥이가 예쁜 여인을 보더니 미소 지으며 지푸라기를 찾아들고 숨을 죽이고 가만가만 다가서더니 지푸라기로 콧가를 간지른다. 물 묻은 손으로 벌레인줄 알고 탁 잡아채고는 바쁜 손을 움직인다. 남정네는 재미있다는 듯이 소리 없이 입을 크게 벌려 웃으며 또 장난을 한다. 눈치챈 여인은 물을 움키며 물 그림자의 정체를 알아 챌듯 소녀처럼 부끄러워하며 살짝 일어나 반가움의 인사로 물 묻은 손을 약하게 슬쩍 뿌리며 미소로 다가선다.

『빨리 서둘러 내려갈 참인데~ 왜 오셨어요?』

『응~ 알았어요.』

개 두 마리가 왜 그리 좋아하는지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며 마당이 좁은듯이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는데 남정네는 우사 주위를 둘러보며 마른 짚을 던져주며 소 어깨 바디를 툭툭 친다. 여인은 걸레를 마루에 던지고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큰 사과하나를 쟁반위에 받쳐 들고 나온다. 마루에 걸터앉은 남정네 치마폭을 뒤로 훔쳐 앉은 사과 껍질 벗기는 여인이 한쪽의 그림 같은 아름다운 정이 가득 흐른다. 다 깠 사과를 통째 그냥 남정네에게 건넨다. 여인은 안 먹는다는 뜻이다. 남정네가 받아들더니 쟁반위에 칼로 반을 쪼개 여인에게 준다. 아무말 없이 눈이 마주친다. 여인이 맛있게 먹어야 남정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듯이…….

남정네는 이름이 박순집이다. 나이는 여인보다 두 살이 위다. 이는 여인네 뒷간 모퉁이를 지나 돌아가면 양지바른 천평밭에 우사를 짓고 소 오십두를 키우는 남정네로 흥천에서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다 퇴직하여 이곳에와 퇴직금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우사를 지어 황성한우를 사육하며 돈을 벌어들여 양으로 이곳으로 왔으며 부인이 폐가 약한 지병에 아토피 병 때문에 고생을 하다 건강을 위해 청정지역을 찾아 이곳으로 왔으나 부인은 지병으로 고생하다 삼년전에 세상을 떠났다.

살아생전에 처음 이사 와서는 이종숙여인과는 아주 친하게 지냈으며 혼자 몸이 불쌍하다고 어려운 일은 남편과 함께 많은 도움을 주며 살았다. 여인과 남정네 과부와 할아버가 되어 두집살림에 남자일은 할아버가 여자일은 과부가 서로 돕다보니 서로 고마운일 뿐이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믿음이 두터워지고 서로 정이 싹터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져서 동네 사람들도 인정하고 이해하며 그럴수도 있겠다. 하는 눈치들이었다. 그러나 아직은 무례히 선을 넘거나 이상한 짓을 요구하거나 한 일은 없으며 안방 벽에 걸어놓은 남편사진과 부인사진의 미소 짓는 얼굴을 쳐다보는데 마음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이 황성읍 장날이라 장을 보러 가는 날이다. 벌써 일년전부터 황성읍 장날은 무언의 약속이 되어 있어 남정네의 포터자동차를 타고 일주일 필요한 물건을 사고 병원도 들러 혈압약도 사고 또 재미있는 것은 맛있는 음식점에서 점심을 사먹는 일이다. 번갈아 돌아가며 점심을 대접하는 재미란 여간 재미있고 흥미 있는 일이다. 오늘은 오복장 중국집에서 탕수육과 기스면을 맛있게 먹고 커피를 마시며 여인네가 말한다.

『여기 잠깐 앉아주세요. 요 옆에 화장품 할인매장에 가서 화장품을 사야겠어요.』

『아니! 나도 같이가요. 남자는 못 들어가요!』

『아니! 그렇지않지만 좀...』

『자- 같이 갑시다.』

둘은 같이 화장품 할인점으로 들어갔다. 여인네가 화장품을 고르려는데 남정네가 주인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뭐라고 한다.

『값이 많이 나올거예요!』

『고급품질로 한세트 잘 싸세요!』

주인이 중간박스에 골고루 한참 담는다.

『아니 뭐예요. 아니예요. 몇가지만 살려고요!』

여인은 얼굴이 붉어지며 어쩔줄을 모른다.

『삼십이만사천원인데 삼십만원만 주세요!』

여인은 깜짝 놀란다.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평생 남정네에게 화장품 선물을 받아본 일이 없다. 세상떠난 남편은 봉건적사상이 농후한 여자의 존엄성이 아주 없는 이로 여자로서의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여인은 어쩔줄을 모른다. 남정네가 화장품 세트를 들고 할인점을 나온다. 여인도 따라 나올 수밖에 없었다. 둘은 아무 말이 없이 차있는 쪽으로 발길을 옮긴다. 뒤따라가는 여인은 공연히 가슴이 떨린다. 이것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거절할 용기와 힘이 솟아나질 않는다. 차에 둘이 타고 앉았는데 내 무릎에 화장품 세트를 올려놓는다. 남정네 손등이 여인의 다리위를 누른다.

『웬지 모르게 화장품을 사주고 싶은 생각이 확 들었어요. 제 마음이고 제 성의예요.』

다리를 누르는 손의 촉감이 전율이 흐르며 무슨 말을 해야할지 눈앞이 캄캄하다. 화장품 세트의 선물은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것인데...

『이게-! 웬 일인가?』

차에 발동을 걸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고마운일이 너무 많아서...』

『아니! 제가 더 고마운일이...』

여인은 캄캄한 방에 갇혀있는 것 같았다. 남정네 가슴속에 묻혀 있는 것 같았다. 남정네 쇠사슬에 매여있어 그물에 걸린 작은 새처럼 가슴만 벌렁이며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소녀가 되었다. 남정네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는지...

『오늘은 제가 하지는 대로 따라 오십시오...』

『저는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제부터 밤마다 상상했던 일이...!』

『그게 무슨 말씀이에...』

말끝을 흐리는데 소똥 냄새나는 포터차는 원주쪽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어느강가 모텔 뒷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여자는 문을 열고 내릴 힘이 없어 그냥 앉아있었다. 남정네가 문을 열고 손을 잡아끌었다. 화장품을 옆에놓고 끌려 내려갔다. 모텔은 오후에 고요를 누리며 두사람을 맞을 준비를 다하고 있었다.

『5호실을 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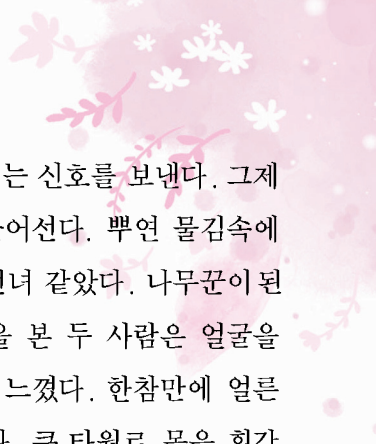
생전 처음 겪는 소녀와 소년은 좀 킁킁한 방에 쪼그리고 앉았다. 남정네가 허공을 바라보며 여인의 순정의 발을 침범할 수탉의 용기를 내지 못하고 망설임과 미안함과 후회의 한숨을 길게 쉬며 한탄의 기색을 보인다. 여인네의 눈빛은

『이 바보! 천치! 등신! 여기까지 와서는...』

하는것만 같다. 한참만에 여인네가 벌떡 일어나 걸옷을 훌훌 벗더니 목욕탕 문을 급하게 열고 들어간다. 탕에 물 받는 소리가 유난히도 크게 들린다.

『이 병신아! 빨리 들어와!』

하는 것만 같다. 한참만에 물 받는 소리가 없어졌다. 목욕탕문이 삐끔히 열



리더니 옷은 얼굴로 눈짓을 하며 손짓으로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낸다. 그제야 용기를 얻은 남정네는 옷을 벗고 목욕탕으로 들어선다. 뿌연 물김속에 여인네의 하얀 살결은 동화속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다. 나무꾼이 된 남정네는 황홀하고 즐겁기가 꿈만 같았다. 못볼것을 본 두 사람은 얼굴을 붉히며 비누칠의 미끄러움을 만끽하며 과감해짐을 느꼈다. 한참만에 얼른 탕속에서 일어난 여인네의 몸매가 어린 사람 같았다. 큰 타월로 몸을 휘감더니 수건으로 머리에 물을 털어내며 밖으로 나왔다. 요와 이불을 폈다. 여인네는 이불속으로 몸을 숨겼다. 남정네도 따라 나왔다. 이불속 보물을 찾아 들어갔다. 삼년이다 끓은 육체의 그리움을 만끽하는 무서운 침범은 황소 같았다. 여인네는 출렁이는 물결처럼 다 맡기고 말았다.

모텔 밖은 조용하다. 나무들 풀들 새들은 다 모르는척 평상시와 똑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다. 해가 서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두 사람은 모텔을 나와 주차장 포터 트럭으로 향하여 오고있다. 여인은 허리를 웅크리고 궁둥이를 뒤로 빼며 걸음걸이가 흔들린다. 남정네는 허둥대는 다리를 억지로 진정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인은 무슨 큰일을 해낸것 같은 당당한 모습이다. 자신만만히 차에 거뜬히 올라탄다.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운전석의 남정네를 바라본다. 강한 시선에 쫓기며 시동을 거니 한참 헛김이 새드니 발동이 걸렸다. 모텔을 나오며 남정네가 말을 건넨다.

『저녁을 먹고 들어가요. 기왕 늦었으니!』

『네! 그러세요!』

『돼지고기 편육을 먹으러 갑시다!』

『오늘은 왜 비싼 집엘 가려고 해요.』

『염려마세요. 제가 한턱내겠습니다.』

집에는 많은 소들과 개들이 종일 주인을 기다리며 저녁사료를 기다리고 있다. 늘 시간 맞추어주던 사료인데 오늘은 장엘 가더니 일찍 돌아오질 않는

다. 바람난 두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비싼 편육을 실컷 먹고 돌아오니 어두컴컴한 집들이 웅크리고 이들을 맞는다. 불빛과 차 엔진소리를 들은 개들이 막 뛰어나와 두 사람을 반긴다. 축사에 부엌에 방에 마루에 불을 환하게 켜다. 오늘은 유난히도 불이 밝고 기분이 날아갈것 같은 분위기이다. 두사람의 사건들을 알거나 한듯 개와 소들이 신이나서 들뜬다. 여인네는 개밥을 주고 남정네는 무거운 사료 푸대를 입을 벌려 소들에게 부어준다. 오늘은 평소보다 사료를 풍족하게 주었다.

『우리소 사료 때문에 내려가요!』

『기왕 늦은거 과일 잡수시고 가세요!』

남정네 줄 큰사과, 고급 김박힌 쉐베이와 따끈한 커피가 쟁반에서 춤을 춘다. 환한 전등 밑에 두 사람이 앉았다. 처음으로 스스럼없이 여인이 바삭 다가앉아 반은 안긴채 사과조각을 남정네 입에 넣어준다. 그리고는 거침없이 여인의 손이 허리춤 밑으로가 온몸을 맡긴다. 용감해진 여인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이 안난다. 그냥 이 몸은 당신 것이니까 이젠 맘대로 하라는 모습이다. 두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제일 행복한 황홀한 눈부신 기막힌 어지러운 하루였다. 장날은 기분좋은 날이다. 축복이 태풍이 밀어닥치는 날이다. 두 사람 사이엔 네것 내것이 없어졌다. 돈도 아깝지 않다.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나를 위해 있는것 같다. 피곤이 몰려온다. 자리에 누웠다.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나예요 잘자요! 좋은 꿈꾸세요! 굿 나이트-사랑해요!』

『.....』

멍하니 전화기를 떨어트리고 허공을...

벽에서 늘 웃고 미소 짓던 전남편이 오늘은 화가 난 얼굴이다. 무서운 얼굴로 나를 보고 있다. 나는 얼른 불을 껐다. 이불을 뒤집어썼다. 모텔의 방안 행동들이 영화의 장면처럼 흐르고 있었다.

『여보! 사랑해요!………!』

이불을 꼭 끌어 앉았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주도 관광을 떠나는 날이다. 이 동네 사람들이 일년내내 계형식의 돈을 내서 제주도 여행을 하는 것이다. 특별히 남정네와 같이 여행을 하게되어 더욱 설렘과 기쁨과 기대가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날 같은 기분이다. 소똥냄새 풍기며 포터트럭이 모텔을 다녀온 후 구름 위에서 춤추던 마음이 또 달나라를 향해 달려 갈 아름다운 무지개 관광이 될것 같다. 남정네와 여행가방을 채워가며 흥분됨을 내색 않고 다독이며 종일 하늘을 보고 미소 짓는다. 모양이 똑 같은 여행가방을 등에 지고 등산화신발과 청바지에 빨간 점퍼 그리고 벙거지 모자는 서울 멋쟁이 같다. 아침 여덟시에 출발할 큰 관광버스가 리사무소 마당에 우람하게 서있다. 우리는 아침을 먹는 등 마는 등하며 서둘러 도착하니 일곱시 반이었다. 그전 같은 소, 개, 닭들이 걱정이 되었는데 오늘은 아무 생각이 없다. 물론 아랫마을 청년에게 이십만원을 주기로 하고 두집 짐승을 맡기고 가는 것이지만…. 벌써와서 좌석을 잡은 이들이 있다. 우리는 두 내외인 것처럼 중간쯤에 한자리를 잡고 여행가방을 자리에 놓았다. 관광 여행때 마다 같은 자리에 앉아가던 친한 친구 은순이 엄마가 뒤에서 소리 지른다.

『이봐- 이리와 내가 여기다 자리잡아놨어-!』

나는 앞이 캄캄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하나 남정네와 같이 앉아야 됴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응?! 응! 나 오늘은 여기다 자리 잡았어!』

눈치를 챘는지 더 이상 강요하지 않는다.

『응! 알았어-!』

두 내외와 친한 사람끼리 자리를 다 잡았다. 한 사람이 안 왔다고 이장이

전화를 건다. 전화도 안 받는다며 안달섞인 불평을 한다. 여덟시가 넘어서야 출발한다며 이장님이 삼일간의 여정과 주의사항 참석자 성명이 적힌 종이 한 장씩을 나누어 준다. 버스가 움직인다. 웅성대며 떠드는 소리가 시끄럽기 까지 하며 웃는 소리가 여간 크지않다. 나는 남정네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미소 짓는다. 그리고는 눈으로 말한다.

‘여보세요! 두 내외처럼 갔다 옵시다!’

오늘따라 우리들이 제일 멋있어 보인다. 멋있는 여인들 같았다. 소녀와 소년 같았다. 환갑이 넘은 두 사람이 왜이리 철부지인가? 정은 사랑은 이성을 취하게 하며, 체면을 가리우는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끄럽고 창피한 것을 모른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린다. 기사보고 노래를 틀으라고 소리친다. 뽕짝리듬이 귀를 흔든다. 신명나는 음악에 여자들은 몸을 흔들고 통로로 나와 관광춤을 춘다. 몇사람은 벌써 술이 취해 비틀거리며 눈이 잔뜩 졸린 사람 같다. 서울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하여 칼호텔로 왔다. 방을 배정 받았다. 방하나에 네명씩 배정되었다.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방을 배정받았다. 짐을 방에 두고 방 키를 한사람이 책임지고 버스를 타고 오후 관광을 하였다. 바닷가 넓은 식당에서 저녁을 활어회로 매운탕으로 소주로 걸판지게 한바탕 먹었다.

『방은 몇 호실 이에요?』

『네! 505호실이에요!』

『우리는 609호실이에요!』

여자들은 5층에 남자들은 6층에 방을 배정했다. 호텔로 돌아왔다. 자유시간이다. 친한 사람끼리 노래방도가고 술집도가고 맥주집도가고 뽕뽕이 헤어져 즐기는 자유시간이다. 돈이 많은 사람은 즐기러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방에서 TV만 보다가 먹다 남은 과일 과자를 내놓고 먹고 피곤하며 잠을 자는 것이다. 나는 남정네의 계획을 기다리며 그분이 하는대로 따

르기로 했다. 핸드폰이 울리기만 기다리고 있다. 전화가 왔다. 일층로비로 나오라고 한다. 가보니 남정네와 노래잘하는 1반 반장 두내외와 술 잘먹고 욕 잘하고 성격이 남자 같은 과부댁 은순이 엄마가 서있었다. 나는 은순이 엄마를 보자마자 기분이 확 잡혔다. 늘 동네 행사때마다 술에 취해 우리 남정네를 괴롭히며 따라다니고 좋아하는 눈치였기 때문이다. 은순이 엄마는 벌써 낮에부터 술이 취해 말을 막하며 욕을하고 우리 남정네를 따라다니며 괴롭혔기 때문이다. 다섯이서 술파는 노래방을 가자는 것이다. 1반 반장이 돈 삼만원씩을 내라는 것이다. 남정네도 삼만원을 내며 내 눈치를 본다. 나도 남정네 따라 가야하니까 돈을 냈다. 택시기사에게 노래방집을 소개받았다. 다섯명이 놀수있는 큰방으로 주인이 안내했다. 좀 어색해 하며 들어가 쇼파에 앉았다. 샹들리에 불빛이 휘황하게 돌아가며 노래방 기기의 배경화면이 바닷가 나체들이 요염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뛰놀고 있었다. 젊은 여자 도우미가 맥주와 안주를 상에 차리며 나이 많은 손님임을 알고 시큰둥하는 모습이다. 은순이 엄마가 도우미에게 묻는다.

『이집에 소주는 안팔아요?』

『네 맥주와 양주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장 내외는 노래제목 책자만 뒤적이며 기기조작법을 도우미에게 묻는다. 기기에 번호판을 누르니 “있을 때 잘해!”가 뜬다. 전주가 요란하게 나오니 반장은 신나게 얼굴이 붉어지며 이상한 손짓 몸짓을 하며 노래를 부른다. 남정네가 맥주를 잔에 부으며 은순엄마에게 권한다. 그리고는 나에게도 잔을 권한다. 자기도 한잔 마시며 “에이 시원하다” 반장은 또 “울고 넘는 박달재”를 신나게 부른다. 반장님의 십팔번이 “울고 넘는 박달재”이다. 반장님이 우리 남정네에게 마이크를 주며 노래를 하라고 한다. 내 십팔번은 “빨간 구두 아가씨”입니다. 하니까 도우미가 찾아 번호를 누른다. 전주가 나왔다. 눈을 실눈을 하며 허리를 구부리며 이상한 발짓을 하며 요란하게 노래를 부

른다. 나도 같이 일어나 손뼉을 치며 같이 불렀다. 끝나자마자 광파르가 울리며 85점이 나왔다. 나는 눈앞에다 박수를 막 쳐주며 노래를 잘한다고 칭찬을 했다. 나에게 마이크가 왔다. 제 십팔번은 “앵두나무 처녀” 예요 하니카 도우미가 번호를 찾아 불러준다. 나도 큰소리로 신나게 불렀다. 남정네가 같이 춤을 추며 박수를 친다. 다음은 은순이 엄마차례여서 마이크를 주려는데 보이지를 않는다. 화장실을 간줄 알고 우리는 도우미에게 노래를 시켰다. “칠갑산”을 태진아보다 더 잘 부른다. 반장이 또 신나게 노래를 부른다. 은순이 엄마가 걱정이되어 화장실에 가서 찾았으나 없었다. 노래를 멈추고 맥주를 마시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은순이 엄마가 웃으며 들어온다. 그리고는 허리춤에서 소주 두병을 꺼내 놓는다.

『나는 소주 체질이야! 맥주는 배가불러 틀렸어요! 당신들은 맥주 드세요 나는 소주먹을테니!』

하며 맥주 컵에다 소주를 부어 마시고는 마이크를 잡더니 “나 혼자만의 사랑” 감정에 북받쳐 반은 울며 부른다. “산장의 여인”을 또 청송맞게 부른다. 그러더니 컵에 소주를 물먹듯이 들이켠다. 이어서 반장네 두 내외가 계속 노래를 부른다. 은순이 엄마가 남정네 옆에 붙어 앉아

『여봐요! 오늘밤은 나하고 놀시다!』

『당신도 혼자 몸이고 나도 혼자 몸이에요!』

『은순이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뭘! 어찌라고요!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외롭고 허전해서 못살겠어요!』

남정네에 손을 잡고 한손은 목을 감아쥐고는 흔들어댄다.

『돈! 자식! 다! 다! 필요 없어요!』

『은순이 어머니! 정신차리세요! 혼자사는 세상 다!- 그런거예요! 더 이상 취하시면 안돼요!』



『여보세요! 나는 더 먹어야돼요 취하지 않고는 못견디겠어요! 나는 당신이 좋아요! 정말 좋아요!』

나도 못 먹는 술에 맥주 석잔이 가슴이 두근거리며 조금은 취한듯하다. 그런데 웬지 노랫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는다. 확 소리를 지르고 싶다. 질투와 미움과 남정네가 확 뿌리치지 못하는 저 모습이 화가 치밀어 건딜 수가 없다. 남자라는 짐승은 이 여자 저 여자 다 좋아하는 수탉같은 짐승인가?

『나는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당신 나한테 이러지 말아요. 하며 탁 차고 일어나야지! 왜 같이 씨부렁대는거야!』

나와같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며 술도 마시며 나를위해 서비스를 해야지!

『이 병신아! 이 천치야! 이 못난 사람아! 이 딱한 사람아!』

나도 이젠 화가 치밀었다.

『여봐요! 술 더가져와요! 술이 없어요!』

도우미가 술과 안주를 듬뿍 들여온다. 나는 화가나서 맥주병을 남정네에게 들이댔다. 나도 마셨다. 그리고는 남정네를 잡아끌었다. 우리둘은 서로 붙어서 노래를 막 불렀다. “앵두나무 처녀”를 계속 불렀다. 남자는 “이별의 부산 정거장”을 계속 부른다. 지쳐서 남정네와 쇼파에 벌렁 쓰러졌다. 반장님이 이제 그만 가자고 한다. 남정네와 반장이 은순이 엄마를 양쪽에서 부축이며 삼층 계단을 허둥대며 비틀대며 내려온다. 택시를 불러 호텔로 왔다. 로비에서 반장 두 내외는 사라지고 남정네와 나와 은순이 엄마만 남았다. 우리는 오층으로 올라와 우리방 앞에서 노크를 하여 나는 방으로 들어왔다. 남정네가 은순이 엄마를 방에 데려다주고 간다고 했다. 나는 몸을 닦고 자리에 누웠다. 사랑은 질투를 동반하며 미움의 옷을 입고 불만과 원망의 그늘에서 회생을 먹고사는 것인가? 왜이리 은순이 엄마가 미워지는 것인가? 사랑은 하나이어야만 하는가? 잠이 오지를 않는다. 얼마 전 모텔에 갔던일이 자꾸

다가온다. 내일밤은 남정네와 같은 방에서 지새워야 한다. 내가 먼저 제안을 해야 할것 같다.

오늘은 본격적인 관광을 하는 날이다. 에코랜드에서 미니열차를 탔다. 식물원을 들렸다 일출랜드에서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서귀포에서 밀랍인형이 신기하기만 했다. 오후에는 마라도에서 저녁을 먹었다. 호텔로 돌아와 피곤하여 다들 누웠다. 나는 로비로 내려갔다. 남정네에게 전화를 했다.

『여기 로비에요. 내려오세요!』

남정네가 내려왔다. 정원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내가먼저 손을 꼭 잡았다. 얼굴을 안보고 별을 보았다. 그리고는 말했다.

『어제 밤 일이 묻고 싶은 것이 많은데 말하지 않을거예요!』

『.....?!』

『어젯밤에 자기전에 준비한 말 안할거예요』

『네! 말해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밤이 제주도에서 마지막 밤인데 우리 둘만이 있는 방을 마련해야.....!』

『이 호텔 위층에 방이 있을텐데...아마 십오만원은 내야 될거예요』

생각하면 정신 차리면 쌀이 한가마 값이고 한달 용돈의 액수이다.

『.....?!』

그제야 남정네의 얼굴을 뻘히 보았다. 나는 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네! 알았습니다. 돈을 안가지고 왔는데 제가 방에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했어요.』

『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며 이십만원을 손에 쥐어준다.

『.....?!』

들은 일어섰다. 로비 계산대에서 키를 받아든 남정네의 손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십층 삼호실은 조용하고 우리집 안방같이 친근함을 느꼈다. 며칠 전 모텔에서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나는 능수능란하여 숙달된 조교 같았다. 남정네의 목을 안으며 포옹을하고 옷의 단추를 풀었다. 순서에 따라 여자가 시키는 대로 했다. 모텔에서는 남정네 시키는 대로 했으나 오늘은 여인네가 시키는 대로 하니 밤이 아름답고 짧았다. 질투, 미움, 불안, 불평, 희생, 근심, 걱정 모든 것이 도가니의 씻물처럼 다 녹아 하나가 되고 말았다.

셋째날은 민속촌을 보고 똥돼지고기 점심을 하고 비행장으로 향하였다. 여인네가 면세점과 향토관을 돌더니 남정네가 먹을 보약 한박스를 산다. 아무 말 없이 소중히 다루며 여행가방속에 넣어 귀중품 다루듯한다. 그리고는 삼십만원을 가며이 건넨다. 남정네는 그제야 목걸이 코너에서 십오만원 을 주고 목걸이를 샀다. 가방속 깊은곳에 넣는 모습을 보는 여인네는 흐뭇해하며 좋아서 어쩔줄을 모른다. 정에는 사랑에는 남자는 늘 어수룩하며 여자보다는 모자라는 모습이다. 사랑과 정과 희생, 끈기, 인내는 여인의 향기며 고향이며 본질이며 뿌리인 것이다. 남자는 울컥했다가는 삭아들고 우람했다가는 숨어버리는 그리고는 크게 날개를 폈다가는 이내 접어버리는 것이 남자 인 것인가? 돌아오는 길은 어딘가 울적하고 쓸쓸하고 조용하고 서운하고 본연의 모습을 찾는것 같다. 미운 은순이 엄마도 조용하고 얌전해짐은 어떤 일이고-!? 마을에 버스가 도착했다. 마중 나온 자녀들 식구들이 반가이 선물보따리들을 받아들고 좋아하며 자기네 집으로 어둠속으로 사라진다. 집이 제일 먼 남정네와 나는 어둠속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웬지 기분이 참 좋았다. 새의 보금자리로 돌아온 것 같은 둘만의 공간으로 돌아온것 같은 어두운 밤길의 고마움이 있었다. 돌부리를 차도 넘어지지를 앓는다. 남정네에 몸을 실은 나는 소녀같은 미소가 어두움 속에서 크게 활개를 친다. 저만치

보이는 남정네 집을 지나 여인네 집에 도착했다. 강아지와 소들이 반가워야단들이다. 불을 켰다. 남정네는 소 우리를 돌아보고 짚을주며 점검한다. 여인네는 강아지 밥을 찾아주고는 이내 방으로 들어왔다. 남정네가 가방에서 목걸이를 꺼내 들고서서 여인이 다가오기를 기다린다. 여인이 남정네의 눈을 맞추며 다가선다. 걸어 잡그는 꼭지를 잡았다. 목에서 흔들리는 목걸이는 두 사람의 밀착된 가슴속에 숨막혀 질식하며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입술이 터질것만 같았다. 여인은 가방 속에서 보약을 꺼냈다. 건네주며

『건강하셔야되요! 병들어 쓰러지면 내가먼저 죽을거예요!』

『알았어요! 이것 먹으면 건강해질것 같아요.』

남정네는 보약을 들고 가방을 메고 집으로 향했다. 갑자기 조용해졌다. 고요가 흐른다. 뒷산 소나무 발에 바람소리, 물소리만 적막을 부수어 깨버린다. 나는 뒷목이 섬뜩함을 느꼈다. 전남편의 사진이 무섭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다.

‘나를 위해선 돈이 아까워 아무것도 못사더니…………!’

‘송아지 팔아 고생고생 모은 돈을 그놈을 위해 다 쓰고와-!!’

얼른 불을 켰다. 몹시 피곤하여 쓰러지고 말았다.

올해 여름은 비가 많이 왔다. 오늘도 장대비가 계속 쏟아진다. 일기예보는 오늘밤에는 폭우주의가 발령된다고 한다. 뉴스에서는 비로인해 피해가 계속 보도되며 특히 산사태 침수지역은 위험하다고 한다. 여인네는 사망단속을 하고 비설거지를 단단히 하고는 방으로 들어왔다. 어두워지자 비는 더욱 세차게 내리며 천둥이 무섭게 번쩍이며 바람도 불어 집이 날아갈것 같이 요란하다. 슬그머니 무서운 생각이 들고 겁이 났다. 불안하고 떨려 아들, 딸이 생각난다. TV를 크게 틀었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것 같았다. 인기척에 문을 여니

『나예요! 걱정이되서 올라왔어요!』

나는 너무 반가웠다. 구세주가 나타났다. 우산을 접으며 처마 밑으로 들어서는 남정네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반갑고 좋았다. 남정네가 소 우사를 둘러보고 들어왔다. 여인네는 냉장고에서 여름과일을 듬뿍 내놓으며 수박에 씨를 발려서 입에 넣어준다. 갑자기 전화가 왔다. 물 묻은 손으로 전화를 받는다. 딸한테서 전화가 왔다.

『그래 여기는 괜찮다. 아파트는 걱정없지!』

한참 수다를 떠다. 어머니를 생각하는건 그래도 딸이 제일이다. 늘 아들도 꼭 전화를 했는데 오늘은 전화가 없다. 이상하다. 멀리 출장을 간 모양이다. 며느리도 늘 전화를 했는데 오늘은 이상하다. 수박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는 남정네는 이집에 남자 주인인듯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느긋한 희망한 기분이다. 그런데 여인네는 분주히 부엌을 드나들며 무슨 큰 준비를 하는것 같다. 물수건과 마른수건을 세숫대야에 넉넉히 담아 윗목 문 앞에 놓더니 남정네 옆으로 다가가 누우며 다리 베개로 하여 팔은 허리를 감싼다. 천둥과 비바람은 점점 세차게 후려 때린다. 그러나 두사람은 아무 근심걱정이 없다. 무섭고 겁이 나던 이 밤이 남정네 하나로 행복한 즐거운 밤으로 변했다. 효자아들은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부인과 아들, 딸과 함께 어머니가 걱정이되어 횡성어머님께 가기로 했다. 오늘이 금요일, 내일 토요일, 모레는 일요일 주말을 어머님과 함께 보내기로 하여 늦었으나 집을떠나 여주에 도착하니 밤 11시이다. 여주휴게소에서 라면, 호두과자, 커피를 사먹고 빗길을 조심스럽게 떠난다. 여인네가 불을 켜다. 사진 때문이다. 선풍기와 인조 여름이불이 춤을 춘다. 킬킬거리고 중얼대며 여인의 떠드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아들은 횡성읍에 도착하여 수박을사며 곧 도착 할것을 알리려고 전화를 한다. 이상하게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 잠이 깊이 드신 모양이다. 여인네와 남정네는 천지가 뒤집히는 분위기인데 전화벨이 울린다. 전화를 받

을수가 없다. 다행히도 벨이 곧 멈추었다. 노인들의 긴 애무는 밤이 짧기만 하다. 비명과 용트림과 함께 마루 밑에 개가 짓는다. 곧이어 승용차 불빛이 집 전체를 환하게 비치며

‘뺑- 뺑- 뺑-’

자는 아들딸을 안고 끌고 마루로 들어서며

『어머니-! 어머니-! 저왔어요-』

며느리가 안방 문을 툭 열었다.

『ैया! 잠깐만 기다려라-』

깜깜한 방에 불을 켜는 며느리

『어머………』

마루로 뛰어나오는 며느리. 아들이 차에서 짐을 내리며 마루로 올라서려는데 부인이 뛰어나온다. 눈이 휘둥그레 털썩 주저앉는 며느리.

『왜 그래요! 왜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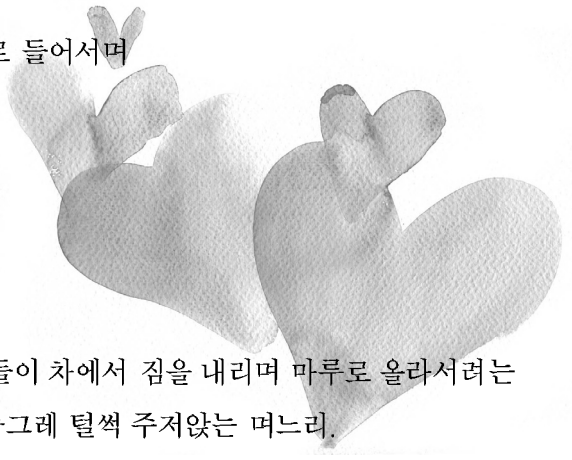
남편 입을 탁 틀어막는다. 방안에 남정네는 인조이불을 뒤집어쓰고 뒷문을 차고나가 부엌으로 해서 맨발로 빗줄기를 맞으며 벌거숭이가 어두운 밤길을 넘어지며 엎어지며 집으로 내려뿔다. 똥통에 빠진 강아지 모양을 한 남정네는 훑발로 그냥 안방으로 들어서 불을 켜다. 안방거울에 나타난 똥통에 빠진 미친놈은 불쌍하기가 기가 막히다. 벽에 걸린 죽은 부인이 빙그레 웃으며

『잘코망신-! 아이고 고소해! 고소해』

하는 것만 같았다.

『이 병신아! 이 천치야! 이 딱한사람아! 꼴볼견아-』

세상에 살다가 별일이 다 있구나. 얼굴이 뜨거워 은근히 화가 치민다. 목욕탕에서 몸을 씻은 후 옷을 찾아 입고는 여인네를 생각하니 한심하기 끝이 없다. “여인네여! 미안해요!-!!”



이 세상에 모든 일은 호사다마인가보다. 좋은일, 기쁜일, 행복한일만큼 나쁜일이 따라다니는 모양이다.

『허! 참! 허! 참! 내 세상에~!』

여인네는 옷을 휘감아 싸가지고 뒷방으로가 걸옷만 입었다. 아들, 며느리, 손자들은 윗목에 남정네 옷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멍하니 서있을 뿐이다. 흐트러진 머리, 몽그러진 입술, 험하니 그늘진 눈이며 피죜죜한 옷매무세는 똥통에서 나온 암탉 같았다.

『어머니! 저는 비가 너무 많이와서 걱정이 되어 갑자기 그냥 내려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아니다! 앉아라. 내가 이야기하마!』

여인네는 자초지종을 한참 털어놓았다. 일년전부터 같이 지내며 나한테 너무 고마운 분이시다.

『요 아랫집 박순집씨이다!』

『너희들이 나를 이해해주기 바란다.』

아들은 아무 말도 안하고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보더니

『어머니! 오늘은 그냥 가겠어요!』

아이들과 부인을 데리고 차를 타고 가고 말았다. 나는 아무 말을 못했다. 마루에 서서 혼자 울다가 방으로 들어갔다. 혼자 외롭게 살다가 남정네를 만나 정이 들어 육체의 길을 가려는데 왜 내가 나쁜 사람으로 추락하는가? 남정네와 소녀와 소년같은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이 왜 아들 며느리 앞에서는 더러운 것으로 무너져 내리는가? 전통적 유교문화와 서양의 물질만능문화가 서로의 갈등 속에서 어느것이 진실인지 진리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현대인의 비극인가? 전남편의 사진이 비웃으며 위로의 말을 한다. ‘세월이 흘러 죽으면 다 해결되며 다 이해되며 다 덧없고 허무하며 인생의 길이 조물주의 섭리 속에서 다스려져 가는거야! 염려하지 말아요. 아들, 며느리의

나이가 우리나라이 되면 다 이해하고 다 인간의 나약함을 알게 될거야-!?' 하는 것만 같다. 그렇지- 내가 아들, 며느리 앞에서 뭘 잘못했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왜? 내가 떳떳하지 못한가? 모든 짐승들이 나비들이, 벌레들이 아름다운 교미를 하며 종족을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아름다운 자연형상을 왜 죄로 단정하는가? 나도 즐겁게 살아갈 육체의 쾌락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그렇고말고 내일아침 태양 앞에서 나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 나는 남정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죄송해요!』

『예! 아니에요. 되레 제가 미안해요!』

『아니에요! 애들은 바로 올라갔어요! 저희 집으로 올라오세요!』

남정네를 또 불러올렸다. 비는 이런 일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쏟아진다. 야속한 비 때문에 이런일이 생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퍼붓는다. 남정네는 새옷을 갈아입고 새 장화를 꺼내신고 우산을 펼쳐들고 여인네 집으로 향한다. 여인네는 곱게 단장을 하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남정네가 빗물을 털고 들어서니 확 끌어안고 뜨거운 포옹을 한다. 그리고는 수줍은듯 뺨히 쳐다본다.

『우리는 잘못된것이 없어요! 아름다운 사랑이, 숨어있던 진실한 사랑이 들킨 것 뿐이에요!』

남정네를 살며시 앉히며 냉장고에서 시원한 수박을 꺼내 남정네를 준다. 남정네는 받아먹으며 암사슴 같은 예쁜 여인을 바라보며 흰히 밝아오는 문살을 내다본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여주휴게소로 들어온다. 피곤함을 달래며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부인에게 말한다.

『오면서 생각해보니 어머니께서 좋은 남자분을 만난것이 아닐까?』

『그런데 왜 당신은 아무 말 없이 떠나왔어요!』

『나도 모르게 배신감이 들었어요!』

며느리는 여자이기에 어머니편에서 깊이 생각하는 눈치이다.

『혼자되신 외로운 어머니를 이해 못하는 아들이 그게 효자 아들이에요!』

나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무슨 잘못을 했나 어머니에게는 그분이 고마운 분이 아닌가. 매일 비가오나 눈이오나 어려운 일마다, 힘든 일마다 다 도와주시는 그분을 나는 왜 미워하고 있는가. 내가 잘못된 일이다. 고맙다는 인사말을 해야지 왜 박차고 돌아왔는가?

『여보 다시 돌아갑시다. 빨리 돌아가 아침을 준비하여 두분을 잘 대접합니다. 자 빨리 갑시다!』

이들은 여주에서 다시 돌아 어머니 집으로 향하여 달린다. 도착해 들어서니 벌써 두분이 밥상을 마주하고 첫술을 남정네에게 들이대고 있다. 어머니는 또 깜짝 놀라 일어서며 손주를 앉고 들어온다. 벽에 사진이 빙긋이 웃으며 ‘그래 잘했다. 그래야 효자이지-!’ 하며 말하는것 같았다. 쏟아지던 비가 갑자기 그친다. 앞산 소나무숲 위에 뭉게구름이 하얗게 피어오른다. 동쪽 하늘에 보기 드문 큰 무지개가 떴다. 온 식구들이 큰 무지개를 보며 아주 기쁜 좋은일이 있을것 같은 기분이다.

『어머니! 밥이 모자라요! 제가 밥을 또 할게요-!』

부엌으로 들어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너무나 예쁘다. 이내 맑은 하늘에서는 찬란한 햇빛이 하늘아래 첫동네 첫집을 영롱하게 비치고 있었다.

우리고장옛지명 「갈풍역」 葛 豊 驛

갈풍역(葛豊驛)은 현재 황성읍 갈풍리 (옛 : 청용면 갈풍리)에 있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는 옛지명이다.



*윤 만 복

갈풍리란 이름은 이 마을 뒷산에 칙(葛)이 많다(豊)고 해서 갈풍리라고 하였으며 이곳이 예전에는 원주로 넘나드는 길목이었는데 조선시대에 갈풍역(葛豊驛)이 있었다고 한다.

갈풍역은 신증 동국여지승람(제46권 강원도 황성현편)에 보면 현(縣)에서 서쪽으로 6리에 위치하고 있다. 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고 다만,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지금도 갈풍리 앞으로는 섬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데 예전에는 가을이 되면 가담1리, 2리, 입석리, 갈풍리 4개마을이 협동으로 긴 섯다리를 놓고 겨울에 갈풍리 뒷산에서 땀나무를 채취해 나르거나 이곳 갈풍역을 지나는 과객이나 세인들이 물에 빠지지 않고 이 다리로 왕래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 선생님이 금강산(金剛山)을 가는길에 이곳 횡천(橫川 : 고려말, 조선초기 옛 황성의 지명)의 갈풍역(葛豊驛)을 지나다 산천모습이 예나 이제나 같다며 풍경에 흥취 되어 지은 시(詩)가 운곡시사(耘谷詩史) 1144수중 몇수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過葛豐驛(과갈풍역)

策馬悠悠過葛豐 (책마유유과갈풍)
 山川形勢古今同 (산천형세고금동)
 人稀境靜江邊路 (인희경정강변로)
 躑躅千層映水紅 (척촉천층영수홍)

갈풍역을 지나면서

말을 채찍질하며 유유히 갈풍역을 지나노라니
 산천 모습은 예나 이제나 같구나.
 사람 드물어 고요한 강가 길에는
 철쭉꽃만 층층이 물에 붉게 비치네.

過葛豐驛(과갈풍역)

過盡長僑首屢回 (과진장교수루회)
 滿懷春思浩難裁 (만회춘사호난재)
 水邊細草飛黃蝶 (수변세초비황접)
 樹樹開花隔岸開 (수수개화격안개)

갈풍역을 지나면서

긴 다리 다 건너뒤에 자주 돌아 보네.
 가슴 가득한 봄날의 흥취를 어쩔 줄 모르겠네.
 물가 풀밭엔 노랑나비 춤추고
 두 언덕 나무마다 꽃이 피었네.



(신묘삼월). 向金剛山到橫川 (향금강산도횡천)

草軟花紅千里春 (초연화홍천리춘)

垂鞭信馬出城蘭 (수편신마출성린)

行行漸近花田境 (행행점근화전경)

頻向樵蘇問友人 (빈향초소문우인)



1351년(신묘)3월, 금강산(金剛山) 가는 길에 횡천(橫川)에 이르러

풀 보드랍고 꽃 붉어 천리가 봄이기에
채찍 내리고 말 가는 대로 성문을 나섰네.
가고 또 가다가 화전(花田) 땅에 가까워져
나무꾼 만날 적마다 친구 소식을 자주 묻네.



宿橫川(숙횡천)

旅館寥寥一夜遙 (여관요요일야요)

夢尋蓬島渡雲橋 (몽심봉도도운교)

覺來忽見東窓白 (각래홀견동창백)

半破水輪掛樹梢 (반파빙륜괘수초)



횡천(橫川)에 묵으면서

여관이 고즈넉해 하루 밤이 길더니
꿈길에 봉래섬 찾아 구름다리를 건넜네.
잠씩 놀라 깨어보니 동창(東窓)이 밝고
반쯤 깨진 달이 나무 가지에 걸렸네.



※ 지은이/ 원천석(元天錫, 1330충숙왕 17 ~ ?)

고려말 조선초의 학자·문인

자는 지정(子正), 호는 운곡(耘谷), 원주(原州) 아전총의 후손으로 중부





갈풍리마을회관



갈풍리 마을전경 · 강변

시령(宗簿寺令)을 지낸 윤적(允迪)의 아들이다. 문장과 학문으로 경향간(京鄕間)에 이름을 날렸으나, 출세를 단념한 채 한 번도 관계(官界)에 나가지 않고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생을 은사(隱士)로 지냈다. 군적(軍績)에 등록될 처지가 되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 진사(進士)에 합격했다. 그는 이방원(뒤의 태종)의 스승을 지낸 적이 있어 태종이 즉위 후 여러 차례 불렀으나 나가지 않았고, 치악산에 있는 그의 집으로 친히 찾아와도 자리를 피했다.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나서야 백의(白衣)를 입고 서울로 와 태종을 만났다고 한다. 비록 향촌에 있었으나 여말선초의 격변하는 시국을 개탄하며 현실을 증언하려 했다. 만년에 야사(野史)를 저술해 궤 속에 넣은 뒤 남에게 보이지 않고 가묘(家廟)에 보관하도록 유언을 남겼다. 증손대에 와서 사당에 시사(時祀)를 지낸 뒤 궤를 열어 그 글을 읽어보았는데, 멸족(滅族)의 화를 가져올 것이라 하여 불태웠다고 한다.

문집으로는 <운곡시사 耘谷詩史>가 전한다. 이 문집은 왕조 교체기의 역사적 사실과 그에 관한 소감 등을 1,000수가 넘는 시로 읊은 것으로 제목도 '시사(詩史)라 했다. 야사는 없어졌으나 이 시가 하나의 증언으로 남아 있어 후세의 사가들은 모두 원천석의 증언을 따랐다.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로 시작하는 고려왕조를 회고하는 시조 1수가 전한다.

치악산 자락에 새겨진 충신의 마음

-고려말 충신 윤곡 원천석 선생 유적지-



*황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윤병철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 고장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과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지역의 문화와 문화재 그리고 관광지를 소개하고 해설하는 지역 문화관광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봉사자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황성군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면서 우리군 문화유산중 강림면 지역의 문화관광해설 스토리텔링 사례를 소개한다.

안녕하세요. 황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윤병철입니다. 먼저, 우리고장 황성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내에 앞서 황성군 소개를 간략히 하겠습니다.

우리 황성군은 명품 황성한우와 황성더덕 그리고 안흥찐빵으로 유명한 고장이면서, 예로부터 애국의 고장으로 충신과 의병,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특히 강원도내 최초의 만세운동이 시작된 유서깊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곳 동치악산 자락에 알알이 스며있는 고려말의 충신 윤곡 원천석 선생의 유적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천석 선생은 고려때 좌명공신 금지광록대부 문하시중평장사를 역임한 원경(元鏡)의 19대 손이며 충숙왕 17년에 증부사령을 지낸 윤적(允迪)의 둘째 아들로 원주원씨의 중시조입니다.

고려의 멸망과 조선조 태조의 왕가 형제간의 왕권을 둘러싼 살육에 통탄하며 분노를 느낀 나머지 관직을 거부하고, 개성을 떠나 황성군 강림에 은거하였습니

다. 원천석 선생은 고려왕정 복고를 위하여 반기를 든 두문동(杜門洞) 72인의 한사람이었으며, 원주시 행구동에 그의 묘소가 있고, 칠봉서원에 배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강림면에는 원천석 선생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많은 유적과 함께 구전되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스며있습니다. 이를 태종대, 노구소, 횡지암, 변암, 누출재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스승을 찾은 제자의 마음이 서려있는 — 태종대(太宗臺)

이방원이 조선조 3대임금인 태종으로 등극하여 왕위에 오르기 전에 스승으로 섬겼던 원천석 선생을 찾아 다시 관직에 앉히고 정사를 의논하고자 강림을 찾았으나, 원천석 선생은 태종이 오는 것을 미리알고 태종과의 만남을 꺼려 피신하여 치악산으로 들어가면서 개울에서 빨래하는 노파에게 자신의 행선지를 거짓으로 알리고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태종이 이곳에 도착하여 빨래하는 노파에게 원천석 선생의 간 곳을 물었으나 노파는 선생이 일러 준대로 거짓으로 가르쳐 주었고, 태종은 그곳으로 가서 스승을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바위에서 기다리다 스승이 자신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돌아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후 태종이 스승을 기다리며 머물렀다 하여 이곳을 ‘태종대’라 하였으며, 주필대(駐蹕臺)라는 비석을 세워 누각안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태종대는 현재 문화재자료 16호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습니다.



2 임금을 숙인 노파의 속죄 — ‘노구소(老媪沼)’

강림면 강림2리에 위치한 ‘노구소’는 원천석 선생이 태종의 행차를 미리 알고



(노구소)



(노구사당)

강가에서 빨래하던 노구(老嫗)에게 손님이 와서 나의 간 곳을 묻거든 이 강물을 따라 갔다 고 대답하라고 부탁하고, 사실은 은거하던 산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노구는 원천석 선생이 부탁한대로 태종에게 대답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태종의 거동이라 임금을 속였음을 알고 그대로 강물에 투신 자살하였다하여 이곳을 '구연(媼淵)' 또는 '노구소'라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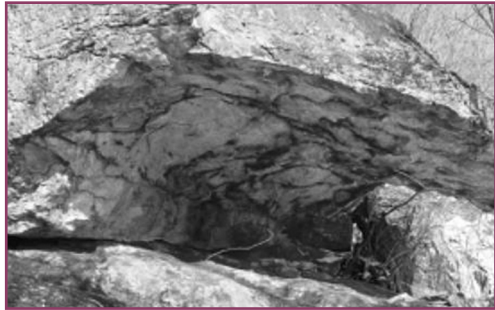
그후2005년에 횡성군에서 노구소 옆에 노구사당을 짓고 사당 안에 노구의 영정을 모셔놓았고 강림면에서는 매년한번씩 10월21일에 제를올려 노구할미에 충절을 기리고 혼을 위로하는 위령제를지역에 번영과 안녕을 겸해서 하고있습니다.

3 바위에 깃든 충신의 마음 — '횡지암(橫指岩)

강림면 부곡리에 위치한 '횡지암'은 '노구소'에서 올라와 '태종대'를 지나서 서북쪽 산골짜기에 있는 곳으로 '노구'가 원천석 선생이 변암으로 가신 줄 알면서 이쪽을 가리켰다고 하여 '횡지암'이라고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이야기로 태종이 원천석을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간 후 제자인 태종이 포악무도하게 정권을 탈취한 것은 자신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한탄한데서 유래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4 충신의 기개 — ‘변암(弁岩) 또는 고깔바위

강림면 부곡리에 있는 ‘변암’은 원천석 선생이 은둔생활을 하였다고 전해지는 굴바위입니다. 부곡리 치악산 기슭 비로봉 정상에서 동남쪽으로 300m쯤 아래에 있는데 생긴 모습이 고깔처럼 생겼다고 하여 ‘변암’이라 불리어 지고 있으며, 바위 아래에는 수십명이 앉을 수 있을만큼 넓고, 그 옆에는 돌우물이 있어 사시사철 물이 끊이지 않았고, 선생은 이곳에 온돌을 만들고 고사리와 나무 열매로 식사를 대신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변암 안쪽 벽면에는 한자로 ‘변암(弁岩)’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고, 바깥 벽면에는 시구(時句)와 함께 선생의 은둔생활을 짐작케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변암 - 고깔바위)

5 충신의 은둔 — ‘누출재(陋拙齋)

누출재는 강림면 부곡리에 있으며, 변암에서 약 350m지점인 해발 800여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변암으로 오르는 길목 작은 산등성이에 「운곡원선생유지(耘谷元先生遺址)」로 표시된 표석이 있는데, 수백년이 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이곳을 「누출재지(陋拙齋址)」라고 부르고 있으나, 이 비석 동쪽 구릉으로 50-60m 지점에 1.5평 정도의 정방형 움막이 있어 이곳이 누출재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온돌형식과 화장실터가 남아 있고 움막 앞뒤에 텃밭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출재)

※ 누출재 : 누추하고 졸렬한 집 이라는 뜻으로 선생이 지은 이름이라고함.

⑥ 그 외 구전되는 이야기 - '원통골', '수레너미', 배향산

부곡매표소에서 고둔치에 이르는 계곡길에 있는 두 번째 골짜기를 원통골이라 부릅니다. 원통골은 태종이 스승인 원천석을 찾아가다 만나지 못하고 허탕을 치자 스승을 모시고 가지 못함을 원통해 했다고 해서 원통골이라 불린다고 구전되는 곳입니다.

또한 '수레너미'는 태종이 원천석을 만나러 오면서 수레를 타고 넘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배향산'은 태종이 원천석 선생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제자된 도리로 스승이 계신곳을 향해 향배하였다하여 배향산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원천석 선생의 역사유적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스승을 찾는 제자의 마음과 제자라 하더라도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충신의 마음이 곳곳에 배어있는 우리고장 강림면에서 역사의 숨결과 함께 노구할미의 속깊은 마음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고 가슴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V. 지역문화 학습정보

*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학습 | 조원용

* 학교란 무엇인가? | 원용길

* 횡성을 예절의 고장으로 | 김인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학습



1. 평생학습도시의 정의

* 황성군교육발전위원회 위원장 | 조원웅

평생학습도시란

“사회통합과 번영, 개인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의 학습자원을 동원하여 개인의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도시(Norman Worth 1999) 지역사회의 통합과 활성화 경제발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의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하는 도시”로 정의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평생학습도시를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운동”으로

그리고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간 연계, 지역사회간 연계, 국가간 연계시킴으로써 네트워크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역사회교육 운동이다” 라고 했다

2. 평생학습도시의 필요성

평생학습도시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도시로, 시민 모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면적 책임을 질 능력을 가진 도시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평생학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만인을 위한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도시의 교육자원을 최대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의 모든 자원을 생산적 파트너십을 형성시켜야 하며, 개인의 자아실현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학습의 필요를 발견하고 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 제공기관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처럼 군민은 누구나 학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소득수준의 향상은 군민의 여가활동을 증진시켜 주며 여기는 곧 학습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3. 횡성군의 평생학습도시

우리군도 위와 같은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민들의 평생 학습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법제도적인 장치인 관련 조례와 기구개설(평생교육담당)을 통한 시설·인력을 확충하고, 평생학습기관을 연대하여 통합운영하고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았다

우리군은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증진은 평생학습 활성화의 불안요인인 ‘군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부족과 관 주도의 평생교육사업 운영’ 등의 문제해결에 두었다

첫 번째로, 평생학습관련 인적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지역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를 선도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평생교육사)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과 시민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지역의 평생교육기관·단체들과 함께 나섰다. 먼저 인적자원의 확충과 군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위탁교육생을 선발하여 전문기관에 의뢰 하여 부군수를 비롯한 10여명의 평생교육사를 양성하였고, 또한, 년 5회 이상의 평생교육 전문연수를 통해 평생학습 마을지도자, 강사, 학습 동아리 리더를 양성하였고 양성된 평생학습리더들은 우리 지역 곳곳에서 “평생

학습이란 무엇인가, 평생학습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군민들과 소통하면서, 생활속 평생학습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선도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군민 주도의 평생학습이 자생력을 갖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군은 이들 인적자원의 정보 네트워크 강화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평생학습 축제,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의 평생교육 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자원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두 번째로,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나서고 있다, 우선 지역산업의 기반인 축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우명인만들기”, “농업아카데미”, 그리고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정규학업을 받지 못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문해교육”,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군민들에게 폭넓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이외에도 다양한 군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30여개의 우수프로그램, 15여개의 학습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황성평생학습축제(2008-)·읍·면 주민자치 발표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프로그램과 행사들은 시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개선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군의 노력과 군민의 참여에 힘입어 황성군은 타 평생학습도시에 비해 짧은 기간동안 비약적인 발전과 성과를 이루었지만, 이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많은 부분이 지원되고 있어 아직까지는 하드웨어 인프라 기반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4. 황성군의 발전과제

향후 평생학습도시 황성의 새로운 5년은 지역의 평생교육 활동 터전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물적 인프라의 구축에 좀더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첫째로, 평생학습관을 신축하여 각 프로그램 및 인적네트 워크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축이 필요하다.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교육장과 동아리방, 학습자료실, 컴퓨터, 발표무대 등의 활동터전을 안정적으

로 제공해야 된다.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다면 평생학습관을 공유활용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둘째로 평생교육은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군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만큼, 이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과감한 예산투자 뒷받침이 필요하다. 읍·면자치센터 및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유사한 프로그램은 통합운영하고 신규프로그램은 예산지원을 통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평생교육지도자 양성을 통하여 교육의 질 및 평생학습 분위기 고조에 앞장서야 한다. 각급 기관장은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와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군민들의 배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며 아울러, 평생학습지도자를 양성하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관내 평생교육사 자격(강사자격)을 가진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토론 및 학습체계를 갖추고 정기적 강좌교실을 만



들어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새로운 인식으로 군민들이 평생학습에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해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매년 발표의 장으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 간 배운 내용을 축제를 통하여 교류하고 발표하는 장으로 성과에 대한 자기만족과 참여에 대한 학습을 축제를 통하여 배우고 있다. 보다 많은 군민이 배움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그것은 축제의 성격을 다양화하고 예산지원을 통하여 학습의 질이 군민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해야 한다.

5. 평생학습도시 황성 수상내역

1) 제7회 전국평생학습축제 (2008년 순천)

생애별전국평생학습동아리 경연대회
성인부문 - 어사매풍물패 대상수상



2) 제9회 전국평생학습축제 (2010년 대구 동구)

생애별전국평생학습동아리 경연대회 성인부문
필리핀 결혼이민자 동아리 “펼” 특별상(평생교육진흥원장상) 수상



3) 제10회 전국평생학습축제(2011년 경기 이천시)

생애별전국평생학습동아리 경연대회 어르신부문

우리춤 우리가락 문화나눔봉사단 특별상 (평생교육진흥원장상) 수상

6. 평생학습 일반현황

1) 축제현황

회차	기 간	홍보체험관	공연팀	주요내용
1회	2008.6.17~19	60개 기관/단체 87개 부스	35팀	○평생학습심포지엄(1,2부) ○서화대전 ○청소년문화축제 등
2회	2009.6.17~19	57개 기관/단체 72개 부스	32팀	○문해백일장 ○평생학습심포지엄 ○청소년문화축제 ○서화대전
3회	2010.6.18~19	68개 기관/단체 78개 부스	29팀	○문해백일장 ○평생학습노래경연대회 ○청소년문화축제 ○서화대전 ○러닝-샵
4회	2011.9.29~30	52개 기관/단체 90개 부스	30팀	○문해백일장 ○청소년문화축제 ○서화대전 ○러닝-샵 책잔치한마당 횡성과학썩큰잔치

2) 평생학습기관 · 시설 프로그램현황

연번	기관 시설명	프로그램수	기타
계		314	
1	횡성읍주민자치위원회	11	
2	우천면주민자치위원회	5	
3	안흥면주민자치위원회	5	
4	둔내면주민자치위원회	14	
5	갑천면주민자치위원회	16	
6	청일면주민자치위원회	17	
7	공근면주민자치위원회	9	
8	서원면주민자치위원회	5	
9	강림면주민자치위원회	6	
10	행복만들기 상담소	4	
11	횡성광제사	1	
12	횡성군 축산과(한우명인만들기)	1	
13	송호대학평생교육원	8	
14	횡성지역아동센터	3	
15	민족사관고등학교평생교육원	3	
16	영농조합주말농장귀농	5	
17	둔내노인대학	5	
18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18	
1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	
20	섬강노인복지센터	16	
21	횡성노인복지센터	4	
22	(사)대한노인회횡성군지회	1	
23	횡성성남영어체험센터	2	
24	횡성교육청	16	
25	횡성여성농업인센터	6	
26	횡성도서관	11	
27	횡성고른기회배움터(5읍면)	45	
28	고른기회배움터(공근여성대상)	1	
29	횡성군생활체육회	7	
30	횡성군노인복지대학	14	
31	횡성문화원	10	
32	강원도농아인협회횡성군지부	7	
33	여성회관	29	

7. 맺음말

횡성문화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책자에 횡성의 평생학습에대한 원고부탁을 받고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나를 고민하다가 그간 횡성에서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 일선에서 음으로 양으로 기여해온 평생교육사들과 함께 많은 토의와 협의를 거치고 도움을 받아 현 실태와 현황, 문제점, 발전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전자에도 기술한 바 있지만 평생학습은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배움의 연속이며 곧 그것이 군민들의 삶의 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기관단체장의 관심과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평생학습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평생학습관을 허브역할로 통합운영과 21세기에 걸 맞는 프로그램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386세대 이전은 학습자는 먹고 살기 급급한 시대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습에 대한 욕구가 단순했지만 소득이 높아지면서 여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학습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을 군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는 민선시대 군민의 다양한 욕구의 표출을 충족시켜 배움을 통하여 사회통합과 번영, 개인성장을 촉진시켜 지방자치가 군민과 함께 발전하면서 하나되기를 기대합니다.



* 황성초등학교장 | 원용길

1. 학교교육의 기본방향은?

1. 교육의 의미

교육은 사람을 가르쳐 키우는 일이다. 그러니 교육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교육적 존재임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사람은 교육될 수 있고 교육에 의해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전제가 교육이라는 말 속에 자리 잡고 있다.

2. 교육의 본질

첫째, 원래 교육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다. 더구나 교육수준과 사회적 출세정도는 반드시 정비례할 필요도 없다. 학문이라는 것은 원래 그 자체가 좋고 보람이 있어서 그냥 할 뿐이지 어떤 모양이든 대가(목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둘째, 교사가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통제와 안내를 하면서 이끌고 간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을 방해받게 된다. 반면 교사의 안내와 지도가 부족하면 학생들은 그 자신의 길을 밝히는데 어려움을 갖는다.

셋째, 개인의 획일적인 단결력보다는 다양한 개성과 창조성이 신장되어야 한다. 교육적 존재로서의 인간성에 대한 신뢰, 특히 다양한 개성과 창조적 기능성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교육의 일차적 관심은 대인관계, 인성, 적성, 창의성, 협동심, 태도, 인생철학 등 전체적인 사람의 됨됨이에 관련된 인간의 내면성의 변혁에 있다. 졸업장, 학교간판, 학

력수준, 점수 등에 우선 관심을 갖는 것은 형식을 중요시하는 입장이다.

3. 학교교육의 본질

첫째, 학교교육 기능의 사회적 의미라고 하는 학교교육의 본질은 사회적 요구와 필요, 나아가서는 책임과 관련되는 의미이다. 모든 학교교육은 기존의 사회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학교는 그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임을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조직인 셈이다.

둘째,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 역할과 관련된다. 사회문화체제를 지속하고 전승하기 위한 학교교육은 사회내의 다른 교육기능들보다 조직의 구성, 교육내용과 실천, 경영의 효율성 등에서 탁월해야 한다.

셋째, 강자가 승리하고 약자가 패배하는 진화론적 생존경쟁의 논리와 질서를 옹호하지 확신하는 제국주의적 속성을 갖고 있다. 실제적으로 사회적 강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화하는 것을 학교교육의 사회적 기능인 것처럼 사회화, 문화화 등의 개념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되어 왔다.

4. 교육의 발전과제

교육발전의 핵심과제는 경쟁사회에서의 학교교육에 대한 수단론 쪽의 지배적인 생각을 교육의 본질론 쪽으로의 교정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최우선 과제는 우리 모두의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 즉 교원, 학부모, 교육행정가, 교육학자, 교육관련 구성원 모두의 교육에 대한 시각이 본질적으로 올바로 잡혀질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일 것이다.

II. 학교교육 변화의 방향은?

1. 학교교육 변화의 의미

교육체제는 사회의 경제, 정치, 문화 및 이념적인 측면으로부터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다. 학교교육 변화의 직접적인 계기는 기존교육의 위기를 해소하려는 데 있지

만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를 설계하여 교육의 발전과 쇄신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점점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2. 학교교육 변화의 기본방향

학교교육 변화 자체는 교육이 아니라 정치이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학교교육 변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이어야 한다. 빨리빨리에서 천천히, 치밀하게 학교교육 변화의 기반과 체제 구축을 통한 학교교육 변화가 필요하다.

3. 학교교육 변화의 과제

학교교육 변화는 교실변화를 거쳐 사회변화에까지 이어져야 한다.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여 지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 시각에서의 학교교육 변화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민의 교육열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국민의 교육열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커다란 자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잘못된 것은 교육열 자체가 아니라 교육열의 뻘뻘어진 모습일 뿐이다.

둘째, 교육 관련 집단들이 학교교육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학교교육 변화의 목적은 이들 교육 관련 집단들이 따라 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그 때에야 비로소 의미가 있고 성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교육비는 어떻게 줄이고 일부는 공교육비로 유도하고 학교에 누적되는 투자로 남겨둘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넷째, 학교교육 변화는 국가에서 할 일과 민간부문의 자율규제에 맡겨야 할 일을 구분하는 일부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작업은 학교교육 변화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며 교육의 자율성을 높이는 일이며 교육계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다섯째, 새로운 학교교육 변화는 학생의 복지, 학생의 권리,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쪽으로 개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학문풍토가 개선되지 않고는 국가의 장래는 어둡다. 학문의 토착화를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대학이 외래이론이나 전달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III. 학교교육 무엇이 소중한가?

1.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발전적 논의

가. 가치관의 변화

주관주의적이고 거시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시각에서 보면 인간은 누구나 무겁든 가볍든 한 가지 이상의 결점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고 그러한 결점은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엄격히 구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장애를 느끼는 사람의 문제를 그 사람 자신에게만 돌릴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확대하여 생각할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런 모든 장애를 보는 관점이 긍정적으로 바뀔 때 우리 사회의 편견과 갈등도 불식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나. 교육관의 현실

① 교훈적인 교육

유대인 엄마들은 내성적인 아이가 되지 않도록 말하는 습관을 길러준다. 유대인에게 ‘얌전하다’는 말은 ‘공부할 수 없다’란 말과 동의어로 쓰인다. 때문에 유대인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자꾸 질문을 하게 가르친다. 그러나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아이가 학교에 갈 때 ‘오늘도 얌전하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오너라’ 하고 당부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견이 금기시 되는 풍토에선 한석봉의 어머니처럼 교훈만 줄 뿐 아이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함께 공감을 나누지는 못할 것이다.

② 한 줄서기 교육

우리 교육은 한 줄서기를 즐긴다. 입시는 물론이고 아침조회에서부터, 복도통행, 학교 급식, 특별실 이동, 현장체험학습 가는 길 그리고 아이들의 장래 희망까지도 모두 한 줄서기다. 그래서 무엇이 시작되기만 하면 무조건 된다. 넘어지고 또 다쳐서 병원 가고, 학교가 어떻게 학생을 지도하기에 매일 사고가 나느냐는 질책이 따른다. 그래서 더욱 줄서기를 철저히 하려고 무진 애를 쓴다. 결국 학교생활에서 줄의 이탈은 금기다. 남과 다를 수 있는 것이 더 손쉽고 그것이 서로 조화되기도 쉬운 일이 아닐지 생각해 볼 일이다.

3 책임회피 교육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향해 말세라고 했고 아버지는 나에게, 나는 요즈음의 청소년을 보고다시.....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역사는 변해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아마 기성세대가 자기의 가치관이나 도덕기준을 고집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변화에 대한 거부 반응일 것이다. 자식세대들이 지지르는 잘못된 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세대에 있다고 탄식하거나 혹독하게 비판만 하는 기성세대들의 태도가 문제다. 거울 없이 얼굴을 비출 수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다. 미래지향적 학교교육과정

누구나 경쟁이란 개념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낙오자가 될 수 있겠지만 협력이란 개념에서는 가장 좋은 참여자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각기 다른 사람이 그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여 공동의 목표성취에 기여한 협동적 작업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동의 목표 성취를 위하여 개인에게 역할 부여를 효율적으로 할 때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

1) 나로부터(분화)

가 나만의 스타일

우리 학생들은 저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자신의 큰 꿈을 키워간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저마다의 '스타일'이다.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종합하여 생활 전반에 적용하는 원리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스타일이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부도 마찬가지다. 물론 휴식을 취하는 것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학생들은 머릿속에 항상 미래의 자신에 대한 모델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자신의 경험을 이 모델에 맞게 정렬해야 한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앞으로 자신의 행복한 삶의 결정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나 나만의 목표 세우기

세상에 많은 기회와 선택의 길이 열려 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먼저 자기 자신을 설득할 수 있어야만 한다. 모든 것은 자신이 선택하고, 행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공부는 놀이다, 독서도 놀이다, 일도 마찬가지다, 놀이터에서는 즐겁게, 신나게 놀아야 한다.”라는 공식을 항상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자신만의 독특한 목표를 세워 도전해야 한다.

2) 함께 하는(융합)

공존지수(NQ)를 높이면 개인 경쟁력도 높아지고, 신뢰도도 따라서 올라가고, 다른 친구들이 함께 하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하루 종일 돌아다닌 적이 있는가? 이렇게 입장을 바꿔보면 그동안 생각지 못한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된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한 결정은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고 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이끌어 내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2. 조화의 학교문화

㉠ 조화의 필요성

오늘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 내일의 사회를 열어갈 수 없음을 자명한 일이다. 이제 우리는 미래의 삶에 대비하기 위한 학교문화를 이루어야 한다. 오늘의 교육이 결코 종래와 같은 마음가짐과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와같은 현실에서 보다 바람직한 학교교육 문화 형성을 위해 지역교육공동체의 협력을 통한 조화의 학교문화 형성은 더 없이 중요한 일이다.

㉡ 서로 다른 시각의 보완

세상엔 남자도 여자도 다 있어야 한다. 하늘과 땅,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로 내려다보면 모든 것이 구별되고 차이가 나고 좋고 싫고 그르고 옳고.... 그러나 위로 올려다보면 그 모든 것들이 넓은 지평의 아래로 잠겨 버린다. 현실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상도 중요하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 시각을 다 필요로 한다. 그때 비로소 서로 다른 시각이 상보적 관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발전에 있어서의 핵심 과제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의 최우선 과제는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서로 다른 시각의 보완을 통한 보다 넓은 지평의 구축에 있다.

㉢ 절대적인 것의 존재

동계올림픽하면 온 국민이 동계올림픽으로, 방과후 교육하면 모든 학교가 방과후교

육으로, 조기교육 하면 모든 학부모가 조기교육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어찌된 일인지 모두가 쉽게 하나 되는 것 같다. 하나 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그것이 필요할 경우가 따로 있을 것이다. 다양한 개개의 목표가 하나 된 경우 그 목표가 모두에게 타당한 목적일 경우는 하나 되는 것이 당연하다. 다양화에 근거한 하나일 테니까. 그러나 동계올림픽, 조기교육 기타 등등의 대부분의 일상사는 그것이 모두의 이상은 아니다. 자기 자율성을 잃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어느 한 면만 보아서 그것의 단점을 또는 장점을 찾아낼 수 없다. 모든 것은 양면이 있기에 상대적이고 비교가 가능하다. 그야말로 절대적인 이상(진리)이 현존할 수 있을 것인가?

㉠ 나쁜 것의 존재 이유

죽은 생물체를 정화하는 데는 세균의 번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균은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병원체로서 생각하는 그 역기능적인 역할과는 대조적이다. 순기능과 역기능의 두 측면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작용되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생태계에서 먹이연쇄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불필요하고 역기능을 한다고 판단되는 과정의 생물이 멸종된다면 생태계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결과는 바로 우리 자신의 생존에 관계된다. 일상 우리가 부정적인 대상으로 판단되는 것들도 필연성에 의해 존재한다. 그것들 모두가 다 존재할 필요성을 갖고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나쁜 것도 상당히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다. 어차피 존재하는 것은 그 자체의 필연성일 것이다.

㉡ 양극의 조화

서로 양립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양자의 조화에 문제가 있는 것일 거다. 하나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 하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코 하나만 중요하거나 전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조화가 중요하다.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면서 생산적인 비판과 포용만이 상호 보완적인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런 사고의 전환이 가장 빠른 바람직한 학교교육 변화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사고의 방향 전환(A→B)			
대 상		태 도	
무시된 대상	추구하는 대상	버려야 할 태도(A)	추구할 태도(B)
아이 만들기	아이 기르기	구세대 비난	구세대 존중
선발관	발달관	과거 척결	은고이지신
교사 중심	학생 중심	세대 교체	세대 수용(보존)
획일화	다양화	상호 분리	상호 통합
중앙집권	학교 자율성	자기 중심주의	상호보완 주의
전문점	백화점		

가령 획일화와 다양화에 대한 기능의 장점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획일화는 무조건 나쁜 것이니까 버리고 다양화로 변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획일화는 다양화의 모체인 셈이다. 획일화의 경험이 다양화를 부른 것이다. 결국 획일화의 효과 + 다양화의 효과 + 두 가지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날 교육에서 문제가 되었다고 해서 그 모두를 부정하고 그것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 변화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교육은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교사 중심이 문제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학생 중심으로 가는 것이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IV. 학교교육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

학교교육 변화를 위한 전략으로서 학교는 신뢰와 불변의 목표를 가지고 지역교육공동체의 역할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따라서 학교교육활동 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추진 내용과 방법에 대한 이해와 대안 탐색 및 정보공유,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적 추진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1. 교육리더의 역할 변화

코비 박사는 3천5백개 기업체를 조사한 결과 경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경영진에 대한 불신’을 첫손에 꼽았다. 코비박사는 조직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라며 신뢰가 쌓이면 커뮤니케이션은 저절로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성공적인 학교교육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 불변의 목표를 반드시 세우고 다음 4가지 역할을 적극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 모델링(Modeling)

목표를 세운 뒤 리더가 맨 먼저 할 일은 모델링(Modeling)이다. 이 역할은 그저 예(例), 모델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받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실하고 근면하고 겸손하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꼭 닮는다. 열심히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만 보

여주어도 자식교육을 위한 부모의 할 일을 다한 셈이다.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아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는 그것을 몸소 실현하려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나. 길 찾기(Pathfinding)

이 단계에서는 구성원 모두의 요구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는 비전과 관련한 역할, 즉 구성원 각자의 임무가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인지, 또 성취하려는 바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역할이다. 구성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가치들 안에서 어떻게 전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배로 멀리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비행기로 신속히 이동할 것인지, 아니면 기차로 특정한 곳을 거쳐 여유로운 길을 택할 것인지를 구성원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어찌되었든 목표를 향한 방향성을 확인해야 한다.

다. 한방향 정렬(Aligning)

다음은 길을 찾은 뒤 '방향키'를 돌리는 단계다. 비전과 임무, 가치를 규정했다면, 그것들이 조직 내의 모든 구조와 체계에 확실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제도화되지 않은 가치는 가치가 되지 못한다. 리더의 가치체계가 조직의 구조와 정책에 의해 진정으로 구현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참여를 얻을 수 있다. 이제 리더는 더 이상 개별적인 한 개인의 도덕적 권위에 의존하지 않는다. 목표를 향한 방향성에 맞도록 조직의 모든 구조와 체계를 한방향으로 정렬해야 한다. 하드와 소프트웨어 모든 부분의 정렬을 의미한다.

라. 권한 부여하기(Empowering)

마지막은 조직원의 잠재력을 극대화 하는 단계로 리더가 모델링 단계에서 술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고 구성원에게 재량권을 많이 주면 잠재력은 저절로 실현된다.

리더는 정말 사람들의 앞길에서 비켜서야 한다. 도덕에 집중할 필요도 없고, 절차에 집중할 필요도 없다. 그 대신 비전과 가치에 집중하면서 사람들이 지닌 엄청난 창의성과 재능, 기략, 지능에 물꼬를 띄워 목적을 성취하도록 도와야 한다. 적어도 이제는 여행의 목적을 이해할 때다. 내가 없어도 우리 조직은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시기이다.

2. 지역교육공동체의 역할 변화

우선 학교교육 변화를 위한 지역교육공동체의 역할 방향은 무엇보다 실천적 합리성을 중시한 행동이어야 한다. 특히 교육은 가치 지향적이기 때문에 교원들의 가치를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지역교육공동체의 역할 합리성을 확보하여 바람직한 신뢰문화 형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 합리성의 바탕위에 학교교육 변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학교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지역교육공동체의 지속적인 조력자의 역할이다.

특히 중요한 점은 교육은 인간이 존재하는 삶의 양식 중의 하나라는 교육과정 시각의 공유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현상 중에서 교육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을 개념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지역교육공동체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교육학적 내용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공감자로서의 역할이다.

교육학적 내용지식은 일반교양 지식, 교과 지식, 교육학 지식의 단순한 결합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이다. 이것은 노련한 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부가적인 지식과 기술을 포함한다. 이에 관련된 지식이 지역교육공동체와 공유는 물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전천후 교사상을 위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이다.

현직 교사연수를 통한 교수·학습방법 실천과정에서의 장애요인들을 교사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천후 교사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례로 탐구수업이나 자기주도적 학습력 제고를 위한 수업을 잘 해야 할 교사의 동기요인이 지역교육공동체의 선발적 교육관으로 인한 장애가 크다. 이런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패널토의 등 토론문화형성을 통한 지속적인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넷째, 지역교육공동체는 학교교육 관련 조직구성원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이다.

학사일정은 물론 교육과정 개발과 학교평가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교육정보를 학교교육 관련 조직구성원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학교교육정보 전달자의 역할이다.

다섯째, 신뢰의 문화 형성자로서의 역할이다.

슈마허(Schumacher)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 고 했다. 학교교육 관련 조직구성원들

간의 작은 신뢰의 인간관계형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교육공동체는 다양하고 분산되어 있는 작은 힘들을 연결하는 인간자원철학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V.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노력은?

지금까지 학교교육 변화의 방향 및 전략과 지역교육공동체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우리는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실질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뢰의 문화형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교육공동체 모두의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은 나만의 스타일로 남과 함께 어울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나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나의 의지로 개성 강한 전문가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나아가 다른 사람을 먼저 인정하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이해하려 노력을 통해 튼튼하고 좋은 이웃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학생들이 자기 목표를 이루고 행복을 얻으며, 존경받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머리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따뜻한 가슴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이 있는 진정 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

이에 지역교육공동체 및 학교교육 관련 조직구성원 모두는 더불어 신뢰(All Belief)를 다져가야 한다. 특히 인성(사랑), 창의(희망), 꿈(신뢰)을 키우는 미래지향적 학교교육 과정 편성·운영과 조화의 학교교육 문화 형성을 통해 사랑과 희망이 있는 신뢰하는 학교를 추구해야 한다.

결국 학교는 지역교육공동체의 역할 변화 모색을 통해 그 구성원 모두(All)는 아름다운 마음(Beauty)으로 서로를 배려(Encourage)하며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Leader)에서 최선의 노력(Interst)으로 희망(Expectation)을 가꾸어 신뢰(Faith)를 다져가는 곳이어야 한다.

황성을 예절의 고장으로



* 문화원 한학, 예절강사 | 김 인 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동양문화는 성현의 슬기로운 지혜이자 민족의 숭고한 정신문화이다. 이 사회를 풍미하는 정신문화가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과 사회질서와 도덕성을 좌우한다고 볼 때 미래의 세상을 열어 가는데 있어 이보다 더 우선하고 소중한 것은 없으며 소중함을 알고서 장려와 실천을 그저 미룰 이유가 없는 것이다.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 예로부터 경제논리가 우선한다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으면 성취된 바탕위에서 성숙한 정신문화도 뒷받침 할 수 있어야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성숙된 정신문화의 바탕 없이 무한의 경제논리로 치중한다면 그 사회는 탐욕과 향락 그리고 중상모략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퇴폐풍조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

잠시 눈을 이웃나라 중국으로 돌려보자. 놀라운 경제성장과 첨단과학의 실현과 공자사상을 지향하는 정신문화의 변화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과 십수년만에 덩샤오핑(鄧小平)의 경제개방 정책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세계정상을 달리고 있고 군사력이나 과학적으로도 세계 제3위의 우주선 도킹(docking)이라는 기적을 낳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는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있고 마오쩌둥(毛澤東)의 사회주의 혁명으로 침체되었던 공자의 유학사상을 고취시켜 정신문화를 새롭게 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어서 이것

이 바로 세계최고를 지향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그들은 이미 우리민족의 발해역사를 자기들의 역사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고 천안문 광장에 공자의 동상을 더욱 높이세워 정신문화의 상징으로 표방하면서 가치관을 정립시키려는 의식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11세기 송나라 때에 1300여년이나 침체되었던 유학 사상을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제왕들이 앞장섰기에 현인들이 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 바로 그러한 변화의 시대로 진입하였음을 주목하고 이즈음에 반면으로 그리스의 위기사태 또한 분명히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미 혼탁해진 강물을 맑게 하려면 아무리 하류를 다스려도 성과가 없을 것이며 상류를 다스리면 하류는 저절로 맑아져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화역시도 마찬가지이다. 옛 속담에 이르기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점진적인 변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깨끗한 물도 고여 있으면 변질되고 불씨도 철이 바뀔 때마다 그 계절에 있는 나무로 불씨를(鑽燧改火)취한다고 하였으며 신선한 공기도 소통되지 않으면 질식하게 되는 것이다.

50년대에 피폐한 민생고를 70년대의 새마을 운동으로 새롭게(중용:日新 日日新 又日新)도약 하였듯이 21세기에 걸맞고 또 글로벌(Global)시대에 어울리는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의식변화 만이 정치와 사회생활상도 더 한층 업그레이드(Upgrade)하여 발전시킬 수 있기에 급진적인 동향만은 억제시키되 점진적인 발전상은 장려하고 추구해야 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제자리걸음 내지 퇴보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미 사회저변에서 감지되고 있는 일이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변화욕구와 변화층이 늘어나는 것도 시대적 배경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그들이 바로 다음사회의 주역이란 점을 이해하여 줄수 있어야 70년대 경제성장의 공로자로 존경받게 된다.

만약 이러한 시점에서 20세기의 유행하던 옷을 입고 20세기의 유행하던 정치를 답습한다면 분명코 21세기의 적합한 선택은 아닌 것이다.

◆ 선 택 ◆

선택은 존재구현의 과정이다.

사람들은 선택받은 존재로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선택은 결과를 낳고 교훈을 남기고 책임을 지운다.

선택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풍미한다면

어찌 작은 선택이라도 신중히 하지 않으리오.

참 잘 했었다는 결과를 체득한 뒤에야

비로소 현명한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동양문화 고급과정 연구원 김인규 -

19세기 까지만 해도 한문 문화권속에 우리사회는 전통을 계승하면서 공자의 유학사상이 관습화되어있었고 지금까지도 생활 속에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 잠시 유학경전인 사서오경을 소개하면...

『대학』에 이르기를 자신을 수양하고 남을 배려하는 여덟가지 덕목에 있어 세상일들을 널리 연구하며 지식을 쌓고 의지를 성실히 하고 마음을 올바르게 하며 심신을 수양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나서 국가를 다스리고 세계평화를 유지시킨다고 하였으니 8조목이 사람다움으로 성숙해지는 단계이기도하지만 모두가 각자 이루어 가야하는 덕목인 것이다.

『중용』에 이르기를 우주의 정상적인 운행은 대자연의 진리인 것이고 그 진리를 존중해서 사람다움의 도리를 다해야(誠者 天之道 誠之者 人之道也)한다. 라고 하여 존재의 본분을 말하였으며

「논어」에 이르기를 사랑하는 마음(仁 인) 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관계사랑으로 이어가며 더 나아가 존재사랑으로 넓혀가서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되 자신에 대한 성실과 타인에 대한 배려(忠恕 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으로 실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맹자」에 이르기를 생활환경 지배속에 이기심으로 가리워진 인간본성을 참성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탐욕을 극복하고 공경심으로 예를 실천(克己復禮)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다.

「주역」 계사전에 이르기를 쉬우면 알기 쉽고 간략하면 따르기 쉬우며 알기 쉬우면 친숙해지고 따르기 쉬우면 공을 이루게 되며 친숙해지면 오래 갈 수 있고 공을 이루게 되면 크게 될 수 있어서 오래갈 수 있어 현인의 덕이 되고 크게 될 수 있어 현인의 업적이 되니 쉽고도 간략함으로 세상의 이치를 얻고서 그러한 속에 천지와 더불어 사람의 지위를 이루어야 한다. 라고 하였다.

「예기」 곡례편에 이르기를 『모든 일에 공경하지 않음이 없게 하여 몸가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면 공경이 되는 지를 생각하며 말을 어떻게 하면 상대가 편안 한지를 생각하고, 오만한 마음을 짝뜨게 하지 말며 욕심나는 대로 모두 이루려 하지 말고 억제할 줄 알아야 하며 뜻한 대로 채우려 하지 말고 비울 줄도 알아야 하며 즐거움이라도 최대한으로 누리려고 하지 말고 적당한 즐거움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하며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하며 좋아하는 사람의 나쁜점도 알 수 있어야 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좋은 점도 알 수 있어야 하며 재물을 모았어도 나누어가며 쓸 줄 알아야 하고 어떠한 위치에 나갔다 해도 미리 물러날 줄 알아야 하며 본분에 지나치고 남을 업신여기고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예란 나 자신을 수양하고 남을 배려하고 사회의 관계성을 조화스럽게 하는 일체의 행동거지(行動舉止)의 내면적 자발성과 외면적 규범성을 포괄하고 있는 행동양식이 라고 할 수 있다.

함축해서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길이 있고 도리가 있고 방법이 있다. 즉 도(道)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길(마땅한방향), 올바른도리(마땅히 해야 하는 이치), 올바른 방법(마땅한 형식이나 절차)으로서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도리이자 윤리이며 질서이자 약속인 것이다.

예의 본질로는

1. 공경하는 마음
2. 배려하는 마음
3. 겸손한 마음
4. 사양하는 마음
5. 절제하는 마음
6. 피해를 주지 않는 마음



공자
BC551-BC479



안자
BC521-BC491



증자
BC506-BC436



맹자
BC372-BC289



주희
1130-1200



설총
654-?

등등 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생활 속에 익숙했던 유학사상인 정신문화를 시대에 맞게 선택하여 적용한다면 변화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 길만이 전통문화를 유지하고 계승하는 길이기도 한 것이다.

세상을 경영하는데 있어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고대 중국의 요임금은 순임금을 천거하였고 순임금은 또 우임금을 천거하였으며 은나라 탕왕은 이윤을! 주나라 문왕은 태공을 등용하였고 제환공은 관중을! 한나라 소하하는 한신을! 삼국시대 유비는 제갈량을 기용하여 인재등용의 용인술을 현명하게 발휘한 선례이다. 어떤 경영체이든 학연 지연 혈연으로 장식된 구조를 변화할 수 있는 조직만이 영원한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길이며 특히 정신문화를 선도하는 유학계에서는 오상(五常)의 덕목 중에 정의와 도의에 단서인 부끄러움(羞

수)이 아닐까 생각된다. 21세기에 맞는 사문진작(斯文振作)으로의 분위기 전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기회를 놓치면 그나마 앞장설수 있는 선도자를 찾기 쉽지 않다. 옛날 춘추전국시대에 천리마를 갖고싶어하는 임금이 있었는데 도무지 구할 수가 없자 어느 신하가 홍보방법으로 죽은 천리마를 천금을 주고 사왔더니 얼마 안되어 천리마를 팔겠다는 사람이 수없이 찾아왔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두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인적자원이 물적 자원보다 중요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강원도가 국내제일의 청정지역이고 훈훈한 인심도 어느 지역에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음으로 온 군민이 힘을 모아 노력만 한다면 황성한우 뿐만 아니라 황성사람들 이라는 호평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예의범절에 각별했던 선조들의 얼을 이어받아 작심3년이면 분명 달성할 수 있기에 온 군민이 한번 시작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간절히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한문을 알지 못한다 해도 알기 쉬운 한글 교재가 준비되어 있음으로 참여만 하신다면 미력한 힘과 짧은 지식이나마 더욱 연구해서 참다운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황성한우 황성더덕 안흥편빔 황성복분자 황성청정지역 황성산채 다음으로 「황성은 예절고장」이라는 명품으로 만들어 갑시다. 역시나 황성고장으로! 거듭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건승을 빌겠습니다.

V. 문화탐방기행

* 안성 기행문 | 서 휘

* 2011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해인사 | 유승희

* 향토문화 유적답사 | 이 슬 | 이대웅 | 최효재 | 박소연

문화탐방 안성지역 기행



* 서 휘

태고 적 부터 비쳐오던 태양 그 햇살 여 전히 따스한 2011년 봄 만전춘(滿煎春) 이다. 문화탐방, 문학기행, 이란 말은 문화(文化)와 탐방(探訪) 문학(文學)과 기행(奇行)의 합성어들이다 즉 다른 지역 문화를 찾아서 그곳의 풍습이나 행해지거나 사용되는 다양한 기술이나 관습 좋은 문화적 특징을 찾아서 보고배우며 안목(眼目)또는 견문(見聞)을 넓히고 돌아오는데 그 의의가 있고 문학(文學)이란 그 범위가 넓지만 한 분야로 시나 수필

소설 등을 읽고 느끼며 또는 기록하고 지식을 얻고 연구서술(敍述) 하는 것이라고 소략하게 말할 수 있다.

이번 황성문화원에서의 기행은 경기도 안성지역을 목적지로 선택하고 문화원 식구들을 대동하게 된 것이다. 한 문화가 정착되려면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 자연 발생 풍습이나 관습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유지 소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렵사회에서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첨단사회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모든 생활과 삶이 새로워지고 지식의 발전을 해가면서 우리 인간들은 수많은 문화변동의 세월을 지내고 있다.

덕평휴게소...

버스 3대가 출발한지 1시간쯤 지날 무렵 덕평 휴게소에 들렀다.

화장실은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남여가 각각의 장소를 찾는 곳이다. 깨끗하기로 소문난 휴게소답게 특유의 화장실 냄새도 적고 언뜻 보면 찻집 같은 분위기처럼 만들어져 있다. 예전 우리 화장실 문화는 어떠했는가! 집에서 멀어야하고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냄새도 참으며 불일을 보지 않았던가.

그러나 이제는 냄새나고 비위생적인 분뇨는 거름으로 사용하지 않고 정화하고 화학비료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입식 주택이다 하여 집안에도 뒷간을 설치하고 산다.



서구의 문화가 들어 온 것이다. 이젠 뒷간도 아니고 변소도 그렇고 화장실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해 보인다. 이 질감을 느끼던 서구문화가 이젠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문화로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화수용이다 방에서 불일을 보니 얼마나 편한가! 편한 것은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문화수용의 좋은 점이다.

안성맞춤박물관...

버스는 다시 10시를 전후해서 안성의 안성맞춤박물관에 도착한다. 각자의 눈으로 유기 제작과정과 왜 경기안성지역에서 “안성맞춤”이란 말이 생겼는지 알아 보기 위해 모두들 안성맞춤의 유래를 담는다.

방짜유기는 망치나 메로 쳐대 식기 수저 등을 만드는 기법이다. 방짜라는 용어에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가 숨어 있다. 일반적으로 두드려서 만드는



것을 방짜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은 구리 78%에 주석 22%를 정확히 합금한 것이 방짜라고 한다. 하지만 잡 금속을 섞어 질이 떨어지는 합금은 통짜 라는 말로 불량품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구리와 주석의 비율을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이것 역시 불량품을 생산하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방짜는 현대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합금 기술로 이것은 세계적인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금속은 열을 가하면 열 팽창현상으로 연해지며 두드리고 쳐댈수록 단단해지는 가공 경화성을 지니고 있다.

또 주석은 무르지만 열에 강한 물질로 불에 달궈져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두드려도 깨지지 않는다. 지속적인 열처리로 주석의 취약한 성질을 극복한 뒤 단조로 낫쇠를 열로 가공하여 깨지지 않는 실용성 있는 용기를 만든다. 유기그릇을 사용하게 되면 입병이나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을 박멸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신세대 주부들이나 예비신부들의 혼수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안성맞춤이라는 말은 조선시대 주물유기로 가장 유명한 곳은 개성과 안성 지

방인데, 안성유기는 특히 조형미가 뛰어나고 이담하고 보기도 좋아 “안성맞춤”이라는 속담이 회자될 만큼 품질이 좋아서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다고 한다. 따라서 안성에는 이름난 유기장들도 많았다고 한다.

안성장날이면 안성꽃신과 함께 유기그릇을 사러 전국에서 상인들과 수요자들이 몰려오곤 한단다. 안성유기는 광주분원의 자기, 이천의 쌀과 함께 궁중 진상품이었고, 현재 무형문화재 77호인 김근수 옹이 유기제작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점심식사...

점심은 안성문화원에서 특별히 소개해 준 안성 선비마을에서 해주오씨 종중음식으로 마침 쇠고기 탕 인가 본데 황성한우로 유명한 황성사람들의 입맛에는 더러 맞지 않았다. 아마 이것도 우리지



역 식생활 문화와 그 지역 식생활 문화가 달라서 일 것이다.

횡성한우하면 우리 횡성지역 사람들은 좋은 육우품질의 소라고 자부심을 가질 만큼 횡성한우에 자긍심을 갖는다.

지난겨울 횡성 어느 축산농가에 실제 일어났던 일을 하나 소개 한다.

구제역 판정받은 소를 살 처분 하기 위해 구제역 판정 축산 농가에서 군청 공무원과 수의사 방역담당 팀이 살아있는 소에다 근육 이완제 석시닐콜린(Succinyl choline)을 주사하기 시작했다.

방역 요원들이 안락사를 위해 어미 소에게 다가가 주사를 놓자, 갓 태어난 어린 송아지가 어미 소 곁으로 다가와 젖을 빨기 시작했다. 어미 소는 젖을 빨리면서 새끼가 젖을 다 먹을 때 까지 다리를 떨면서 버티다 새끼가 다 먹고 나자 쓰러지더라.

대개는 주사를 맞으면 1-2분 안에 쓰러지는데 어미 소는 20여분이상을 버티면서 마지막 젖을 새끼에게 먹이고는 쓰러졌다고 한다.

이이야기는 각종 신문에 기사로도 나간 적이 있다.

물론 송아지도 안타깝지만 어미 소와 묻혔지만.....

모정은 참으로 인간이나 짐승이나 말로서 다할 수 없는 큰 힘을 발휘 할 때가 있는 것이다.

이야기가 조금 벗어나긴 했지만 알아 둘만 해서 적어본다.

소리박물관..

“오발탄, 돌아오지 않는 해병, 빨간마후라,”를 아시나요.

안성의 “소리박물관”벽에 있는 영화 제목들이다. 한국영화 3,500편을 녹음한 한국영화의 선구자인 이경순의 소리박물관이다



후배 영화인들은 물론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적 가치를 전달하고자 2004년 안성 금광면에 소리의 창조 “이경순” 기념관을 개장하고 2006년 4월 더 많은 이들에게 자료를 공유하고자 2,000 여 점의 소장 자료를 안성문화원에서 기증하였고 교육 가치와 활용도를 높일 목적으로 동아 방송 예술대학에 기념관을 건립 했다고 한다.

이곳 박물관에는 녹음기, 편집기, 영상기, 각종대본, 포스터, 영화관련 자료들이 200여점 전시되었다.

영화산업도 많은 발전을 했다.

미국에서는 초기 서부개척지를 배경으로 흑백영화가 유행했었고 이제는 로봇이 등장하고 성(姓)을 주제로 한 유희 또는 환상적인 가상의공간이 활용되는 영화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도 삼류 영화로 보이던 옛날 영화에서 애정, 불륜, 괴기, 액션 가상공간 환상 영화 등 많은 자유스런 창작 활동이 되고 애니메이션으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는 극장을 가지 않아도 컴퓨터로 집에서 볼 수 있으니 얼마나 많은 문화가 발전을 했는가!

칠장사...



남은 코스는 “칠장사”란 절이다.

경기도 칠현산(七賢山)에 있는 칠장사는 세운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0세기경에도 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한다.

고려 현종 5년(1014)에는 혜소 국사가 왕명으로 넓혀 세웠는데 ‘칠장사’와 ‘칠현산’이라는 이름도 국사가 이곳에 머물면서 7명의 악인을 교화하여 선(善)하게 만들었다는 설화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특히 조선시대 인조 원년(1623)에 인목대비가 아버지 김제남과 아들 영창대군의 명복을 비는 절로 삼아서 크게 된 곳 이라고 한다. 이후 세도가들이 이곳을 장지(葬地)로 쓰기 위해 불태운 것을 초전대사가 다시 세웠으나 숙종 20년(1694) 세도가들이 또 다시 절을 불태웠다가 숙종30년(1704)에 대법당과 대청루를 고쳐지었다 한다. 이곳을 보니 풍

수지리로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하고 특히 바람을 막아주고 사망의 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사철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명당 터이다.

풍수지리란 風水와 地理의 합성어이다. 풀어 말하면 바람과 물과 그 조건 좋은 자리 즉, 사람이 살기 적당한 곳을 이르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확실하기 때문에 풍수지리인 동양사상에 깊이 매료돼있다

겨울에는 따듯하고 하절기에는 시원한 곳에 집을 지으려하고 조상의 묘도 이런 곳 즉 명당을 선호한다. 몇 년 전 어떤 대통령 후보자가 자기 조상을 명당으로 옮기고 당선이 된 사례가 있다고 하여 일반 사람들도 풍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요즘 집안의 물건을 두는 위치에도 풍수를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풍수사상에 깊이 빠져서는 안 된다. 그냥 상식으로만 알고 자신이 편한 생활을 하면 족하다.

이곳 칠장사앞으로 난 작은 산길이 조선시대 암행어사인 박문수가 지나갔다고 “박문수길”이라고 팻말을 붙여놓고 있다.

돌아오는 버스 안...

이제 문화 문학탐방과 구전설화 다지방 사람들의 삶 등 다 보고 듣고 매듭짓고 돌아온다.

차안은 피곤한 얼굴들이 역력한데 잠든 사람들을 깨우려는지 운전기사가 사교춤악을 들려준다. 실눈을 뜨고 보니 무도장에서 남녀가 춤추는 영상까지 보여준다.

흥이 난 몇 사람이 좁은 통로에서 춤을 추고 같이 추자고 서로 일으키고 흥을 돋운다.

역시 우리문화는 춤추는 문화가 맞는가보다 예로부터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이 농경시대 우리 조상 때부터 즐겨오던 문화이고 지금도 그 문화 속에 사는 것이 부끄럽지는 않다.

잡아끄는 아줌마에 못 이겨 좁은 통로에서 흔들리는 대로 몸을 맡기고 음악을 타니 그것도 별로 나쁘지는 않다 일으켜도 안 일어나는 사람들은 냅두고 흥이 난 사람들만 놓고 있다.

이것도 우리문화의 한부분이니 싫어할 이유가 없다 빠르게 달리는 관광버스 안에서 춤추는 문화는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뿐 일 것 같다.

그만큼 우리는 흥에 민감하고 춤추기를 좋아하는 민족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운전을 방해하거나 너무 심하게 공공 장소에까지 불쌍사납게 행동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문화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 중에 유일하게 다른 나라에서 받아갈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빨리빨리 이다. 공공 장소에서도 빨리빨리 식당에서도 빨리빨리 외국인이 신기하게 생각한 것은 식당에서란다 앉아 시키자마자 음식이 나오는 식당은 세계에서 한국 뿐 이란다.

나쁘게 보려다 개방된 주방을 보고는 좋은 것 같고 식사시간을 몇 시간씩 허비하며 기다려먹던 그네들이 우리네 식사시간을 보고는 오히려 시간절약 효과가 있다고 우리의 급한 문화중 이 식당문화를 좋아한다고 한다.

끝까지, 문화원 직원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휴게소나 탐방지에서 한 분 한분 챙기고 수고하는 모습은 문화원의 한식구로서 고마움을 느낀다.

2011년5월 시인 서휘 씀

문화탐방

2011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해인사

10월 26일 오전 7시30분 문화원 회원및 문화원 수강생을 태운 버스는 새벽안개를 가르며 영동고속도로 를 달리고 있다. 차창 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듯하고 올 들어 가장출다는 날씨탓에 버스차창은 뿌연 성애가 맺혀있다. 음지에는 간혹녹지 않은 찬서리가 추위 를 말해주고있다.

중앙고속도로에 접어들어 남쪽으로향하니 밝은 햇살이차창에 드리운다.

우리일행은 단양휴게소에서 잠시휴식을 취한후 목적지인 해인사 를향해 계속 남쪽으로 달리고있다.

도로주변에는 아직 추수가 끝나지않아 황금물결이 넘치는 논과 밭이 이어지고 사과 나무에는 먹음직스러운 사과가 주렁주렁달려 주인 을 기다리고있다. 계곡에는 맑은 물이흐르고 높고낮은산에는 울긋불긋 단풍잎이 우리를 반겨주고있다.

대구를지나 88올림픽고속도로에 접어드니 그곳은 한창 확장공사가 진행중에있다.

여기저기 중장비 움직이는 소리, 골격을 드러낸교량,파헤쳐진 산모퉁이 한창 발전



* 유 승 희

이 이루지고 있는듯하다. 우리가 지나온 영동고속도로 및 횡성지역도로망은 정말 잘 발달되고 잘 정돈된 도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서너시간을 달려 해인사 나들목을 지나 목적지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차량과 인파가 복적이다. 굉장한 볼거리가 있는 듯하다. 인근식당에서 비빔밥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주행사장에 설치된 2011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전시장을 관람하였다. 넓은 공간에 다섯 개의 전시장으로 꾸며져 있으며 각종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우리 일행은 입구부터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관람을 시작하였다. 출입구 우측으로부터 지식문명관, 정신문화관, 대장경천년관, 세계교류관, 세계시민관으로 꾸며져 있다.

먼저 지식문명관이다

이곳은 문자로부터 인쇄기술 인쇄혁명에 이르는 각종 기구들이 전시되어 옛날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기록문화가 발달되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다음은 정신문화관이다

이곳은 생활속에서 불교문화 알기 그리고 참선의 탐구 각종 수행방법과 수행법의 체험장으로 꾸며져 있으며 한참을 관람하며 지나오니 더욱 마음이 숙연해짐을 느낄 수 있다.

다음은 대장경 여행의 주가 되는 대장경 천년관이다.

건물부터가 위엄이 있고 웅장함을 느끼며 전시실에 들어섰다.

이곳은 팔만대장경 원본 및 동판대장경의 전시 그리고 원형수장대(3D 랩핑 영상) 웅장함과 만남. 한글로 보는 팔만대장경. 등과 팔만대장경의 제작과정이 전시되어 있었다.

팔만대장경(국보제32호)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첫째. 팔만대장경은 한국을 인쇄문화의 종주국으로의 역할

인류의 역사는 인쇄술의 발명으로 인쇄세계문명사에 큰 획을 긋는 일대혁명을 맞이

하게된다. 이는 서적의 대량 유통을 통한 지식과 정확한 정보의 확산을 가져오면서 세계를 근대화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러한 인쇄술의 역사에서 오늘날 세계 최고의 목판인쇄본과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 인쇄문화의 종주국으로 일찍부터 인쇄술에서 세계를 선도해 왔다.

둘째. 고려대장경 혹은 팔만대장경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은 고려때 불경을 집대성한 것으로, 정식 명칭은 고려대장경이다. 하지만 경판수가 8만여 판에 달해서 흔히들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대 인도에서는 많은 숫자를 표현할 때 8만 5000이라 하고 인간의 번뇌가 많은 것을 8만 4000번뇌,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하여 부처가 되는 길을 대중에게 설법한 것을 8만 4000법문이라 한다.

셋째. 불가사의라 불리는 방대함과 완벽함

세계를 자랑할만한 팔만대장경은 1251년에 완성되어 지금까지 남아있는 목판이 8만 1258판이며 전체의 무게는 무려 280톤이다. 그리고 8만 1258판을 전부 쌓으면 그 높이는 약 3200m로 백두산(2744m)보다 높으며 길이로 이어놓는다면 150리(약 60km)나 되는 엄청난 양이다.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는 것 이외에도 질적으로 아주 우수하다. 마치 숙달된 한 사람이 모든 경판을 새긴 것처럼 판각 수준이 일정하고 아름다워 조선시대의 명필 추사 김정희는 이 글씨를 보고 “이는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마치 신선이 내려와서 쓴 것 같다”고 감탄 해마지 않았다.



또한오자나 탈자가거의 없으며 근대에만들어진것처럼 상래도 아주양호한 편이다. 그래서 세계는 팔만대장경을두고“목판인쇄술의극치다” “세계의불가사의다” 라는찬사를 아끼지않고있다.

넷째. 세계문화유산으로지정된 팔만대장경

750여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완벽한 목판으로 남아있는 팔만대장경은 현존하는 목판 대장경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삼장을 집대성하고 내용이 정확하여 세계 각국에 전파돼 불교의 연구 확산을 도왔으며 아울러 세계의 인쇄술과 출판물에 끼친 영향 또한 지대하다. 팔만대장경은 그 우수성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1995년 팔만대장경 판전(국보제52호)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팔만대장경의 문화적 가치와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우리 후손들 모두가 같이 보전해야 할 인류의 문화유산임을 확정하였다. 2007년 고려대장경 판 및 제경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팔만대장경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다음은 세계교류관이다

이곳은 세계 유명작가 판각, 판화가 전시되어 있으며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전시관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세계시민관이다

이곳은 시민들의 참여 및 화합의 장으로 108배 릴레이 기네스 도전 및 열서공모전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장 관람을 마치고 나니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해인사로 향할 시간이다.

우리는 대장경 여행 관람을 마치고 버스로 해인사로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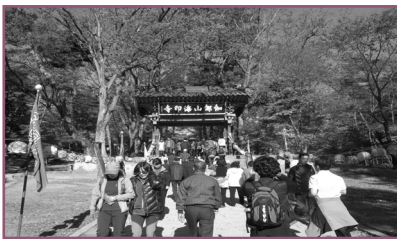
주행사장에서 홍류동 계곡을 거쳐 해인사에 이르는 계곡에는 가야산 일대를 테마산책로로 조성하였다.

입구를 출발하여 무릉교, 칠성대, 유허비(나라에큰공을세우는등 공적인일로 명예를 떨친인물을 후손에 알려 그 뜻을 기리고자 세우는 비석), 농산정(신라말기의 유학자 최치원이 벼슬을 지닌 뒤 전국을 유랑하다가 드러와 수도하던 곳), 취적봉, 자필암, 분옥폭포, 광풍뢰, 제월담, 낙회담, 첩석대, 회선암 등 12곳의 기암절벽과 맑은 물, 울창한 숲, 등이 보는 이들에게 신선함과 상쾌함을 더해준다.

해인사 입구에도착하여 산책길을 따라 해인사방향으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주변에는 고목과 맑은 물 그리고 많은 관광객과形形色색의 등산복차림의 등산객 등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입구에도착하니 우측편으로 성철스님 부도탑이 눈에 들어온다. 무소유의 청빈한 삶으로 유명한 성철스님의 부도탑이 잘 정돈 되어 있다.

해인사는 신라 의상대사의 법손인 순응·이정·두 스님이 신라 제40대 애장왕 3년(802) 10월 16일 왕과 왕후의 도움으로 창건되었다.

또한 법보종찰 해인사는 불보사찰 통도사, 승보사찰 송광사 와 더불어 한국의 삼대 사찰로 꼽힌다.



해인사는 한국 화엄종의 근본도량이자 우리민족의 믿음의 총화인 팔만대장경을 모신 사찰로서 한국인의 정신적인 귀의처요 이 땅을 비추는 지혜의 등불이 되어 왔다.

해인사는 한국 불교의 성지이며 또한 세계 문화유산 및 국보보물 등 70여점의 유물이 산재해 있다. 국내 최대 사찰로서 명산인 가야산 자락에 위치하여 가야산을 뒤로 하고 매화산을 앞에 두고 있어 그 웅장한 모습과 주변 경관이 어우러져 경의로울 뿐 아니라 송림과 산사가 어우러져 연출하는 설경을 보는 이로 하여금 신비경에 젖게 한다.

해인사 에도착하여 먼저 일주문을 통해 안으로 향하면서 봉황문, 해탈문, 우화당, 사

운당, 보경당, 그리고 종각, 청화당, 구광루, 적목당, 궁현당, 관음전, 경학원, 대적광전, 명부전, 응진전, 독성각, 선열당, 장경관전, 퇴설당, 조사전, 선원, 극락전, 정종탑, (해인사정중앙에 있다고 하여 정종탑이라 한다) 수미정상탑, (높이 14m 8각 7층 석탑) 등 26개의 크고 작은 시설물 등 이 위치해 있었다. 특히 대장경은 장경관전에 위치하였으며 창문을 통해 그 실체를 볼 수 있다. 과연 국내 유일의 사찰이며 웅장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주변에는 크고 작은 사찰 및 암자가 16개(고불암, 고운암, 국일암, 금강암, 금선암, 길상암, 백련암, 보현암, 삼선암, 약수암, 용담암, 원당암, 지족암, 청량사, 홍제암, 희랑대) 소가 산재해 있어 하루를 다해도 탐방을 다 못할 것 같다.

입구에 다다르니 해인사 성보박물관이 눈에 뜨인다.

이곳은 각종 유물 및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다. 인근 식당가 및 토산품 판매장과 인접해 있으니 배부는 한산하고 별로 찾는 이가 없다. 아마도 입장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곳도 있는 것 같다. 모든 탐방을 마치고 이제 귀향을 하여야 할 것 같다.

많은 아쉬움과 미련이 있으나 짧은 일정에 주어진 시간에 모든 시설을 관람하기란 매우 어려우리라 생각된다. 이번 문화탐방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우리 고장 황성의 자연환경, 유적지, 전적지, 각종 문화 시설물 등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여 많은 이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고 길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팔만대장경과 해인사 탐방을 마치고 안동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귀향길에 올랐다. 차창밖은 벌써 어둠이 깔려있고 지나가는 차량 불빛만 차창을 스친다. 오후 늦게 황성에 도착하여 모든 탐방을 마무리 하였다.

한명의 낙오도 없이 전원이 무사히 귀가함에 참석자 모두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이러한 귀중한 행사를 마련하고 많은 인원을 통제하고 인솔하느라 수고스러우며 애지애함은 황성 문화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모두 황성 문화 발전에 기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여야겠다.

향토문화 유적지 답사 ①

* 안흥고등학교 1학년 | 이슬

안동 하회 마을은 탈춤이 유명한 지역으로써, 지명은 물이 땅을 휘돌아 감는 듯해 하회라 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횡성은 왜 횡성일까?



아마 횡성에 사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나처럼 하회 마을의 의미는 꿰고 있을지라도 횡성이 횡성인 이유에 대해 묻는다면 선뜻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당장 내 주위만 둘러보아도 자신이 횡성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유쾌히 여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도 그랬다. 캠프에서 만난



친구들의 어느 학교 다니냐는 물음에 ‘말해도 모를걸?’이란 말을 입버릇처럼 했고, 실제로 횡성에 산다는 것이 꼭 세련되지 못한 촌사람임을 의미하는 것 같아 유치한 짜증도 부렸었다. 하지만 내가 사는 고장에 대해 알고 다시 보니 이전에 내가 저질렀던 행동들과 사고방식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졌고, 나와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친구들이 생각을 바꾸면 좋겠다는 마음이 절실히 들었다.

나의 어린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데에 있어 절대적인 도움을 준 것이 바로 하룻동안 진행된 횡성군 향토 문화 탐방이라는 현장 체험 학습이다. 횡성 곳곳에 있는 많은 문화재들을 보고 설명을 듣는 것은 물론, 강이 가로질러 ‘횡천’으로

불렀다가 흥천과 발음이 비슷하여 ‘횡성’으로 변했다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횡성에 대한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기회였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설명해 주시는 횡성문화원 사무국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크기도 했다. 저 분은 저렇게 지역 사회에 애착을 가지시고 알리시려 노력하는데, 정작 큰 사람이 되어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는 꿈을 가진 나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장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인구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니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었다. 참전비에 곱게 새겨진 여러 분들의 이름은 부끄러운 마음에 무게를 더했다.

잘못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오늘의 경험을 항상 상기시키며 더 이상 내 스스로 쌓은 벽에 얽매이지 말자고 다짐했다. 내 고장에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의 정보는 알아두는 것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어야 다른 지역으로 나갔을 때 굳건히 버틸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다녀온 현장 체험 학습은 내게 아주 큰 의미로 다가왔고, 오랫동안 잊지 못할 고마운 경험으로 자리매김 될 것 같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과 자부심을 가지며 횡성을 널리 알리는 데에도 앞장서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차차 생각을 바꾸고 노력한다면 충효의 고장 횡성 한우 마을이 하회 마을보다 유명해지는 건 결코 불가능하지 않은, 머잖은 미래일 것이다.

향토문화 유적지 답사 ②

* 안흥고등학교 1학년 | 이대웅

출발하는 시간에 비가 와서 많이 걱정했지만 예정대로 우리 학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향토문화 유적들을 답사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나도 황성에서 살고 있는 '황성인' 이지만 고장에 어떤 유적들이 있고 어떠한 모습일지 잘 몰라 이번 황성문화원에서 주관한 문화탐방 기회에 확실하게 답사하고 오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빗길을 달려 철기시대 유적지인 둔내 중고등학교 곁을 지나면서 차내에서 설명을 들었고, 그 다음 답사한 곳은 '봉복사' 라는 절



이었다. 봉복사에 대하여 설명해주시는 문화원 사무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봉복사는 황성군 내에 존재하고 있는 사찰 중에서 가장 유서가 깊고 신라 선덕여왕 16년인 647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하였다고 말씀해 주셨다. 아쉽게도 한국전쟁으로 인해 절의 여러 건물이 파괴되고 지금은 법당과 부속건물 한 동만 남아있다고 하셨다. 이 처럼 많은 세월은 지나갔지만 아픔 또한 배어 있는 역사에 관하여 보고 들으면서 어딘가 모르게 씩씩한 마음 또한 느껴졌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신대리 삼층석탑' 이었다. 이 '신대리 삼층석탑' 또한 자장율사가 세웠는데, 현재는 놓여져 있는 곳이 다름 아닌 밭이었다. 이렇다 할 보존시설 없이 밭 가운데 서있는 모습을 보니 개발과 발전도 중요한 것이지만 옛 것 또한 잘 계승

하고 발전시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음악의 경우에도 피아노 학원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 해금, 태평소, 가야금 같은 우리악기를 배우는 곳을 찾아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전통악기, 전통놀이를 가르쳐주는 곳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또한 많은 부족함으로 쉽게 찾을 수 없는 현실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숨 쉬지 않고 있다면 '나'에 대한 정체성도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번 향토문화 유적 답사여행은 하나하나 다 뜻 깊은 시간이었지만 가장 인상 깊게 답사한 곳은 바로 황성군 공근면 창봉리에 위치해 있는 "장송모" 아저씨의 도자기 공방이었다. 다원화 된 요즘 시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공장 생산에 의한 그릇, 플라스틱 용기와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도자기하면 무언가 어렵고 낯설게만 느껴지게 된 걸까?

손끝에서 나오는 예리함과 섬세한 손길로 흙을 만지고 빚고 아름다운 문양으로 나타낸 장인의 숨결과 더불어 우리 것을 애써 지키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았을 때 나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하게 느껴졌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도 도자기만의 고고한 특성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제 역할을 다 해내는 것처럼 나도 도자기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속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고 뜨거운 열정으로 흙을 빚으며 꼭 막힌 마음이 아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미세한 구멍으로 외부와의 소통을 이루는 도자기처럼 지혜 있는.....

언제나 해를 더 할수록 멋스럽고 맛깔스러운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싶다. 내가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루었을 때, 나의 아이들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 정말 멋진 교훈으로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전수해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번 답사여행은 참으로 의미있고 좋은 시간이었음을 가슴 깊이 새겨본다.

향토문화 유적지 답사 ③

* 민족사관고등학교 최효재

횡성에 묻힌 역사를 찾아서

지금까지 횡성에 1년 넘게 살았지만 횡성에 어떤 문화유적이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학교 교정 외에 방문해 본 횡성이라고는 친구들과 함께 회식하러 갔던 둔내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랬던 나에게 이번 답사는 횡성이 있는 많은 문화유적들과 그들의 역사적 의미를 깨닫게 해 준 소중한 계기였다.

가정 먼저 방문한 곳은 봉복사였다. 봉복사는 횡성군 내 현존하고 있는 사찰 중 가장 유서가 깊은 사찰로, 신라 선덕여왕 16년인 647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하여 과거에는 오대산 월정사를 말사(末寺)로 둘 정도로 번창했던 사찰이다. 재미있는 점은 봉복사의 '봉복'이

봉황의 배를 뜻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봉복사는 설악산의 봉정암(봉의 이마 부분)과 여주 부근의 봉미사(봉의 꼬리 부분)와 이으면 봉황의 모습을 띤다고 한다. 지금은 작은 암자에 불과할 정도로 절 규모가 작아져 대웅전 뒤에는 산신당과 절 입구에 놓여 있는 많은 부도에서 만 과거 전성기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망향의 동산과 횡성댐이었다. 망향의 동산은 횡성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 지역의 원주민들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만든 곳으로, 실향민들의 아픔을 달래는 조형물과 비석, 실향민들이 고향에서 살아왔던 모습을 보여주는 작은 박물관, 수몰지역에서 옮겨온 '쌍둥이 석탑'인 중금리 삼층석탑 등이 있다. 비석에 쓰인 글귀에서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의 안타까움과 애



향심을 느낄 수 있었다. 망향의 동산이 조성된 계기를 마련한 횡성댐은 12년간의 공사 끝에 준공된 다목적댐으로, 원주·횡성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고 수력발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며 홍수조절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물이 갖고 있는 신기한 성질과 물의 소중함을 소개하고 체험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 ‘물 문화관’이 댐 옆에 잘 꾸며져 있었다.

그 후 장송모도자연구원을 잠시 방문하여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된 전통자기도공 장송모 옹이 만든 아름다운 자기를 살펴보았다. 임금이 쓰는 도자기를 공급할 정도로 융성했던 강원도의 도자문화의 명맥이 120여 년 전부터 끊겼고, 그것을 다시 잇고 전국에 도자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도예 체험관과 전시관을 전액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다음에 시간이 나면 이곳 도자연구원에 다시 와서 유치원에 다닐 때 한번 해 본 후 잇고 있었던 도예에 다시 도전하여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 방문한 풍수원성당도 인상적이었다. 풍수원성당은 한국 천주교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성당으로, 강원도에서 첫 번째이자 전국에서 네 번째로 지어진 천주교 성당이며 강원도 천주교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지, 성당의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소박한 멋과 함께 웬지 모를 신성함과 숭고한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이 외에도 횡성향교, 한얼문예박물관, 네덜란드 참전 기념비, 강림의병총, 태종대 등 횡성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여러 문화유적들을 탐방했다. 횡성향교에서는 지금도 동네 노인들이 매주 두 번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에, 한얼문예박물관에서는 수많은 유적들을 개인이 직접 모아들여 전시까지 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 네덜란드 참전 기념비와 강림의병총에서는 각각 6.25전쟁 때와 구한말에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킨 훌륭한 녀들을 기렸고, 태종대에서는 조선 태종이 스승 원천석을 찾기 위해 다녀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횡성에는 잘 알려진 역사 유적이거나 규모가 크고 외관이 아름다운 옛 건축물들은 없었지만, 작지만 소중한 문화유적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그 유적들은 모두 고금을 넘나드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어 더욱 놀라웠다. 그래서 이번 문화유적답사를 계기로 횡성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고, 횡성을 더욱 아끼고 사랑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횡성의 숨겨진 보물들

우리 학교는 횡성에 위치해 있지만, 정작 횡성이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 알아본 적 없는 우리들에게 이번 횡성문화유적지답사는 의미 있었다. 학교에서도 충분히 푸른 산과 들을 자주 보기에 이동 중 창밖으로 보이는 모습이 새롭진 않았으나, 익숙한 풍경 속에 숨겨진 문화유적을 답사하는 것은 흥미로웠다.

처음에 본 횡성신대리삼층석탑은 교과서로 배웠던 다른 석탑보다 단순한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석탑의 형태이기는 했으나, 어떤 무늬도 없어서 다른 석탑과 구별되었다. 안내자 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석탑의 층을

세는 방법을 배웠다. 석탑의 층은 옥계석의 개수로 정해진다고 한다. 직접 석탑을 보면서 배우니까 어떤 것이 옥계석이고 어떤 것이 기반석인지 구별하기 좋았다. 물론 전국적으로 유명한 석탑은 아니지만, 사유지 중간에 홀로 서있는 석탑을 보니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 일단 문화재라는 점에서 가치를 지니는 건데 군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다음으로 인상 깊었던 것은 횡성향교였다. 향교는 지금의 학교와도 같은 곳이므로 나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향교를 가보는 일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까 싶다. 향교를 들어가기 얼마 전부터는 말을 타던 사람도 내려서 걸어갔다고 한다. 배움의 장소인 향교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는 우리 조상들의 모습에서 당시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해 두어 예절을 중시하는 향교를 보면서 오늘날의 학교를 다시 생각해 보았다. 오늘날 교육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늘어났지만, 동시에 문제점도 많이 생겨난 것 같다. 공부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과거에 비해 예절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인식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다. 가끔 향교를 다니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태도를 바로잡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비전트립에서 성당을 자주 갔었기에 황성성당에서는 유럽에서 봐왔던 성당과의 차이를 잘 느낄 수 있었다. 황성성당은 생소했지만, 알고 보니 전국에서 4번째로 오래된 성당이라고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당과는 달리 내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우리의 문화도 결합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이다. 일반적으로 건물 내부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것은 서양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고, 우리는 예로부터 실내에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이 뿐만 아니라 의자가 없다는 점에서도 우리의 좌식문화가 잘 드러난 것 같다. 유럽에서 본 성당에는 모두 여러 개의 의자가 있었고, 신자들은 모두 그 의자에 앉아서 종교의식에 참여했다. 그렇지만 의자가 없는 황성성당에서는 바닥에 같이 둘러앉아서 종교의식에 참여할 것이다. 이러한 황성성당은 서양에서 온 종교를 위한 건축물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의 문화를 잘 살려냈다는 점에서 특별하게 여겨진다.

비전트립 직후의 피로와 한여름 더운 날씨로 인해 답사 도중 불편함이 있었으나, 황성의 숨겨진 보물들을 보면서 얻은 지식과 느낌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답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황성군에서도 더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다.

VI. 문예마당

* 수필 “Alamo’ 와 ‘The green leaves of summer” | 정하영

* 시 “새벽을 달린다” | 진광수

* 시 “코스모스! 너를 부른다” | 원재성

* 한시 “승지화성발전” | 정병유

* 한시 “애아향” | 정계철

* 동시 “옥수수 같은 친구” | 하승협

* 산문 “웃음꽃이 피는 우리집” | 안예림



‘Alamo’ 와 ‘The green leaves of summer’

추수가 끝나가는 황금들녘에는 메뚜기들이 허허롭게 웃고 있는 허수아비 등을 타고 널뛰기를 합니다. 지나가는 참새들도 이리저리 기웃되고 있는 평화로운 풍경위로 달리는 차안에선 귀에 익은 음률이 들려옵니다.



*횡성문인협회 사무국장 | 정 하 영

미국의 포크그룹 brothers four의 ‘green leaves of summer’. 지금의 풍경과 참 잘 어울린다고 느껴지면서 이 음악이 삽입된 영화 ‘Alamo’가 문득 떠오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5번 정도 본 영화이기도 합니다.

‘Alamo’는 미국의 지나간 서부의 역사를 다룬 영화입니다.

1960년 당시 미국에서 빨갱이 운운하며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상검증을 시켰던 시대에 ‘존 웨인’이라는 서부극 전문배우가 감독데뷔작으로 만든, 지극히 애국 지상주의 적인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미국인들의 자긍심을 지켜주었다는 평과 함께 “알라모를 기억하라.”라는 유행어가 일어나기도 했었고, 이 말은 나중에 “진주만을 기억하라.”라는 말로 바뀌어 불리기도 했습니다.

-영화 알라모의 배경과 출연 배우들-

알라모의 배경과 역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너무 길어질까 봐 간단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836년, 당시 멕시코 영토였던 텍사스가 독립선언을 하자 멕시코의 독재자 산타아나는 토벌군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에 7천 텍사스 민병대는 산안토니오 교외의 알라모 요새로 몰아붙이고, 민병대를 재조직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 알라모 요새를 사수하려 하지만 요새 안에 있는 병력은 불과 200여명도 남지 않게 됩니다. 알라모 요새 전투는 7천명의 멕시코 군대가 포위한 가운데 항복하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2월 24일에 시작되어 13일간을 버티다가 군인들과 텍사스 민병대, 주민 180여명이 산화하며 끝이 납니다. 그 사이에 텍사스 군대는 전쟁에서 이길 시간을 벌게 되고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당시 멕시코 땅의 절반을 가져가게 되면서 미국 영토로 병합됩니다.

영화는 그 와중에 주인공들 간의 갈등과 아픔과 사랑을 적절히 섞어가며 진한 감동을 줍니다. 제가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가 8살 쯤 되는데, 그 당시 AFKN(주한미군을 위한 한국방송)을 통해 아버지와 함께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난무하며 질 줄 알면서도 끝까지 항전하다가 죽어가는 배우들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눈시울을 적시게 하는 것은 영화의 장면보다는 배경음악으로 흐르던 ‘brothers four’ 라는 4인조 포크그룹의 “The green leaves of summer(여름날의 푸른 잎들)”이였습니다.



현재는 미국의 유명 관광지 중 하나가 된 알라모 요새(kimch3님의 블로그 중에서)

너무도 비장하게 들렸기에 눈물샘이 넘치다 못해 눈이 툭툭 붓도록 울었던 기억을 지금 생각하면 피식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8살이 될 알겠습니까?)

역사야 어차피 승자들의 역사이고, 권선징악이라는 구도 속에 '적 아니면 친구' 둘 중 하나여야 되는 국제정세가 각인되던 시절의 내용들이라서 시시콜콜 따지고 싶진 않습니다.(그러면 논문이 되어서 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요즘도 빨갱이 운운하며 국수주의에 물든 일부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모습이,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진실인지 허위인지는 아주 한참 지난 후에야 밝혀지겠지요?

중국도 중화사상에 젖어 유교의 공자를 죽였다가 살렸다가 하면서 자기들 입맛대로 현재 이용하듯이.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이래야 돼!”하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비단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꼬라지'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속이 좁
뒤틀려서 현실의 불만을 잠시 토로하고 넘어갑니다.(어느 날 붙잡혀 가서 사상
검증과 고문을 당할지도 몰라서 여기까지^^;)

사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영화 속 마지막 전투 전날 고향을 그리며 합창
을 하던 180여명의 민병대의 그 노래 소리가 주는 그리움과 쓸쓸함이 지금, 글
을 쓰는 이 시간 계속 제 입 안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A time to be reaping, A time to be sowing

(추수하던 그 시절, 씨를 뿌리던 그 시절)

A time just for living, A place for to die

(삶만을 위한 시절, 죽음을 위한 그 장소)

Twas so good to be young then

(젊었던 그 시절은 너무도 좋았었어요)

to be close to the earth

(드넓은 대지에 가까이 있었지요)

Now the green leaves of summer are calling me home

(이제 여름날의 푸른 잎들은 나를 고향으로 부르고 있어요)

- 마지막 가사 중에서 -

세상이 거창하게 말하는 국가와 민족과 인종을 다 떠나서, 우리 마음속에 있
는 삶에 대한 행복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리라 봅니다.

전쟁에 끌려 다니지 않고 고향에서 씨 뿌리고 밭 갈고, 추수하면서 좋은 짝 만
나 결혼해 자식 낳고, 알콩달콩 사는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드넓은 대지에 평화롭게 묻히고 싶은 것, 그 소박한 희망을 잃어가는 지금의 모습들 때문에 가사가 더욱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뉴스와 신문을 보면 젊은 청장년 세대들이 절망과 불안과 고통으로 하루 하루 전전공공 살아간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끼기에 마음이 참 쓸쓸해집니다.

(더 말하다 보면 장황하게 길어질까 봐 줄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을 조용히 보내며 그래도 '내일은 해가 뜬다.'는 희망으로 조용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더 가져볼까 합니다.

영화가 끝나면 적막한 현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지만, 희망을 노래할 때 내 머리위에 떠있는 해는 나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어떤 영화 대사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지요?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말씀드리지요.”(끝)



새벽을 달린다

어둠을 보내는
소리에
단꿈을 깬 나는
페달을 밟는다.



* 진 광 수

전천교 강변은
아직도 여명
희미해진 가로등이
귓속말로
혼자가 아니라고 속삭인다.

떨어질듯 가까워지고
갈어지다 짧아지는
그림자가 조강을 한다.

새벽을 마시려고
잠도 자지 않았나
사물이 사라지고
꿈이 묻히는 안개 속에
나는 긴 새벽을 달린다.

코스모스! 너를 부른다.



* 원재성

매마른 긴줄기에 매달려
버거운 머리채로, 지나가는 차들마다
웃는 얼굴로 환대하는 네 모습이,
가여워서 더욱 아름다웠다.

4대강 삼질 멈출듯 쏟아 부던 장마.
한땀한 반도의 차가운 빗줄기
고개한번 안숙이고 맞이하는 네 모습이,
처량해서 더욱 아름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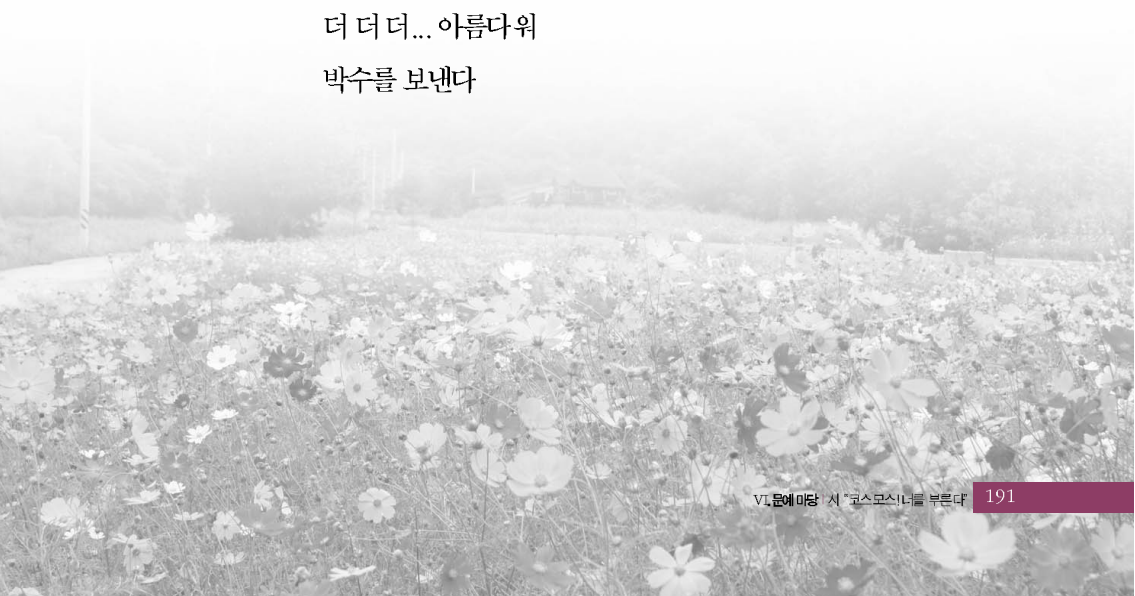
한 여름 찌글거리는 아스팔트 위에
긴 허리 숙 빼고, 끈끈이 세운채
지나가는 나그네 말동무하는 네 모습이,
안스러워 더욱 아름다웠다.



밤벌레 합창하는 하얀 달빛 길
두 손 포개 잡고 걷어가는
첫사랑 추억에 귀 기울이는 네 모습이,
서러워서 더욱 아름다웠다.

붉게 멎든 가슴속 얘기
구구절절이 들어주며
패농할 올 농사 마칠수 있게 도와주던 네 모습이,
더 더욱 아름다웠다

코스모스!
이제 겨울을 알리며
모든걸 품에 안고 퇴장하는 네 모습이
더 더더... 아름다워
박수를 보낸다





勝地花城發展

승지화성발전



*정 병유

仁	인	良	양	營	영	畜	축	蟾	섬	南	남	願	원	勝	승
政	정	風	풍	農	농	産	산	水	수	山	산	民	민	地	지
施	시	美	미	發	발	成	성	相	상	不	불	昌	창	開	개
行	행	俗	속	展	전	功	공	傳	전	語	어	盛	성	其	기
萬	만	宣	선	振	진	功	수	故	고	前	전	盡	진	定	정
世	세	揚	양	威	위	偉	위	代	대	人	인	精	정	邑	읍
榮	영	裏	리	名	명	業	업	聲	성	事	사	誠	성	城	성

승지에 터를 닦아

화성을 정하다.

창성을 원하는 주민은

정성을 다 하도다.

남산은 앞 사람의 사적을

말하지 아니하고

섬강물은

고대의 소리를 전하네

축산업 성공은

큰 업적을 드리웠고

영농의 발전은

위대한 명성을 떨쳤도다.

미풍양속을 선양하는 속에

어진 행정 시행하면

만세에 광영하리라



愛我鄉

애아향



*정 계 철

尤	우	愛	애	岐	기	蟾	섬	遺	유	康	강	至	지	自	자
有	유	鄉	향	山	산	水	수	跡	적	衢	구	今	금	古	고
前	전	雅	아	屹	홀	長	장	彬	빈	坦	탄	應	응	橫	횡
程	정	士	사	立	립	流	류	彬	빈	坦	탄	是	시	城	성
瑞	서	傾	경	造	조	沾	점	惹	야	振	장	振	진	發	발
氣	기	心	심	兵	병	雨	우	舊	구	新	신	名	명	展	전
生	생	力	력	營	영	露	로	情	정	面	면	聲	성	成	성

옛부터 횡성은
 발전을 이루었으니
 지금도 응당 명성을
 떨칠만 하도다
 큰길 거리는 탄탄하게
 새로운 모양으로 단장하였고
 남긴 자취 빈빈하여
 옛 정을 이끌어 내네
 심장물길이 흘러
 혜택을 주고 (雨露惠澤)
 태가산 우뚝 서서
 병영을 만들었었네
 고향을 사랑하는 우리들
 심력을 기울이니
 더욱 앞길에는
 서기가 발생하리 로다.

옥수수 같은 친구

* 춘당초등학교 5학년 | 하승협

옥수수대 하나에
알갱이가 겨우 두개
두명 밖에 없는 교실

언제나 붙어 있어서
지겨워도
그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나머지 하나는 외톨이가
된다.

한 부품이라도 빠지면 못 쓰는
볼펜처럼

두명 중에 한명만 빠져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짝 없는 젓가락처럼
한짝 없는 신발처럼
한짝 없는 신발처럼

두명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웃음꽃이 피는 우리집

* 둔내덕성초등학교 6-1 | 안 예 림

우리집 아빠는 마산에 가서 일을 하신다.

아빠가 계시지 않아서 조용하다.

우리집도 웃음꽃이 피고 시끌벅적한 때가 있다.

그때는 마산에서 일하시는 아빠가 오시는 날이다. 아빠께선 강원도 횡성군과 멀리 있는 마산에 계시기 때문에 오는 것도 힘드시고 시간이 많이 걸리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주에 한 번씩은 꼭 오신다. 아빠도 우리도 항상 서로 보고 싶어 한다. 그래도 못 오시는 주말엔 항상 전화를 하셔서 우리를 걱정해 주신다. 이번에도 정말 즐거운 일이 있었다. 주말을 맞아 오셨는데 무려 5시간이나 걸리셨다. 그래도 힘드시면서도 웃으며 괜찮다며 우리가족을 봐서 좋다고 하셨다.

너무 늦은 것 같아 시간을 보니 밤 10시가 되어 가고 있었다.

동생과 나와 엄마는 사실 아빠와 저녁밥을 같이 먹으려고 계속 굼었더니 배가 많이 고팠다. 밥을 좋아하시는 우리 아빠도 배가 고프다고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족은 아빠가 선택한 오리고기를 먹기로 하였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는 오리고기를 챙기고 집으로 향하였다. 집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우리 가족들의 수다는 끝날 줄 몰랐다. 나는 그 시간이 너무 좋다 행복했다.

집에 도착한 우리는 오리를 먹을 준비를 하였다. 나는 상추를 씻다 예진이가 물을 튀겨서 중간에 동생 예진이와 물장난을 치다가 엄마에게 혼이 나고 말았다. 그때 엄마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울먹거리던 예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 버렸다. 그런 예진이를 달래려 아빠가 가셨다. 그런 지옥 같은 20분이 지나고 아빠와 예진이가 나오고 1시간의 조용한 저녁 식사가 생겨버렸다. 그러다간 또 엄마의 화는 금방 풀렸다.

우리 가족은 단순한 건지 화해를 잘 하는 건지 모르겠다.

12시가 다다르자 우리 가족은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우리 가족은 태기산과 횡성댐을 가기로 하였다. 최대한 우리 아빠 버스시간을 고려한 것이었다. 우리 가족은 태기산 정상으로 갔다. 식당에서 감자전과 감자 웅심을 점심으로 맛있게 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어찌면 아빠와 함께라서 더 맛있었을지도 모른다. 산을 내려갈 때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다음 목적지로 향하였다. 그 다음 목적지는 횡성댐이었다.

그날따라 날씨도 좋았다. 횡성 댐은 잘 모르지만 정말 맛있었다. 횡성댐 문화관으로 가서 몸소 물에 대해 체험하고 조금 더 아빠와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즐거웠던 시간도 잠시 이젠 아빠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너무 아쉽고 속상했다. 그래도 다시 볼 때를 생각하며 아빠를 보냈다. 이때 비로소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

VII. 문화원소식

* 2011년 문화원 사업실적

* 문화원 회원명부

2011

문화사업실적

지역사회문화사업

♣ 전시회

● 제 4회 횡성평생학습축제 서화작품전 (9. 29. ~ 30.)

군민의 정서함양과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사회적 통합 증진 및 경제적 경쟁력 제고로 문화적 소양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평생학습 공동체를 도모하고자 횡성평생학습축제 서화공모전이 열렸다. 각 작품마다 수준 높은 실력을 선보였고, 진하게 흘러 나오는 묵향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 2011 황성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 작품전시회 (12. 19. ~ 23.)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한해를 마무리하고 배운 과정을 작품으로 보여주는 전시회를 가졌다. 서예(한글, 한문, 문인화)를 비롯해 올 하반기 신설된 규방공예 등 일년동안 배우고 익혀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어 문화원을 찾는 사람들의 관심과 큰 호응을 받았다.



♣ 음악회

● 2011희망나눔음악회 & cinema concert (11. 24.)

전문 오케스트라단을 초청하여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황성주민과 대입 및 취업 수험생들을 위한 2011희망나눔음악회 & cinema concert가 열렸다. 이번에 진행된 시네마콘서트는 음악과 영상이 결합된 보고 듣는 공연으로 무대 스크린을 통하여 영화의 하이라이트 영상과 함께 영화의 주제곡과 영화에 삽입된 클래식, 뮤지컬, 팝, 재즈,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소프라노, 허은혜, 박금란, 사회에 나혜림이 출연해 전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과 스크린을 통해 보여지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영화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멋진 공연이었다.



♣ 문화예술공연

● 다문화가정 마당극 「선녀와 나무꾼」 (9. 21.)

마당극 '선녀와 나무꾼' 공연은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에 대한 사회구조적 모순과 문화적 차이가 빚어내는 해프닝을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낸 마당극으로 농촌 총각 덕만의 신희살림, 베트남 며느리 루이의 다문화 자녀교육과 효심, 일용노동자 김용식의 삶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펼쳐내고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향수 기회를 마련하는 동시에 일반인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기획된 공연이다.



향토문화교육사업

♣ 문화강좌

● 2011년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예술특별강연회 (7.18.)

관내 민족사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예술원 신봉승 회원을 초청해 “국가란 무엇인가” 를 주제로 강연회가 열렸다.



♣ 문화유적지순례

문화원은 향토교육의 일환으로 문화유적지를 답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5차례에 걸쳐 관내 중·고등학생, 문화원 회원 및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문화유적 답사에 참여하였다.

〈관내 문화유적지〉

1차: 2011. 4.16 (토)	둔내중학교	40명
2차: 2011. 4.20 (수)	대동여자중학교	40명
3차: 2011. 4.22 (금)	안흥고등학교	32명
4차: 2011. 5.30 (월)	횡성여자고등학교	40명
5차: 2011. 7.19 (화)	민족사관고등학교	160명



〈둔내중학교〉



〈대동여자중학교〉



〈안흥고등학교〉



〈횡성여자고등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

〈관외 문화유적지〉

- 1차**
- 일 시: 2011. 5. 3.
 - 참가대상: 문화원 회원 및 수강생 120여명
 - 답사지: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안성3.1운동기념관, 안성선비마을, 이경순소리박물관, 칠장사)
- 2차**
- 일 시: 2011. 10. 26.
 - 참가대상: 문화원 회원 및 수강생 120여명
 - 답사지: 경남 함천군 해인사 일원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행사장, 해인사)



안성1



안성2



해인사1



해인사2

향토문화보존전승사업

● 제16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7. 7)

한국문화원연합회 강원도지회가 주최하여 춘천인형극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강원도 시·군별 16개 문화원팀의 경연이 있었고 전년도 대상을 수여한 춘천문화원 춘추농악단의 시범공연이 있었다. 대상은 영월문화원 누리패에 돌아갔고, 횡성문화원 어사매사물패는 동상을 수상했다.



● 횡성회다지소리축제 (4. 9. ~ 10.)

지난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정금리 민속마을에서 열린 제25회 횡성회다지소리축제에서 문화원은 식전공연으로 어사매풍물패를 초청해 시연공연을 보여주었으며, 김영아 전통예술단을 초청해 “횡성회다지소리춤” 공연을 갖는 등 다채로운 행사로 향토문화의 발전과 전통민속문화를 보존, 전승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향토문화기록촬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유·무형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향토문화유적등과 각종 문화생사 자료들을 촬영하여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록, 보관하고 있다.

애향활동 전개사업

● 애향지 발간

황성문화원 애향지 통권 제 26호로 발간되는 『2011 황성문화』는 향토문화 창달을 위한 향토문화의 숨결, 향토문화 탐방, 황성사람 황성이야기, 지역문화 학습정보, 문예마당, 문화원 소식 등을 수록해 전국문화원과 문화원 회원 및 관내기관 및 단체, 공공도서관, 자료실 등에 배포하여 황성을 알리는 소식지로서의 역할을 크게 하고 있다.



● 향토인물 선양(6.4.)



아동문학가로서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가득했던 **故(고)이연승**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고 어린이들에게 시심과 동심을 심어주며 새로운 창작 문학 활동을 창달시켜나가는데 이바지하고자 금년에도 어린이글짓기대회가 동시비가 위치해

있는 횡성초등학교에서 열렸다. 5월 25일 열린 글짓기 대회는 횡성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초등학교, 약 180여명이 참가해 동시부문 135편중 48명, 산문부문 37편중 15명을 입상자로 선정해 시상하였다.

시설관리 유지사업

문화원의 소식을 빠르게 전하고 다양한 문화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문화원 홈페이지를 운영, 유지관리하고 있다. 또한 사무실 환경개선을 통해 방문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업무능률 또한 향상시켜나가고 있다.



향토자료조사사업

♣ 향토자료 수집 및 자료집 발간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의 횡성군민들의 생활사중 '횡성의 오일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우리지역의 상거래 관계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횡성지역사 연구에 토대가 되는 자료를 조사 정리하여 향토자료 제24집으로 『횡성군 오일장의 어제와 오늘』을 발간하였으며, 전국문화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단체, 공공도서관 자료실 등으로 배포해 향토자료로서의 귀중한 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 향토사 연구

● 제21회 강원도 향토문화 연구 발표회 (10.21.)

지역의 향토사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방법의 일환으로 매년 “강원도 향토문화 연구논문 발표회”가 개최된다. 금년에는 고성문화원에서 열렸으며 우리문화원은 박순업부원장님이 “극일(克日)을 위한 최양옥의 독립운동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 제26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10.11.)

민족문화의 근간인 향토문화를 발굴, 육성하기위해 전국향토문화공모전이 개최된다. 황성문화원은 박순업부원장님이 “조선중기 고흥산 인물 탐구와 그의 위민행정 고찰”을 주제로 논문을 제출하여 우수상(한국문화원 연합회장상)을 수상하였다.

● 향토문화유적 「태기산성」 답사 (5.27.)

향토문화유적지인 「태기산성」을 답사. 자료를수집 및 연구하여 향토문화유산에 대한인식을고취시키고 보존 및 계발을 전개시켜 나가고자 태기산성을 조사, 답사 하였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곡물항고지 현장조사 모습〉

● 향토문화유적 「태종대 · 변암」 답사 (10.19.)

향토사료조사사업의 일환으로 향토문화유적지인 「태종대, 변암」을 답사. 자료를 수집 및 연구하여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보존 및 계발을 전개시켜 나가고자 향토문화유적 「태종대 · 변암」답사, 조사하였다.



〈누출재 답사모습〉

문화학교 운영사업

매년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적 감성 계발 및 지식기반 창출로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과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각 대회에 출연하여 많은 상을 수상하는 등 어느 해보다도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2011년도 운영현황〉

강좌명	강좌내용	강사명	교육기간	수강인원	수료인원
사물놀이(주 간)	장구,북,징,꽁꽂리 사물 및 기능	유관중	3,14.~ 7,15.	20	상반기
사물놀이(야 간)	장구,북,징,꽁꽂리 사물 및 기능	송세영	3,14.~12,16.	20	14
서예교실(한 문)	한문필법	천금용	"	23	13
서예교실(한 글)	한글필법	김해동	"	12	7
서예교실(사군자)	사군자필법	백유미	"	15	9
국악(판소리)	국악가락 및 창법	박양순	"	17	9
장수춤	장수춤사위 실기	김영아(뚝연아)	"	25	13
가야금교실	가야금 기초기법 및 가락	김연옥	"	16	9
한학교실	논어해설	김인규	"	20	13
태권도교실	태권스 기초 스텝	김명진	"	23	8
전통규방공예	규방소품,쌈지,보자기,매듭 등	정경숙	9,19.~12,16.	15	6
횡성회다지소리	횡성회다지소리 상여소리 율동	양재학	6,20.~12,19.	26	14
계	12개 과목		8, 3, 6개월	232	115



한학교실



장수춤



사물놀이



가야금교실



탭댄스교실



희다지소리교실



국악교실



전통규방공예



서예한문반



서예한글반



〈서예사군자반〉

제12기 문화학교 운영성과

- 각종 지역문화행사참가 사물놀이, 국악, 장수춤 시연 및 공연(18회)
- 문화유적지 답사 행사 문화학교전 수강생 참여 2회(5/3, 10/26)
- 제8회 황성여성 Festival 장수춤, 국악 시연(7/15)
- 제 17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어사매사물패) 동상(7/17)
- 제10회 전국평생학습축제 평생학습동아리 경연대회(어르신 부문) 특별상(9/2)
- 제4회 황성평생학습축제 문화행사 수강생 참여(9/29 ~ 9/30)
전시 및 체험 : 서예작품 / 사물놀이 | 시연공연 : 국악(민요, 판소리), 장수춤 공연
- 제25회 황성 회다지축제 만장쓰기 공모전(우수 1명, 입선 2명)
- 제4회 황성평생학습축제 서화공모전(서예반/ 최우수 1명, 우수 1명, 특선 3명, 입선 5명)
- 제21회 강원서예대전(특선1명, 입선8명)
- 제 2회 강원서예문인화대전(특선1명, 입선6명)
- 제 6회 운곡서예문인화대전(특선1명, 입선2명)
- 제 5회 서희선생전 국서예대전(특선1명, 입선5명)
- 제 1회 세종대왕 전국한글 휘호대회(입선1명)
- 제14회 김삿갓문화제 전국휘호대회(입선3명)
- 제 1회 제천의병전 국서예대전(입선2명)
- 제 1회 대한민국 만안서화대전 특선1명, 입선2명)

전통문화체험학습

점점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아이들에게 우리문화를 좀 더 친숙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 관내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름방학 전통문화체험학습이 열렸다. 한지공예, 가야금 배우기, 무형문화재 황성회다지소리 체험관 현장학습, 국악 배우기(판소리, 민요), 하회탈 만들기 체험, 탈춤 배우기, 천연염색 체험, 사물놀이 배우기, 전통떡 만들기 등의 수업이 있었으며 40명이 2주동안 참가하였다.

기타지원 문화사업

● 제15회 청소년 건전가요제 (5.21.)



청소년들간의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고 끼를 마음껏 뽐내고 즐길 수 있는 청소년들만의 문화의 장을 마련한 '청소년 건전가요제'가 관내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5일 열렸다. 총 11개팀이 참가하여 입상자들에게 장학금과 부상을 수여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자기욕구를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는 행사였다.

● 전통문화예술대공연 (12.1.)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우리지역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접하고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2011 황성군민을 위한 전통국악 예술대공연'이 문화원 주관아

래 12월 1일 열렸다. 특히 한국인의 혼(魂), 판소리의 제왕으로 불리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심청가' 예능보유자인 조상현선생의 '수궁가'는 2시간동안 진행된 공연은 설장구를 시작으로, 판소리(심청가), 경기민요, 가야금병창, 판소리(수궁가), 부채춤, 남도민요 등 여러 가지 공연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어르신들의 삶에 적극적인 의욕과 사회적 자긍심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여가 문화체험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한 장수춤을 보급하고 수료자로 구성된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을 조직하여 교육기관 및 각종 복지시설에서 봉사공연활동 및 주역축제 등에서 시연공연활동을 하고있다. 4월부터 12월까지 총28명의 단원들이 관내 행사 및 지역축제에 참가하여 축하공연을 비롯한 각 단체 위문공연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금년에는 제10회 전국평생학습축제 평생학습동아리 경연대회(어르신 부문) 특별상, 구곡순담 함께하는 장수춤체조 공연등 문화원 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횡성문화 통권 제26호 편 · 집 · 후 · 기



새로운 역사를 꿈꾸며, 지역문화 유산의 체계와 아름다움을 현실로 승화시키려 애쓰신 선진들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변동하는 문화콘텐츠의 역할을 해온 「횡성문화」가 통권 26호를 내놓게되었습니다.

첫눈이 올 때 우리는 이미 역사의 뒀안길에 접어든 한해를, 봄에 꼭꼭 씨앗을 심듯 글로 적어 군민들 앞에 내놓습니다. 애항심을 갖고 서로의 공감대를 만들어 가며 생활문화의 역사를 이어나가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동안 전통으로 이어져 급변하는 세월에 생활규범들이 왜곡되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지켜내는 일이야 말로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일임을 느낍니다.

오래 겪어온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력”과 “열심히”는 가장 친숙하게 와닿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횡성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인간이 가져야 할 덕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횡성의 역사와 횡성사람들의 선진문화 생활에 더욱 노력하며, 사람들이 가꾸어야 할 것, 찾아내야 할 것, 바꾸어야 할 것, 내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살피서 함께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선진 군민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편집위원님들과 작품을 집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12.21

횡성문화통권 제26호 편집위원회
위원장 박 현 속

- 편집위원장 : 박현숙
- 편집위원 : 고락웅, 권용환, 김두선, 박순업, 이병오, 장태종, 한상균

2011 **황성문화** (통권 제26호)

발행일 _ 2011.12.30

발행처 _ 황성문화원 ☎ (033) 343-2271

발행인 _ 김광수

기 획 _ 홍성진

디자인 · 제작 _ 서원기획 ☎ (033) 343-2404

※ 본 책자는 비매품입니다.

※본 책자의 일부 내용은 황성문화원의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